

2 · 0 · 1 · 0 · 지 · 역 · 여 · 성 · 문 · 화 · 콘 · 텐 · 츠 · 발 · 굴 · 사 · 업

성북의
여성문화재

선정단과 김쌤이야기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김

우리 지역의 문화재, 이야기가 되다

성북문화원은 ‘2010 지역여성문화콘텐츠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성북의 여성문화재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북구는 우리 선조들의 혼과 열이 깃들어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유적을 남기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성북구의 대표적인 여성문화 유적인 선잠단지(사적 제 83호)를 알리고 지켜나가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물로 강연회·영화 상영·사진전·체험전 개최 및 연구자료집 발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선잠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선잠단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일궈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유산연구회와 인연을 맺어 여성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집필진들이 모여 선잠단지의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집된 서포터즈들이 직접 자료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자료집을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연구자료집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나리라 생각되며, 교육적인 효과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우리 문화원은 자료집 발간을 시발점으로 하여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가공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 가능성을 도모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이 나오기 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 11.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낮선 것이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다

낮선 것도 관심을 갖고 자꾸 보면 애정이 생기고 특별한 것이 된다.

문화해설을 하고 있다지만 선잠단을 특별히 관심 갖고 보진 않았다. 나에게도 역시 일상 속에 묻힌 선잠단일 뿐이었다.

우연히 성북문화원과 인연을 갖게 되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선잠단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다. 자료 발간과 집필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만나 선잠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사진전에 쓸 사진을 찍느라 수십번을 찾아갔다. 비오는 날, 미친 사람처럼 선잠단 앞에서 비를 맞으며 지나치는 차들과 사람들을 관찰하며 사진을 찍었다. 선잠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우리 여성문화유산연구회 회원과 선잠단 서포터즈들은 10월 한달간 노인정과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는 하나, 둘 매듭이 풀리듯 선잠단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이번 사업기획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힘든 것보다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곤 했다.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선잠단 속에 선잠제향이 있었고, 왕비의 친잠례와 여성들의 양잠, 길쌈노동의 의미가 담겨있었고 서릉씨를 비롯한 양잠신, 누에신 등 많은 설화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진 선잠단이 되었다.

이번 자료집에는 선잠단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전문적인 학술서나 학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내용은 피했으며 주민조사와 같은 주민참여 부분을 첨가시켰다. 선잠단처럼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의미를 알고 문화재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자료집은 조사하고 집필하느라 애쓰신 여러 선생님들과 면접에 흔쾌히 응해주신 성북동 주민 여러분들의 성과인 것이다.

자료 수집을 도와주신 대한잠사회와 청원 잠업진흥원 박병규 원장님, 여주 잠사민속 박물관 박재명 관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10. 11.

여성문화유산연구회 회장 **최 선 경**

문화의 보고(寶庫) 성북구

높고 청명한 하늘과 낙엽들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1월에 **성북의 여성 문화재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사업의 결과물인 『연구자료집』을 발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은 1996년 개원 이래, 우리구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 확산과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여성문화유산연구회’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로 『연구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매우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사적 제83호 ‘선잠단지’는 양잠을 권장하기 위해 잠신(蠶神)에게 선잠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성종 2년(1471년)에 선잠단이 설치되었다가, 1908년 선잠단과 선농단의 신위를 사직단으로 옮기면서 선잠단은 그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禮)를 지키며 의식주의 풍요를 기원하는 조상들의 의식이 녹아있던 선잠단은 훼손·방치되었다가, 1939년 보물 제17호로 지정되고 해방 후 사적으로 재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에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선잠단 서포터즈’ 활동과 주민설명회 등은 선잠단지를 알리는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발간된 『연구자료집』은 우리 지역 문화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문화의 대표 구역으로 성북구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성북구는 지역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연구 및 활용·계승을 위해 계속적으로 문화원을 독려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값진 성과물을 만들어주신 성북문화원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북문화원과 여성문화유산연구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 11.

성북구청장 김 영 배

목 차

■ 선잠단에 관한 기록들

신화로 만나는 누에, 비단, 옷 이야기	3
-----------------------------	---

김 소 원 _여성문화유산연구회

조선시대 양잠업과 여성	23
--------------------	----

남 미 혜 _국립하노이 외국어대 한국어학과 객원 교수

친잠례와 선잠제 의례와 의의	37
-----------------------	----

임 혜 련 _숙명여대 강사

18세기 이후 왕비의 친잠과 양잠산업의 변화	61
--------------------------------	----

이 정 향 _여성문화유산연구회

여성의 일, 길쌈의 역사와 축제	73
-------------------------	----

김 효 경 _한남대 강사

■ 선잠단에 관한 기억들

선잠단에 관한 기억들	109
-------------------	-----

최 선 경 _여성문화유산연구회

선잠단에 관한 기록들

선잠단지(先蠶壇址) 현황

사적지정 : 사적 제 83호 (1963. 1. 21 지정)

위 치 : 성북구 성북동 64-1, 성북초등학교 옆

면 적 : 939m² (285평)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1958. 6. 19)

시 설 물 : 표지석 1개, 뽕나무 46주, 홍살문 1, 안내판 1

신화로 만나는 누에, 비단, 옷 이야기

-선잠과 양잠의 유래

김 소 원
여성문화유산연구회

1. 왜 옷이 먼저 나올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조건은 의식주다. 그런데 생명을 지탱하는 ‘식(食)’보다 ‘의(衣)’가 먼저 나온다. 다음의 신화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옛날, 이 세상이 생길 적에 하늘과 땅은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늘은 마치 솥뚜껑처럼 도드라지고 땅은 네 귀에 구리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해도 둘이 오, 달도 둘이었다.

이때 미륵이 탄생하였다. 미륵은 달 하나를 떼어내어 북두칠성과 남두칠성을 마련하고 해 하나를 떼어내어 큰 별과 작은 별을 만들었다.

미륵은 옷이 없었다. 그리하여 옷을 지으려 하였으나 옷감도 없었다. 미륵은 이 산 저 산으로 뻗어가는 칙녕쿨을 베어서 껌질을 베끼고 그것으로 실을 만들어 하늘 아래 베를 놓고, 구름 속에 잉아를 걸고 들코짱들코짱 베를 짜서 칙으로 장삼을 마련하였는데, 섬이 다섯 자나 되고 소매는 세 자가 되었다.

미륵은 고깔을 만들려고 한 자 세 치를 잘라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눈 아래도 내려오지 못했다. 두 자 세 치를 더해 고깔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고깔은 귀 아래를 내려오지 못했다. 다시 세자 세 치를 잘라내어 고깔을 만들었다. 그제야 턱 아래까지 내려왔다.

미륵은 생식을 하였다. 그때는 불이 없기 때문에 날곡식을 그대로 먹었는데 한번에 말들이 섬들이로 먹었다. 미륵은 날곡식을 먹을 때마다 곡식을 익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물과 불의 근본을 모르는 미륵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이하 생략)¹

위 이야기는 함경도 지방에 전해지는 ‘창세가’로 미륵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불교국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최초의 이야기에서는 ‘신’으로 불리지 않았을까 한다. 미륵은 하늘과 땅이 서로 붙은 혼돈의 세상에 나타나 해와 달을 하나로 만들어 세상을 안정시킨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옷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옷이 갖추어지자 그때서야 미륵은 불을 찾는다. 그리고 미륵은 먹을거리²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인류는 먹을거리를 찾아 이동하였지만, 공동으로 자연에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었던 사회에서는 먹을거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덜 하였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언제부터, 왜 옷을 입었을까?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옷은 무화과나무 잎이며, 부끄러움이 옷을 입게 하였다. 옷의 기원에 대해서는 수치설 외에 자기 몸을 꾸미고 싶어 하는 장식설, 이성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국부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설, 자연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다는 실용설 등이 있다.³ 이 각각의 까닭들이 신화시대에서 문명시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옷에 대한 정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라는 말은 날마다 먹는 음식 외에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인용한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밥’이란 먹을거리에 대한 충칭으로, 인간은 먹을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철학과 예술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닌가.

패션디자이너 코코샤넬은 “패션이란 옷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대기 아래, 우리들의 삶과 생각 속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옷이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 주목을 끈다.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인 의식주에서 ‘의’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 역시 복잡한 탄생물인 인간의 특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닐까 한다.

1.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p35, 손진태 채록을 재인용한 것임.

2. 위 신화에 나오는 ‘곡식’은 농사를 지어 얻은 곡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야생에서 얻은 열매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곡식은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야 재배하기 시작했다.

3. 옷의 기원설은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1>, 기린원, p12~15를 참조하였다.

2. 맨 처음에 입은 옷

그럼, 인류는 처음에 어떤 옷을 입었을까? 옷에 관한 유적은 가락바퀴, 뼈바늘에서 알 수 있는데 신석기 시대의 유물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삼실이 꿰인 채로 발견된 뼈바늘에서는 신석기인들이 삼으로 옷을 지어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그런데 ‘창세가’ 신화의 미륵이 입은 옷은 칙 섬유로 짠 갈포였다. 다음은 지리산 산신, 성모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성모신도 칙으로 옷을 짓는다.

지리산의 산신은 여신인데 그는 거인이었다. 키가 36척에 다리가 15척이나 되었다. 그는 성모, 또는 마야고, 마고라고 불리었는데 젊고 몹시 아름다웠다. 그는 손톱이 굉장히 길고 새의 부리처럼 날카로웠다.(중략).... 마야고는 반야를 사랑했다. 반야도 마야고를 사랑한다고 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나 반야는 떠난 지 수만 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중략).... 마야고는 손톱으로 나무 밑동을 굵다가 손톱에 끼어든 나무껍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나부꼈다. 마야고는 그것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옳지, 나무껍질에서 실을 뽑아 베를 짜서 그리운 님의 옷을 한 벌 만들어 놓았다가 드리자.’ 이렇게 생각한 마야고는 나무에서 실을 뽑았다. 그리고 그 실은 다시 이빨로 자근자근 씹어서 올을 이었다. 그런 다음 나무 밑동을 꾸리삼아 그 실을 이리저리 연결하여 잉아를 끼었다. 그리고 마야고는 허리에 실을 감아 스스로 바디가 되어 잉아에 낀 나무 틈을 정신없이 오가며 베를 짰다. 마야고에게 그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지루함을 조금쯤은 잊을 수 있었다. 마야고는 마침내 베를 짜서 반야에게 줄 옷을 한 벌 지었다.(이하 생략)⁵

삼은 외래종으로, 기원전 20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섬유작물로 재배했고, 기원전 1500년경 유럽과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니 삼이 들어오기 전 우리 선조들은 칙으로 옷을 해 입은 모양이다.

그 외, 양털과 개털을 섞어 짠 모직물⁶, 사직물과 말꼬리 털로 짠 모직물⁷에서 인

4. 경북 선봉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에서 나온 뼈바늘.

5.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p228~231, 1968년 전남 구례에서 이선재(72세, 남)에게 채록한 것임.

류의 직조기술이 오래전부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작물을 재배하기 전에는 동물의 털을 이용하여 옷을 지어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정의된 옷의 기능은, 체온을 조절하고, 피부를 보호하며, 신체 안전을 꾀하는 신체보호기능과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직업과 신분의 사회적 표현을 꾀하는 자기표현 기능이 있다.

직조 기술의 발달은 옷의 자기표현 기능 가운데 신분적 표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창세가’ 신화에서 미륵이 입은 옷은 장삼과 고깔이었다. 장삼이란 승려가 입는 옷옷이고, 고깔은 승려가 쓰는 모자이다. 옷의 크기에서 미륵이 거인이었음을 짐작케 하는데 옷은 이렇게 신분을 나타낸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던 지배자들에게 옷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의식주에서 ‘의’가 앞서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의’가 권위의 상징이라는 점도 있다. 자신이 지배하는 백성들 앞에서 의상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말이다.

3. 권위의 상징, 비단을 만들다

의료작물에는 삼, 목화, 모시풀이 있다. 삼으로는 베옷을, 목화로는 면옷을, 모시풀로는 모시옷을 해 입는다. 이들은 모두 농사를 지어 실을 얻는다. 이와 달리 비단은 누에에서 얻는다. 누에를 기르는 일을 ‘양잠(養蠶)’ 혹은 ‘잠업(蠶業)’이라고 한다. 이들 옷감 중에 권위를 상징하는 직물로 발달한 것이 비단이다. ‘비단’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의 비단이 로마 제국으로 흘러들어갔던 길에 ‘비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다. 로마의 귀족들은 한나라의 비단에 열광하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비단 생산국으로 인식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인이 신분별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상세히 적혀 있다.⁸ 조선

6. 고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000년 초의 길림성 영길현 성성초 유적 17호 돌널무덤에서 나옴.

7.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1호묘(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초)에서 세 개의 천 조각이 나왔는데 하나는 사직물이고, 두 개가 모직물이었다.

8. <삼국사기> ‘권제 33 잡지雜誌 제2’

역시 신분간의 차별을 유지하기 위해 의관 제도를 갖추었다. 하지만 의복 사치는 늘 문제꺼리였다. 그 사치의 전면에는 늘 ‘비단’이 있었다. 영조는 의복사치를 제한하기 위해 중국의 비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중국 비단에 대한 열망을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비단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비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물⁹에서 기원전 2세기 말과 1세기 초 사이에 양잠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기원전 3000년경의 신석기 유적¹⁰에서는 밑바닥에 뽕잎무늬가 있는 질그릇이 출토되어 누에를 길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문헌기록인 <삼국지>나 <후한서>에서 우리나라 고대국가들의 뛰어난 직조기술을 바탕으로 비단을 생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삼국사기> ‘혁거세’ 편에는 “왕이 6부를 돌아다니며 위문하는데 왕비 알영도 이에 따랐다.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여 농토를 알뜰하게 이용하도록 하였다.”¹²는 기록이 있다. 또 ‘온조편’에는 “3월에 사신들을 파견하여 농업과 잠업을 권장하게 하고”라는 기록이 나온다.¹³ 신라와 백제의 시조왕인 혁거세와 온조는 나라의 기틀이 잡히자 백성들에게 권장한 일이 농업과 더불어 잠업이었던 것이다.

또한 석탈해가 알로 태어나서 버려질 때 어머니가 알을 비단으로 썼다.¹⁴ 버려진 존재로서 왕이 되었던 탈해의 존귀함은 비단에 싸인 겉로 상징될 정도로 비단이 갖는 권위는 남다른 것이었다.

김유신의 동생 보희는 서산에 올라 눈 오줌이 경주를 가득 채우는 꿈을 꾸고, 동

9. 평양시 정백동 1호묘에서 나온 사직물

10. 평양시 삼선구역 호남리 유적

11. <삼국지> ‘부여전’에 “외국에 나가면 두텁게 짠 사직물 옷, 물들인 오색실로 짠 사직물에 수놓은 옷, 푸른빛의 모직옷을 즐겨입고...”.

<후한서> ‘동이열전’에 “동이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변을 쓰거나 금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여기서 금(錦)은 비단의 옛말이다.

<후한서> ‘마한전’에 “금, 보화, 물들인 실로 짠 금과 푸른 새털로 짠 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에서 그만큼 비단이 풍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12. 김부식 글, 고전연구실 옮김, <삼국사기>, 신서원, p23 ‘신라본기 혁거세거서간 17년’편.

13. 같은 책, p509 ‘백제본기 온조왕 38년’ 편.

14. 같은 책, p33 ‘신라본기 탈해니사금’ 편.

생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문희는 비단치마를 주고 그 꿈을 샀고, 태종 무열왕의 비 문명왕후가 되었다.¹⁵ 비단이 그녀를 왕비로 만들어 준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와 달에 대한 신화이기도 하면서, 일본의 건국신화에도 관계가 있는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에서도 비단에 얽힌 신비로운 사건이 등장한다.

제8대 아달라왕 즉위 4년, 동해가에는 연오랑(延鳥郎)과 세오녀(細鳥女)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오랑이 바다에 가서 해조를 채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혹은 물고기라 한다) 하나가 있어 태우고는 일본으로 갔다. 일본 사람이 이를 보고는 “이는 예사 사람이 아니다.” 하고는 이에 왕으로 삼았다.

세오녀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가서 찾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는 역시 그 바위에 오르니, 바위가 또 전처럼 싣고 갔다. 그 나라 사람이 놀라고 의아하게 여겨 왕에게 바치자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어 귀비로 삼았다.

이때 신라에 해와 달이 빛을 잃었는데, 일관¹⁶이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괴변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두 사람에게 돌아오기를 청하니, 연오랑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도착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그러나 짐의 비가 짜놓은 가는 비단이 있으니, 이로써 하늘에 제사 지내면 될 것이다.” 하고는 비단을 주었다.

사신이 와 아뢰자 그 말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 그러자 해와 달이 예전처럼 되었다. 그 비단을 어고에 간직하여 국보로 삼아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 하고, 하늘에 제사지낸 곳의 이름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 하였다.¹⁷

해와 달이 다시 돌아오게 만든 비단에는 권위와 함께 신성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물론 모든 비단이 신성성을 갖지는 못한다. 오로지 세오녀가 짠 비단에게만 주어진 신성성이다. 이에 대해 조동일은 연오랑과 세오녀는 해를 맞이하고 비단을 짜는 신으로, 해와 달의 빛이 없어지자 제사를 지내 되돌아오게 하고, 비단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은 이들 시기의 종교 의례와 관련된 신화로 파악한 적이 있다.¹⁸

15. <삼국유사> ‘기이 제1 태종 춘추공’ 편.

16. 길일을 잡는 추길관을 말한다.

17. 일연 저, 최호 옮김, <삼국유사>, 홍신신서, p42~43, ‘기이 제1편’.

18.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2004

4. 비단옷을 가장 먼저 입은 황제

권위의 상징, 비단을 가장 먼저 입어본 이는 누구일까? 웬만한 권위의 소유자가 아니면 최초로 비단옷을 입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텐데 말이다. 그는 중국 ‘삼황오제’ 시대의 황제(黃帝)이다. 삼황오제 시대는 중국에서 최초의 국가형성 출현의 과정을 암시하는 전설의 시대다. 결국, 우리는 신화로서 비단옷의 출현을 감지할 수 있다.

삼황(三皇: 세 명의 임금)과 오제(五帝: 다섯 성군)가 누구인지는 통일된 기록은 없는데 이들 신들 중 ‘황제’는 중앙의 상제였다. 동방 상제는 태호이고, 남방 상제는 염제, 서방 상제는 소호, 북방 상제는 전욱이다.¹⁹

황제시대의 큰 사건은 황제와 치우의 전쟁이었다. 치우는 염제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승리기념 축하잔치를 열었고, 이 큰 자리에 비단이 처음 등장한다. 그때의 대목을 보자.

황제는 치우를 살해한 뒤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강고곡’이라는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 ...(중략)... 이렇게 전승을 축하하는 음악을 울리며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였다. 금상첨화격으로 말가죽을 걸친 잠신이(이 잠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에 두 타래의 실을 받쳐들고 있었는데 한 타래는 황금처럼 노란빛이었고, 또 한타래는 순은처럼 빛나는 하얀색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는 이 아름답고 희귀한 물건을 보자 크게 칭찬하며 사람들을 시켜 이 실로 옷감을 짜게 하였다. 그 실로 짜낸 비단은 가볍고 부드러움이 하늘의 구름 같기도 하고 또 흐르는 물결 같기도 하여 그 이전의 모시나 삼베 등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황제의 신하인 백여(伯余)가 이 비단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황제 또한 그것으로 제왕의 예복과 모자를 만들어 착용했다.²⁰

비단이 하늘의 구름 같기도 하고, 흐르는 물결 같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비단의 감촉과 비단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황홀경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그 누구도 황제에게 대적할 수 없는 기쁨의 날에 첫 등장하는 비단은 기쁨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19_ 중국 신화는 위엔커, <중국신화전설>, 민음사 을 기본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20_ 같은 책, p197

황제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5. 말가죽을 걸친 잠신, 마두랑

황제에게 노란빛과 하얀빛의 실을 바친 말가죽을 걸친 잠신(蠶神)은 누구일까. 노란빛과 하얀빛의 실은 누에에서 뽑은 명주실을 의미한다. 이 잠신의 신화를 잠시 살펴보자.

먼 옛날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먼 길을 떠나 오랫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의 집에는 어린 딸과 말 한 마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무척 쓸쓸해하던 딸은 아버지가 그리워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나는 네게 시집갈 텐데.”라고 말에게 말했다. 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몇날며칠을 달려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자기 집의 말이 천리 밖의 고향에서부터 달려온 것을 보고는 놀랍고도 기뻐서 말의 갈기를 잡고 몸을 날려 말등에 올라탔다. 그러나 말은 이상하게도 그가 달려온 방향만 바라보고 서서 목을 길게 빼고는 슬피 우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말이 아득히 먼 집에서부터 달려와 이렇게 이상스런 짓을 하고 있으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나 아닐까. 그래서 그는 즉시 그곳을 떠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딸이 아버지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했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말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는 저 혼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왔군요.”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나자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대로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도 충명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기뻐서 전과 달리 가장 좋은 사료를 말에게 주었다. 그러나 말은 풍성한 음식도 마다하고 소녀가 마당에서 대문으로 드나들 때마다 신경질적이 되어 소리 지르고 날뛰는데, 한두 번만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자 괴이한 생각이 들어 딸에게 물었다.

“너 말 좀 해봐라. 저 말이 왜 너만 보면 그렇게 흥분해서 날뛰는 거냐?”

딸은 하는 수 없이 전에 말과 농담으로 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밝혔다. 이야기를 듣고 난 아버지는 얼굴 표정이 굳어져서 딸에게 말했다.

“남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분간은 밖으로 나가지 말거라.”

아버지는 말을 사랑했으나 결코 말을 사위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말이 계속 이상

한 짓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는 화살을 감춰가지고 마구간에서 말을 쏘아 죽였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 뜰에 널어두었다.

마침 그날 아버지는 일이 있어 밖에 나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어린 딸은 옆집 친구들과 함께 뜰에 널려 말려지고 있는 말가죽 옆에서 놀고 있었다. 어린 딸은 그 말가죽을 보자 심술이 나서 발로 그것을 걷어차며 욕을 했다.

“이 못된 짐승아, 감히 인간을 네 마누라로 삼으려 하다니. 가죽이 벗겨진 꼴을 보니 정말 고소하구나. 너 이놈. 지금도,”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가죽은 땅바닥에서부터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소녀를 뒤집어 씹었다. 그리고는 뜰 밖으로 나가 바람처럼 몇 바퀴 돌고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아득히 먼 들판 저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친구들은 눈 앞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는 기절초풍하게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구할 생각은 못한 채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비로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놀랍고도 이상하여 부근을 샅샅이 뒤져 보았으나 딸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난 뒤, 아버지는 큰 나무의 나뭇잎 사이에서 온몸이 말가죽으로 둘러싸인 딸을 찾아냈으나 딸은 이미 꿈틀꿈틀 움직이는 벌레 모양의 생물로 변해 있었다. 그 벌레는 말 모양의 머리를 천천히 흔들면서 입에서 희게 빛나며 기다랗고 가는 실을 토해내 사방의 나뭇가지를 휘감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광경을 보고는 실을 토해내는 이 이상한 생물을 ‘누에’라고 불렀으니, 그녀가 토해낸 실이 그녀 자신을 휘감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뽕(桑)이라 하였는데 이 나무에서 어떤 사람이 젊은 목숨을 잃었다(喪)는 의미이다.²¹

말의 머리를 갖고 있어서 ‘마두랑 신화’²²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말의 머리일까. <본초강목>에 따르면 누에를 말의 이에 문지르면 말이 문득 풀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²³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매우 놀라운 이야기다. 누에가 자기 이에 닿는 순간 말은 같은 종족이었음을 직감하는 것일까.

21_ 같은 책, p194~197

22_ 마두랑 신화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전해 오고 있다. 축에 아버지와 딸,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이웃 나라에 잡혀 갔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염려되어 기르던 말에게 남편을 구해서 돌아오면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말은 이내 마구간을 뛰쳐나와 아버지를 태우고 돌아왔으나,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와 모의하여 딸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 뜰에 널어 두었다. 그리고 딸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말가죽이 딸을 감싸 사라졌고, 열흘 뒤에 뽕나무 위에 걸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미 딸은 누에가 되었다.

23_ <성호사설> 제 11권 ‘선잠’에서 재인용.

하여간 아름다운 실을 품고 있는 누에의 존재에 대한 궁금함과 놀라움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던져 실을 자아내는 희생이, 이러한 신화로 전해지는 듯하다. 소녀는 쉽게 내던진 말에 대한 결과로 자신을 희생하여 새로운 탄생의 길을 걷는 누에가 되었다. 각주 22)에 소개된 마두랑은 어머니의 그릇된 약속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효녀가 되어 누에가 된 것이다.

6. 양잠을 처음 시작한 잠신, 누조

마두랑 잠신은 소녀가 스스로 실을 토해 내는 누에의 기원에 관한 신화이고, 인간이 직접 누에를 기르는 양잠을 처음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황제의 부인 누조(嫫祖)²⁴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하늘나라의 황후였는데 그녀도 친히 누에를 쳤다. 그래서 잠신이 황제에게 바친 것과 같이 아름다운 실을 토해 내

24. 누조를 뉘조로 쓰는 데도 있는데 이는 ‘누(嫫)’자의 중국식 발음이 ‘뉘’로 소리가 나서라고 한다. <잠상촬요>(이우규 편, 1884년, 고종 21)를 발췌하여 한글로 번역한 <잠상집요>(이우규 편, 1886년, 고종 23)에는 누에를 ‘뉘에’로 적어 놓았는데, 여기서 ‘뉘’는 ‘뉘조’의 뉘에서 따온 말이라고 한다. 이는 박재명 여주잠사민속박물관장님이 인터뷰 중에 알려주신 이야기다. 또 누조를 유조(繡組)로 표기하는 곳도 있다. 위엔커의 책에서도 ‘유조’로 번역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누조’로 통일하여 쓴다.

누조가 염제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나 위엔커에 따르면, 염제에게는 4명의 딸이 있다. 먼저, 이름은 알 수 없고, 그냥 ‘소녀’라고만 전해지는 딸. 그녀는 선인 적송자와 함께 선인이 되어 아득히 먼 곳으로 떠났다. ‘적제녀’로 불리는 딸은 뽕나무 위에 살았다. 그녀는 정월초하루 날 나뭇가지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여 보름날 완성하였다. 염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녀를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해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염제는 아예 나무 밑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뜨거워서 내려올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녀는 몸의 형체를 벗어버린 채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에 남은 그 뽕나무는 ‘제녀상(帝女桑)’이라 불렸고, 세상의 사람들은 정월보름날이 되면 나무 위의 까치집을 걸어 내려 불에 태운 뒤 그 재에 물을 부어 누에 알을 담가 두어 질 좋은 많은 실을 얻고자 하였다. 또 한 명의 딸은 ‘요희’이다. 요희는 일찍 요절하였는데 무산의 구름과 비의 신이 되었다. 마지막 딸은 ‘여와’로 바다에 빠져 죽어 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바다를 원망하며 나뭇가지 등을 물어다가 바다를 메웠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누조가 염제의 딸일 리가 없다. 그리고 ‘적제녀’ 이야기에서 양잠과 관련된 단서들을 볼 수 있다.

게 해 그것으로 술하게 많은, 구름과도 같고, 흐르는 물과도 같이 가볍고 부드러운 비단을 짜냈다. 누조가 양잠을 시작하자 백성들도 뒤따라 시작하여 누에는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누조가 어느 날, 차를 마시다 실수로 누에고치를 뜨거운 찻잔에 빠트렸다. 그런데 고치에서 가느다란 실이 계속 풀어져 나왔다. 그때부터 누조는 누에를 기르는 양잠을 시작하였고, 이에 백성들도 뒤따라 하였다.²⁵

뒤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이로부터 누조는 잠신이 되었다. 그런데 문헌²⁶에는 잠신에 대해서 ‘원유부인 우씨’²⁷라는 이름이 더 나온다. ‘원유부인 우씨’가 마두랑 소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앞서 농업과 잠업이 고대국가 이래로 줄곧 백성들에게 권장하였던 일이라 하였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에서는 정월, 왕이 몸소 농사를 짓는 친경을 하고, 선농단(先農團)단에서 제사를 올려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다. 반면 왕비는 비빈들과 관료들의 부인을 거느리고 후원에서 몸소 뽕잎을 따 잠실(蠶室)²⁸에서 누에를 치는 친잠을 하였고, 선잠에 제를 올렸다. 진(晉)나라에서는 이 제사를 올리기 위해 선잠단(先蠶團)이라는 제단을 두었고, 이 제도는 청(淸)까지 이어졌다.²⁹ 중국에서는 농업과 잠업을 백성들에게 적극 장려하기 위해 왕과 왕비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

25_ 누에고치를 뜨거운 찻잔에 빠트렸다는 이야기는 위앵커의 이야기에는 없다. 강판권 글, <중국을 낳은 뽕나무>, 글항아리, p39

26_ 이익, <성호사설> 제11권 ‘선잠’에 “<사문유취>를 상고하건대, 우보의 말을 인용하여 ‘원유부인 우씨의 딸을 제사지내면서 선잠이라 존칭하였다’고 했으니” 하는 구절이 나온다. 우보는 중국 동진의 역사가로, <수신기>를 편찬하였다. <수신기>는 기괴한 일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지괴의 보고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설화집이다. 우보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것은 <수신기>를 인용하였다는 말이다.

27_ 이태희는 <민속 소식>, 국립민속박물관 2008. 8., p7에서 “<한구의>에 따르면 선잠신은 두 명으로 ‘원유부인’과 ‘우씨공주’라고 하나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28_ 잠실은 누에를 치는 방을 말한다.

29_ 이태희, <민속 소식>, 국립민속박물관 2008. 8., p6~7

고, 제단을 만들어 제를 올리는 의례를 일찍부터 행하였다.

선농단에 모셔진 농경신은 전설의 ‘삼황오제’ 시절 남방 지역 상제였던 염제로, 그가 곧 신농씨³⁰다. 그가 인류에게 처음으로 농사를 가르친 신이다. 선잠단에 모셔진 신은 누에치기를 처음 시작한 황제의 부인, 누조이다. 농경신은 남신이고, 잠신은 여신인데 양잠과 길쌈이 여성의 노동이었다는 점과 관련 있는 것이다.

마두랑 신화에서는 누에 자체가 여성의 변신이다. 어찌 보면, 황후가 양잠을 발견한 것보다 누에 자신이 여성이었다는 점이 누에의 희생정신, 혹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면에서 더 숭고함을 준다. 그래서인지 왕실에서는 누조에게 제를 지내지만, 민가에서는 마두랑에게 제를 올려 누에의 풍년을 기원했다고 한다. 왕실에서 나라의 주요한 국가의례로 모셔지는 신이 되려면 한갓 농가의 소녀여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그에 맞는 권위를 갖는 하늘나라의 황후야말로 나라의 신으로 모시기에 알맞은 존재였다.

7. 선잠단에 모셔진 서릉씨

고대국가에서부터 백성들에게 권하였던 농업과 잠업은 조선시대까지 맥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잠단을 마련하고, 제를 올린 것은 고려 시대부터이지만, 활발한 의례활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고, 조선 시대에 들어서 체계를 갖추고, 의례를 올리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선잠단은 선잠의 서릉씨(西陵氏)를 제향하는데, <예서주>에 “<사기>에 말하기를, 황제가 서릉씨에게 장가갔는데, 서릉씨가 처음으로 누에를 쳤다고 한다.” 하였다. 신위를 단위의 북방에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자리는 왕골자리로 한다.³¹

30_ 농경신인 염제, 즉 신농씨는 소의 얼굴을 하였다. 그의 모습에서 농경에 특별한 공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염제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 대지에는 이미 인류가 번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나오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염제는 곡식을 심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 주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곡식 심는 법을 가르칠 때 하늘에서 술하게 많은 곡식의 씨앗들이 떨어져 내려, 개간해 놓은 밭에 심어 오곡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위 글에서는 선잠단에 모셔진 이가 서릉씨임을 확인할 수 있고, 서릉씨가 황제의 부인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누조와 서릉씨가 같은 인물일까.

서릉씨의 딸 누조가 황제의 원비가 되어, 백성에게 누에 치고 의복 만드는 법을 가르쳤는데, 후세에서는 그에게 제사하고 선잠이라 한다.³²

위 글에서는 누조의 성이 서릉씨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후로 국가기록에서는 선잠단에 모셔진 잠신을 ‘서릉씨’로 통일하여 쓰고 있다.³³ 위 글에서는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서릉씨가 누에 치는 양잠뿐만 아니라 옷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비단을 얻으려면 양잠으로만 되지는 않는다. 누에고치의 실을 뽑아 내야 하고, 이 실로 옷감을 짜는 일이 끝나야만 비로소 비단이라는 황홀한 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천만 있다고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느질을 하여 의복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즉, 선잠이라는 말에는 양잠과 함께 비단을 만들어내는 길쌈, 옷을 지어 입는 바느질 솜씨까지 내포하는 말로 이미지되어야 한다.

31. 세종실록 > 오례 > 길례 서례

32. <통감외기>에 나오는 글로, 이익, <성호사설> ‘선잠’ 편의 주석을 재인용하였다. <통감외기>는 중국 송나라 때 유서가 복희씨로부터 주나라 위열왕 23년(B.C.402)까지의 일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33.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잠신을 ‘선잠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익이 말하기를 <주례>에서 ‘선잠에게 제향을 올리고 몸소 뽕을 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주에 ‘선잠은 천사(天嗣)’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사(嗣)는 곧 말을 뜻하니 누에는 ‘하늘에서 내려 온 딸’이라는 의미가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딸이라면, 바로 ‘마두랑 신화’의 그 소녀가 되는 것이다. 또 중국의 한 황후가 선잠에 제사 지낼 때 ‘원유부인 우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원유부인 우씨가 서릉씨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선잠을 ‘서릉씨’로 하지 않고 ‘선잠씨’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8. 선잠단의 확장된 의미, 의(衣)

선잠단에 잠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백성들에게 양잠을 권하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양잠을 알려 준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누에와 고치 풍년을 기원하는 기도를 담는다. 앞서 선잠의 의미가 의복 짓는 데까지라 했으니, 비단뿐 아니라 삼베, 모시, 무명을 만드는 길쌈 전반에 대한 상징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야 타당할 것이다. 농사를 잘 지어 모시꿀, 삼, 목화에서 좋은 원료를 얻었다한들 길쌈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옷감은 얻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옷감 짜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 베틀바위가 있는 바로 밑의 마을에 갑숙이라는 처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녀는 아주 가난하여 남의 집에 가서 베를 짜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머니를 지성으로 모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녀는 온갖 약을 구해서 어머니께 드렸지만 효험이 없었다.

어느 날, 약을 지어 가지고 오늘 길에 날이 저물었다. 어둠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가에 한 노파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파를 업고 와서 어머니 옆에 눕히고, 정성으로 간호하였다. 밤낮으로 두 사람을 간호하느라 잠을 자지 못한 그녀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파가 간 뒤에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갑숙이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베를 짰다. 그녀의 베짜는 솜씨는 아주 뛰어났으므로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이 갑숙이와 궁궐에서 베를 짜는 직녀들의 솜씨를 겨루어 보게 하였다. 직녀들이 가지고 있는 베틀은 아주 좋은데, 그녀의 베틀은 아주 보잘 것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베 짜기 시합을 보려고 베틀을 설치해 놓은 산 중턱에 몰려들었다.

베 짜기 시합이 시작되어 한참 베를 짜는데 난데없이 갑숙이가 구해 준 노파가 나타나 그녀의 베틀을 세 번 두드렸다. 그러자 베틀이 열 개로 변하고,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열 개의 베틀에 앉아 베를 짜 주었다.

시합이 끝난 뒤에 보니, 그녀가 짜는 베가 직녀들이 짠 것보다 훨씬 곱고 잘 짜여 있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에게 왕비가 되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녀는 홀어머니를 두고 왕비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녀의 효심에 감동한 임금은 그녀의 어머니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마련해 주고,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³⁴

이 베틀바위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 선암마을 뒷산에 있었다고 한다. 효의 덕목을 바탕으로 한 전설인데, 베를 잘 짜면 왕비도 될 수 있었으니, 길쌈은 여성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곧 나라의 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옷을 짓는 일의 중요성은 ‘견우직녀’ 이야기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 그것이 농사와 길쌈이었다. 견우직녀 이야기에서는 이 점을 말하고 있다. 직녀의 중요성은 다음의 창세신화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태초에 우주는 혼돈의 상태였다. 하늘과 땅이 금이 없이 서로 맞붙고 암흑에 휩싸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이 혼돈 천지에 새벽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하늘의 머리가 자방으로 열리고,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생겼다. 이 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덩어리에 산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려 하늘과 땅의 경계는 점점 분명해졌다. 이때, 하늘에서 푸른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검은 이슬이 솟아 나와, 서로 합치더니 동쪽에는 견우성, 서쪽에는 직녀성, 남쪽에는 노인성, 북쪽에는 북두칠성, 그리고 중앙에는 삼태성 등 많은 별들이 자리 잡았다. ...(이하 생략)...³⁵

우주에 별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긴 별이 견우성과 직녀성이라는 것이다. 우주의 동서 양편에서 빛나는 견우성과 직녀성은 고대로부터 나라의 근본산업으로 여긴 농업과 잠업(길쌈을 포함하는 의미로)을 대변해 주는 하늘의 별자리인 것이다.

9. 민간의 제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신을 섬긴 나라였다. 가정에서 숭상하는 가택신만 해도 성주신(집을 다스리는 신), 조왕신(부역을 맡는 신), 문신(문을 지키는 신), 측신(뒷간을 지키는 신), 지신(땅을 다스리는 신), 삼신(아기를 점지하는 신), 제석신(수명

34_ 최은식, <옛날옛적에>, 민속원, 2008년, p328~329.

35_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96년.

을 관장하는 신), 업신(광이나 곳간에서 구렁이, 두꺼비처럼 현재 존재하는 동물로 집을 지켜주는 신) 등 그 종류가 많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가의 각 가정은 그들만의 적당한 공간에 잠실을 두고, 누에를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도 모시는 잠신이 있었을 법한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찾지를 못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되었다.

각 고을과 마을에서 따로 이 선잠신을 제사지내지는 않았으나 풍년제나 동제 때 부제로서 선잠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모시는 선잠신의 신주는 궁중의 친잠 때 왕비가 짠 베 나부랭이로 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제사 지내는 사제는, 그 마을에서 가장 베를 잘 짜는 할머니가 맡기도 했다. 제삿날이 정해지면 이 할머니는 보름 동안 외출을 금함으로써 부정을 소외시킨다.

일체의 상사나 혼사의 행렬이 이 여사제의 집앞을 지나가서도 안 되고 또 그 마을에서 보름 동안은 살생이나 짐승 암불이는 일을 금한다. 이같이 신성을 보장받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있던 날 밤에는 ‘손물림’이라 하여 시집갈 나이의 처자들이 곡식 몇 되씩 퍼갖고 이 여사제를 찾아간다. 그럼 이 여사제는 그녀의 손바닥으로 처자의 손바닥을 스치는 ‘손물림’ 의식을 베풀어 준다. 곧 손물림은 선잠신 서릉씨의 길쌈 재주를 주술적으로 물려주는 의식인 것이다. 손물림을 받으면 길쌈 재주를 물려받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옛 한국 처녀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결혼조건 가운데 하나였다.³⁶

풍물굿을 치며 공동으로 마을 부락의 안위와 풍년을 기원하였던 풍속을 갖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마을 공동으로 풍요로운 길쌈을 기원하였던 듯하다.

송현숙이 만든 다큐영화 <회귀>에서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의 잠업을 하는 우리 농가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 송현숙은 재독화가로, <회귀>는 어린 시절 부모님 농가에서 있었던 잠업의 여정을 인간의 성장과 더불어 보여주는 영화이다. 영화에서는 길에 하얀 한지를 바른 말 모양이 이따금씩 카메라에 잡히고, 무당이 누에가 잘 클 수 있게 해 달라고 명주여신에게 비는 장면이 나온다. 명주여신에 대해서는 영화 도입부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월궁이라 불리는 28개의 별자리 중 4번째 월궁은 명주여신이라 불리는 주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사

36-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1>, 기린원, p45~p46. 그대로 인용함.

는 곳이다. 명주여신은 누에를 기르고 번성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중국의 누에치는 집에서는 말가죽을 누에 곁에 놓고 제사를 지내거나, 잠실에 말가죽을 걸어놓으면 누에가 잘된다고 믿었다³⁷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다.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전해 오는 공주와 말에 관한 이야기다.³⁸

옛날 마한 땅 남쪽에 작고도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다. 어느 해 가을, 왕은 근심스러운 용안으로 궁궐 뜰을 홀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의 불리함을 느낀 왕은 깊은 밤인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바마마, 진작부터 소녀에게 묘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곧 모든 장졸들에게 영을 내려 적장수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후한 상금과 함께 부마로 삼겠다고 하옵소서.”

계속된 공주의 굳은 결의에 왕은 크게 감동되어 어명을 내렸다. 이 소식은 온 대궐 안과 변방에까지 빠르게 전해졌다. 그런데 어명이 내려진 후 갑자기 대궐 뒤뜰에서 우렁찬 말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대궐 밖으로 달려가는 발굽소리가 멀어져가고 있었다.

동틀 무렵, 오랜만에 승전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왕은 공주와 함께 성벽으로 올라갔다. 과연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적군을 무찌르면서 진격해나가고 있었다. 날이 밝자 또 다시 어디선가 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게다가 그 말은 적군 장수의 목을 물고 있는 것이었다. 왕은, “마공! 그대가 이 나라를 지켜 주었도다.”라고 말한 뒤 눈물을 글썽이며 말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후 궁궐에는 격정거리가 생겼다. 적장의 목을 베어오는 자를 부마로 삼겠다고 공약했으나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를 구한 것은 말이오니 소녀는 말과 혼인은 아니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홀로 살면서 말을 남편 섬기듯 하겠습니다.”

왕은 난처했다. 대노한 척 얼굴을 붉히며 내시를 불러 말의 목을 베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에 공주는 “백성들과의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어서 영을 거두시옵소서.”라며 왕 앞으로 나아가 매달리듯 울부짖었다.

“무엇을 하느냐? 과인의 말을 당장 목베라 하지 않았느냐!”

말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공주는 급히 말의 시체가 있는 뒤뜰로 달려가 하염없

37. 강판권, <중국을 낳은 뽕나무>, 글항아리, p41

38. <근잡회보>에 박재명(여주잠사민속박물관) 관장이 실은 것인데, 그 출처는 지금 알 수 없다고 한다.

이 통곡을 했다. 왕의 얼굴에도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왕은 말의 공을 생각해서 가 죽이나마 간직하기 위해 깨끗이 손질하여 뒤뜰 나무 위에 걸어놓게 했다. 공주는 날마다 가죽을 매만지며 손질해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뒤뜰에서 공주의 비명이 크게 들려왔다.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갔으나 무서운 돌풍이 불어닥치면서 말가죽이 날아와 순식간에 공주를 싸가지고 어디론지 날아간 뒤였다.

세월이 흘러 이듬해 봄,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말가죽을 보았다는 전갈이 들려왔다. 공주를 싸가지고 달아난 말가죽이 시골 어느 나뭇가지에 걸려 있더라는 내용이었다. 왕은 급히 거동했다. 과연 말가죽이 흐느적거리는 가는 나뭇가지 위에 걸려 있었는데 눈비에 시달렸음인지 썩어 있었다.

“공주의 몸도 말가죽처럼 썩어 버렸을 테지. 어서 말가죽을 벗겨보아라.”

신하들이 말가죽을 벗기자 모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가죽 속에는 이상한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황공하오나 이 벌레는 공주의 화신인줄 아뢰오. 이 벌레가 나뭇잎을 먹는 모습은 마치 말이 풀을 뜯는 모습과 같고, 입은 말의 입을 닮았고, 몸은 공주의 희고 고운 살결을 닮았습니다.”

그후 궁궐로 돌아온 왕은 그 벌레들을 잘 키우라고 했다. 백성들은 이 벌레를 징그럽게 여기지 않고 잘 키웠으니 그 벌레가 바로 누에였으며 말가죽이 걸렸던 그 나무가 오늘날의 뽕나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에가 실을 뽑아내어 예쁘게 누에고치를 짓는 것은 공주의 뛰어난 수 짓는 솜씨를 본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전남 장성 지방에서는 누에 번데기를 먹으면 공주처럼 예뻐진다는 전설이 소녀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다.³⁹⁾

39. 누에가 여자였다는 이야기와 달리 누에가 남자의 영혼이었다는 민담도 있다. “옛날 두메산골에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다. 이 총각은 팔발을 쪼아 먹고 사는데 하루는 “팔발을 쪼아서 누랑 나랑 먹고 사노” 하니까 어디에서 “나랑 니랑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고 총각은 누가 그러냐 하고 사방을 살피봤는데 아무리 살피보아도 아무도 없고 우렁이 하나만 있었다. 그 우렁이를 주워서 자기 집 장롱에다 넣어놓았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다.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랬다.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하고 하루는 키(곡식을 까불러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밑에 숨어서 보니까 밥때가 되니 장롱 안에 두었던 고동이 아주 예쁜 새각시로 나와서 금방 쌀도 씻고, 반찬을 하고 상을 채려놓고 농 안으로 들어갈라고 했다. 총각은 얼릉 뛰어가서 새각시 치맛자락을 붙잡고 “나랑 살자” 하였다. 새각시는 삼년 만 참으라고 했다. 그래도 총각은 안 된다 하여 할 수없이 새각시는 총각하고 살았다. 새각시는 날마다 점심을 날라다 주었다. 하루는 점심밥을 이고 가는 데 어사 출도라 하여 새각시는 풀포기 속에 쪼그리고 있었다. 어사가 가다보니 논두렁 밑 풀포기서 빛이 올라오고 있어 가보니 절세미인이 있어 데리고 가서 살았다. 총각은 각시가 없어지니 슬퍼서 울다가 울다가 죽어서 새가 되어 어사의 집에 가서 재잘거렸다. 각시는 방문을 열고 바느질하면서 새가 재잘거리는 걸 듣고 있었다. 새는 자꾸 재잘거리다 죽어서 땅으로 떨어졌다. 색시

누에의 기원에 관한 신화로 출발하였을 터인데,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신성성이 퇴화되고, 전설로 약화된 듯하다. 이 이야기는 마두랑 이야기와 흡사하면서도, 공주는 마두랑의 소녀와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공주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키려 하였고, 말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또 이 이야기에서는 누에와 말의 연관성이 좀 더 확연해졌다. 누에가 뽕잎을 먹는 모습이 말이 풀을 뜯는 모습과 비슷하고, 입이 서로 닮았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고 있다.

누에는 매우 예민하다고 한다. 26도 정도의 온도와 습도를 늘 맞추어 주어야 하고, 먹다 남은 뽕잎이나 누에똥을 깔끔하게 치워 주어야 한다. 또 지네나 쉬파리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문단속을 하여야 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소홀하다면 누에를 풍요롭게 키워낼 수 없는 것이다. 늘 정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좋은 기운이 잠실에 넘치도록 해야 한다.

누에를 품었던 말을 누에의 곁에 두어, 나쁜 액들을 막아 줄 거란 소망이 전남 담양 무월리 지방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회귀>에서 보여 주는 말의 존재 이유였던 것이다.

10. 다시 선잠단을 생각한다

위에서 신화와 전설, 민담 등에 담겨진 양잠과 길쌈, 비단, 옷의 의미와 풍속 등을 집어 보았다. 옛이야기에서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일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지만

는 이 죽은 새를 집어다가 자기 속적삼에 싸서 두었다. 그랬더니 속적삼에 싸인 새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 벌레에다 먹을 것을 주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뽕잎만은 먹었다. 그런 뽕잎을 먹어서 키우는데 이것이 누에라고 한다. 그러니 누에란 총각이 죽은 혼이 된 거라 한다.”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0>, 평민사, p165~166을 정리하였다. 우렁각시 이야기와 혼합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누에는 누군가의 변신이다. 누군가 변신하지 않고는 인간을 위해 자기 몸을 다 바칠 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여기서 누에가 남자 영혼의 변신인 것은 누에를 치고, 길쌈을 하는 고된 노동 속에 지고지순한 순정파인 남성을 생각하며 노동하는 가운데 즐거운 위안을 삼으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구비문학대계> 4집 2책 p427~429에도 누에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여기서는 이루지 못한 남녀의 사랑의 결실이 누에가 된다. 누에에 관한 기원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누에는 새로운 탄생임을 함축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제 현대에 선잠단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양잠은 다른 의료작물과 달리 따로 땅을 소유하지 않아도 뽕잎만 채취할 수 있으면 3월부터 5월까지 약 40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한 뽕잎을 따고, 뽕잎을 누에에게 먹여 키우는 양잠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다른 의료작물과 달리 여성의 노동⁴⁰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고대국가부터 농사와 함께 백성들에게 권하였던 양잠은 국가경제의 주요한 한 축이었고, 그 한 축을 여성이 당당히 담당하여 왔다는 데 주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양잠 농가도 사라진 지금 우리가 선잠단을 다시 돌아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양잠, 길쌈, 바느질로 연결되는 여성의 일은 근대화 속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1918년을 전후하여 제사(製絲)가 기계공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직공의 대부분은 여자들이었다. 당시 제사공장에서는 견우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날 밤이 되면 여공들이 집단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이는 칠석날 밤 직녀성에게 절을 하면, 베틀 솜씨나 바느질 솜씨가 낫다고 믿는 풍습을 이어갔던 것이다.⁴¹

1970년대 이후로 화학섬유가 등장하고, 수공업적인 양잠과 길쌈이 사라지는 가운데 여성은 피복 노동자로 활동을 이어나가며 경제 성장의 한 축을 여전히 담당하였다. 그런 가운데 여성의 길쌈노동이 옷감별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경북 성주의 명주짜기는 중요무형문화재 87호가 되어, 조옥이(1920~2007) 님이 최초의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는 15대에 걸쳐 전승된 기능을 보유하였던 것이다. 무명은 중요무형문화재 28호로 전남 나주의 ‘셋골나이’가, 모시는 중요무형문화재 14호로 충남 한산모시가, 삼베는 중요무형문화재 32호로 전남 곡성 ‘돌실나이’가 지정되었다.

선잠단이 갖고 있던 본래적 의미에 걸맞게 여성은 계속해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또한 문화재로도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이 전통을 계승한다는 측면과 함께 선잠단이 갖는 현재적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40. 누에가 1령에서 5령으로 자라면, 뽕잎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준다. 이 시기에는 엄청난 양의 뽕잎을 먹는데, 나뭇가지채로 뽕잎을 따는 일에 남자의 노동이 필요하기도 한다.

41.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1>, 기린원, P43.

조선시대 양잠업과 여성

남 미 혜

국립하노이 외국어대 한국어학과 객원 교수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에는 남녀의 일을 ‘남경여직’(男耕女織)¹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백성들이 농업경영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그 부족한 측면을 여성 부업인 길쌈의 지속적 경영을 통해 보충하라는 의미에서였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의식(衣食)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먹고 입는 것은 인간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길쌈 즉 직물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직물은 의복의 원료인 동시에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국가에서는 재정의 근간이 되는 쌀[米]과 옷감[布]의 안정적 수취를 위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의료작물(衣料作物)의 재배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 농업정책은 일차적으로는 농업뿐만 아니라 직물업, 즉 의료작물의 재배권장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백성들의 생활은 바로 의(衣)·식(食)의 생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농업정책은 대부분 ‘권농상(勸農桑)’²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조선시대 농업정책이 ‘권농상’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농업과 함께 뽕나무, 즉 양잠업이 국

1. 남성은 농사짓고 밭갈며 여성은 길쌈을 함.

2. 농업과 양잠 권장. 길쌈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함.

가의 주요 산업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농상(農桑)’은 의식(衣食)과 왕정(王政)의 근본이며 백성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민사(民事)의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왕은 민생의 근본이 되는 농상을 적극 권장하고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시기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조금 날 뿐, 조선왕조 전 시기를 통틀어 일관된 것이었다.

직물업이 조선시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므로 국가에서는 길쌈을 적극 장려했다. 조선시대 직물의 종류로 대표적인 것은 무명·명주·삼베·모시를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 의료작물 가운데 조선 초기 국가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려 했던 산업은 바로 양잠업이었다. 양잠업에 중점을 둔 이유는 의료작물의 재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무명·삼베·모시는 그 원료인 목화·마·모시풀을 재배할 경작지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양잠업의 원료가 되는 뽕나무는 산과 들에 자생하고 있었으므로 경작지를 따로 소유하지 않고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양잠은 누에를 키워서 명주를 생산하기까지 약 40일 동안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즉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 의료작물 재배 권장정책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었던 산업이 바로 양잠업이었다.

조선시대에 길쌈은 여성의 부덕(婦德)의 하나로 여겨져서 여성이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그 기술을 익혀야만 했다. 사대부가 여성의 경우에 직접 길쌈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대부가 여성도 직접 길쌈을 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³ 이처럼 조선시대 길쌈은 여성이 수행해야만 하는 노동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왕과 왕비가 백성들에게 몸소 농사짓고 누에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친경례, 친잠례를 거행하였으며 국영잠실을 운영하였다. 국왕이 친히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이고 왕비가 양잠에 힘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에게 권장

3. 김만중의 어머니가 그 한 예이다. [정형지·김경미 역주, 어머니 정경부인 행장,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 보고사, 2006, 357쪽]

하러 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양잠업은 여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양잠정책의 내용과 양잠업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조선전기의 양잠정책

서울에는 현재 양잠과 관련되는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송파구 잠실동과 서초구 잠원동이다. 잠실동은 조선시대 국영잠실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며, 잠원동 부근에는 뽕밭이 많아서 양잠이 아주 성행했었다. 모두 양잠과 관련되어 지명이 유래된 것이다. 이처럼 양잠 즉, 누에 잠(蠶) 자와 뽕나무 상(桑) 자가 포함된 지명이 현재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많이 남아 있다. 각 지역에서 잠곡리(蠶谷里), 잠두리(蠶頭里), 잠상리(蠶桑里), 부상리(扶桑里), 농상리(農桑里) 등 지명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전국에 걸쳐서 양잠이 수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잠이 전국에 걸쳐서 성행하게 된 것은 조선전기에 추진된 양잠정책의 영향이 매우 컸다.

1) 양잠관련 예제(禮制)의 정비

전 근대사회에서 제도의 정비나 의례의 시행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양잠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조선왕조는 개국 초부터 유교식 예제를 정비하였는데, 그 가운데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가의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농업과 관련된 의례로 선농제와 친경례가 정비되고, 양잠과 관련된 의례로 선잠제(先蠶祭)⁴와 친잠례(親蠶禮)⁵가 정비되어 정기적으로 거행되었다.

4. 양잠의 시조인 중국의 황후 서릉씨에게 지내는 제사로 선잠단 터가 현재 성북구 성북동에 남아 있다.

5. 왕비가 직접 누에치는 모습을 보이는 의례로 대궐에서 거행되었다.

선잠제는 고려시대에는 섭사(攝祀)⁶ 형태로 거행되었으며, 친잠례는 거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양잠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선잠제와 함께 친잠례가 여러 차례 거행되었다. 친잠례는 성종 8년에 처음 시작되어 조선전기에 총 여섯 번 거행되었다. 성종-영조대까지 총 여덟 차례 친잠례가 거행되는데, 그 가운데 여섯 번이 조선전기에 거행된 것이다. 조선시대 여러 국가의식[祀典] 가운데 유일하게 왕비가 의식의 주체가 된 의례가 바로 친잠례였다. 친잠례는 왕비가 직접 양잠을 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양잠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였다.

2) 뽕나무 심기 장려와 잠실의 설치

조선시대에 양잠업 권장을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사안은 바로 뽕나무 심기였다. 양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뽕잎의 안정적인 공급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뽕나무 심기 권장 여부를 수령의 포폄(褒貶)과 고과(考課)의 기준으로 삼고, 관찰사와 수령을 통하여 적극적인 재식(栽植) 장려정책을 시행하였다. 상목재식령(桑木栽植令)은 태종 16년(1416년)에 잠실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식상(植桑)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지는 세조대 반포된 <양잠조건>⁷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양잠업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지도하고 관장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목적 아래 각 지역에 잠실을 설치하게 되는데, 잠실은 대궐·한양 내 여러 곳, 그리고 각 지방의 주요 도읍에 설치되었다. 대궐에 잠실을 설치한 이유는 왕비가 누에를 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반 백성들이 보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한양을 중심으로 양잠업을 보급·확대시키려는 의도 아래 연희궁·아차산·낙천정 등지에도 잠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태종 17년(1417년)에는 함경도와 평안도·강원도를 제외하고 개성·가평·청풍·의성·수안·태인 등 여섯 개 지역에 잠실이 설치되고, 이어서 세종대에 평안도와 강원도·함경도에 각각 잠실이 설치

6.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하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

7. <양잠조건>은 총 9개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뽕나무와 관련이 있는 조항은 모두 5개조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09, 58쪽 참조.

되었다.

지방 잠실이 설치된 개성·양근·가평·청풍·의성·수안·태인·홍천 등지의 농업환경은 별로 좋지 못한 곳이었다. 전라도 태인 지역만 제외하고는 모두 토지가 척박한 지역으로, 간전(墾田) 결수(結數)가 많지 않았으며 수전(水田) 비율도 상당히 낮은 지역이었다. 반면에 호당 평균인구수와 1결당 농업 인구수는 높아 농업에만 의지해서는 민생의 안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었다. 즉 지방의 도회잠실은 농업 외의 다양한 산업에 종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에 증점적으로 설치되었다.

지방 잠실은 세종대에 이르러 전국에 하나씩 설치되었으며, 단종 때에는 각 읍단위로 설치가 확대되었다. 세조대에 이르러서도 읍단위의 잠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잠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읍단위의 잠실 설치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잠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 뽕잎이 부족하게 되자 민가(民家)의 뽕잎을 따서 민폐를 끼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잠실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잠실의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곧이어 세종조의 예에 따라서 잠실의 숫자를 대폭 줄여서 각 도에 한 군데씩 두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성종대 이후로는 각 도에 한 개씩 잠실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후 구황(救荒)정책의 일환으로 각 도의 잠실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였으며, 성종 16년(1485년)에 잠실은 잠정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잠실은 연산군대에 재설치 되었다가 폐지된 뒤 중종대에 이르러 다시 복설(復設)되었다. 이처럼 성종대 이후로는 잠실의 운영은 점차 부실해지며 양잠 보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3) 양잠서적의 발간

조선전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양잠서적[蠶書]이 활발히 편찬되었다. 태종14년(1414년)에는 『농상집요(農桑輯要)』⁸ 전체를 이두로 번

8. 元 세조의 명을 받아 司農司에서 『제민요술』 등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농서를 두루 참고하여 정리한 농서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농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농사직설』이나

역하여 간행하는 작업이 시도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독립된 양잠서적의 편찬도 이루어졌다. 독립된 양잠서적의 편찬은 태종 15년(1415년) 한상덕(韓尙德)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상덕은 『농상집요』의 양잠 부분만 발췌해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를 간행하였다. 한상덕이 편찬한 『양잠경험촬요』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잠서로, 양잠의 기술 보급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조대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차례 잠서 번역본이 간행되었다. 세조는 최항(崔恒)과 한계희(韓繼禧) 등 문신 30여 명에게 언문으로 양잠서적을 번역하라고 명하였다. 세조대 『언해잠서』는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한글로 번역을 명하였다는 사실은 양잠의 생산주체가 여성임을 의식하고 여성의 독려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북방지역으로 양잠업 보급

조선전기에는 북방지역으로 양잠업을 보급시키려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북방지역으로의 양잠업 보급은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15세기 평안도·함경도 일대에 양잠업을 하는 농가의 수가 늘어났다. 세조 12년(1466년) 평안도 영변 등 13개 읍에서는 누에고치[熟繭]와 명주실[眞絲]을 공물로 바쳤으며⁹ 평안도 지역의 노비 신공(身貢)¹⁰을 명주로 납부하기도 하였다.

함경도 지역에 대한 양잠정책은 평안도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세종 21년(1439년)에는 신설된 회령·경원·종성·경흥·부거 등 다섯 읍에 향잠종(鄉蠶種)¹¹을 보냈으며, 또 뽕나무를 심게 해 양잠을 생업으로 삼도록 지시하였다.¹² 또한 『농잠서(農蠶書)』를 함경도 지역으로 보내어¹³ 체계적으로 양잠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농가집성』 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9. 『세조실록』권39, 세조 12년 5월 24일(갑오).

10. 노비가 주인에게 매년 지불해야하는 몸값.

11. 재래종 누에씨.

12. 『세종실록』권84, 세종 21년 1월 13일(임진).

13. 『세종실록』권84, 세종 21년 3월 9일(정사).

조선후기에 평안도 지역이 양잠업의 주산지로 성장하고 함경도에도 양잠 농가가 증가했던 것은 이 시기 정책의 추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조선후기의 양잠정책

조선전기에 활발히 추진되던 양잠정책은 양란 이후 거의 시행이 되지 못하였다. 양란으로 인해 전국이 폐쇄되자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각 부문에서 다각도로 전개되었지만, 광해군-현종 대에는 특별한 농상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숙종대에는 윤희를 비롯한 남인(南人)측에 의해서 뽕나무를 심게 하는 법령[桑木栽植事木]이 제정되었지만, 이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조선후기에 양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왕은 영조였다. 영조는 양잠정책 시행에 있어 상징이 되는 중요한 행사인 친잠례를 거행하게 하고, 각 도 수령들을 통하여 뽕나무 심기[植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영조대의 양잠정책은 조선전기와 같이 국영잠실의 설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궁궐에서 직접 모범을 보여 백성들이 보고 따르게 하고, 양잠의 원료인 뽕나무를 많이 심게 하는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즉 관청 주도의 강제적인 정책의 시행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영조대의 뽕나무 심기[植桑] 정책은 당시 조정에서 ‘상정(桑政)’이란 용어로 표현되고 있었는데, 이는 영조대 정치영역에서 양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국가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치고, 또 반대로 국가의 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주된 동인(動因)이 되기도 한다. 이는 양잠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조선시대 양잠업은 조선전기 잠실의 운영과 양잠정책으로 인해 16세기 향촌에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이후로 들어서면 강력히 추진되던 ‘권농상(勸農桑)’ 정책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 이는 16세기 이후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 장시의 확대, 부유한 상인층의 등장, 도시의 성장

과 구매력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이 양잠업을 부업의 수준이 아닌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의 한 영역으로 성장시키고 있었다.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민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재배작물을 선택하게 유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잠업이 점차 농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조선후기 양잠업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3. 양잠업과 여성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도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활동영역이 가정 내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여성들은 산업의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 제 분야에서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양잠관련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잠실의 양잠 기술자 잠모(蠶母)

조선초기부터 대궐 내에 잠실이 설치되고 도성 주위와 각 도에 많은 수의 잠실이 운영되자 잠실에서는 전문적인 양잠기술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양잠이 여성과 관련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국영잠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수는 많았다.

국영잠실의 노동인력은 잠실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략 40여명 정도이며, 그 중 20명이 여성이었다. 잠모(蠶母)¹⁴ 10명, 종비(從婢)¹⁵ 10명, 그리고 男奴(남노) 20명¹⁶이 잠실의 주요 노동인력이었다. 조선시대 잠모는 국영잠실에 파

14_ 국영잠실에서 양잠을 담당하던 여성을 말한다. 관청의 노비들 가운데 양잠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였다.

15_ 잠모를 도와 뽕잎을 손질하는 등 허드렛일을 맡아하던 여성 노비이다.

16_ 잠실에서 남성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뽕나무가 커서 나무에 올라가 뽕잎을 따야 하는 경우도 있

전되었던 전문적인 기술직 여성으로 공노비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잠모는 잠실에서 양잠을 하여 명주실을 생산하는 업무, 왕비의 친잠례시 의례 보조자로서의 역할, 일 반농가에 대한 양잠 기술 전수 등 세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잠모는 의녀(醫女)처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한 기술직은 아니었다. 궁녀(宮女)처럼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잠모는 궁녀나 의녀와는 달리 비교적 나이 많은 여성들로 선발되었는데, 이는 잠모의 선발기준이 양잠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모를 선발한 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¹⁷

잠모는 양잠철에만 잠시 잠실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양잠이 끝나면 다시 본인이 소속된 관청으로 돌아가야 하는 노비신분이었기에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지 못했다. 잠모에게 월급을 주자는 논의가 한 때 있기도 했지만¹⁸ 이들에게 따로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고, 양잠의 성과에 따라서 옷감이나 식품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았다.

조선시대 잠모직은 당시 여성들이 하고 싶어하는 선호도 높은 직종이었던 듯하다. 딸을 잠모로 뽑아달라고 뇌물을 주어 문제가 된 청탁사건¹⁹을 통해 조선시대 잠모가 인기있는 직종중의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잠모는 여성의 활동이 제한된 전통시대에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활발히 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선시대 잠모의 존재는 여성이 가정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요 산업인 양잠의 생산과정에까지 깊숙이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잠모는 조선시대 양잠 분야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 여성 기술자들이었다. 16세기 이후 잠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잠모직도 폐지되어 우

고, 때로는 멀리 나가서 뽕잎을 따서 수레에 싣고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누에를 치는 양이 많을 때는 매일 많은 양의 뽕잎이 필요했기 때문에 뽕잎을 따오는 일은 양잠 노동 중 힘든 일의 하나였다.

17.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09, 242쪽.

18. 『태종실록』권31, 태종 16년 4월 1일(계해).

19. 『성종실록』권222, 성종 19년 11월 8일(정묘).

리역사에서 그 존재가 잊혀 졌지만, 국가로부터 양잠 실무능력을 인정받은 전문 기술직 여성들이었다. 우리는 조선시대 잠모의 존재를 통하여 여성들이 산업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양잠을 통해 재물을 모은 여성 재력가

16세기 이후 조선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길쌈과 바느질이 여공(女工)의 으뜸으로 간주되었고, 여성들은 샅바느질과 길쌈을 통해 가정경제를 책임지기도 하였다. 선조의 후궁이었던 정빈(靜嬪) 민씨(閔氏)는 생전에 “여공에 뜻을 두어 명주실과 고치를 손질하고 옷감을 짜는데 힘쓰는 것이 가난한 집 여자와 같았다”²⁰고 하고, 김만중의 어머니는 거질의 서적을 사고 싶어 하는 아들을 위해 짜던 베틀의 명주베를 잘라서 책값으로 지불했다고 한다.²¹ 이렇듯 길쌈은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여성의 부덕으로서, 그리고 가정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었다.

그러면 여성이 양잠과 길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길쌈을 부지런히 할 경우에는 재물을 축적하여 별장을 살 수도 있었고²² 양잠을 하여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었으며²³ 최소한 사대부의 일상생활 중 하나인 접빈객의 예를 다할 수 있었다²⁴고 한다. 19세기 경상도 선산의 사대부 노상추는 양잠을 하여 명주실[繭絲] 3근을 생산하게 되자, 1근은 명주로 짜고, 나머지 2

20_ 조혜란·이경하 역주, 진조모 정빈 민씨의 행장,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3, 보고사, 2006, 62쪽.

21_ 정형지·김경미 역주, 어머니 정경부인 행장,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 보고사, 2006, 357쪽.

22_ 의인 정씨는 여공을 부지런히 하여 많은 재물을 비축해서 별장을 짓고 楊川江 어구에 漁船을 마련해 두어 남편[具思騫]이 그곳에서 학문을 닦게 하였다고 한다.[申欽, 『象村集』권24, 宜人鄭氏墓誌銘]

23_ 17세기 사대부가의 규범 및 생활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庭訓』에서 李惟泰(1607~1684)는 사대부가에서 양잠을 필수적으로 경영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양잠을 통해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李惟泰, 『庭訓』 種桑 [이해준 편저, 『草廬 李惟泰의 鄉約과 庭訓』, 신서원, 1998]

24_ 李明老의 부인 한씨는 베를 짜서 남은 것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한다.[정형지·김경미 역주, 숙부인 한씨 묘지명병서,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 보고사, 2006, 128쪽]

근은 13냥을 받고 팔았음을 기록하고 있다.²⁵ 그리고 그 돈으로 유기 반상기 1개를 구입하고 “여자들의 수공이 매우 좋다”고 칭찬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양잠과 길쌈을 통해 가산(家産)을 늘려갈 수 있었다.

양잠업을 통해 가정경제를 윤택하게 할 수 있었으나 조선후기 모든 여성들이 양잠업에 종사했던 것은 아니었다. “양잠이 고역이라 이제 부녀자들이 하지 않는다” “지금 여성들은 방적을 하지 않아 잠실에서 뽕잎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조정에서 거론되고 있었다.²⁶ 또 당시 부녀자들이 편안한 것만을 좋아하여 양잠하는 것을 싫어하고 밤에 잠자는데 방해가 된다하여 근래 양잠하는 집이 거의 없다²⁷는 지적도 보인다.

주지하듯이 누에는 기온이나 습도에 매우 민감하여 기상변화에 세심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쥐로 인한 피해²⁸를 막기 위해 늘 신경을 써야 했다. 따라서 양잠기간 중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에를 세심하게 보살펴야 했으므로 양잠 농가의 부녀자들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게다가 일부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양잠이 어진 사람이 차마 하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따라서 대부분의 사대부가 여성들은 가족의 의복조달과 약간의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양잠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 양잠업이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는 산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양잠업 경영에 나선 여성도 있었다. 조선후기에 여성들은 상업이나 산업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해 나갔는데³⁰, 평안도 성천지방 목씨의 아내 전

25_ 盧尙樞, 『盧尙樞日記』4, 戊子(순조 28년), 7월 3일[『盧尙樞日記』,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5]

26_ 『승정원일기』제1127책, 영조 32년 1월 16일(갑신).

27_ 『승정원일기』제1081책, 영조 28년 4월 13일(갑진).

28_ 실제로 조선시대 양잠 농가에서는 쥐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았다. 누에고치를 쥐가 다 쏟아놓아 수확이 많지 않다는 16세기 사대부 오희문의 한탄이 이를 잘 보여준다.[『쇄미록』권6, 1598년 무술 5월 18일]

29_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누에치기가 어진사람이 할 바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실을 켤 때 뜨거운 물속에 고치를 넣으면 물속에서 급히 움직여 서로 구르니, 이것은 대개 누에가 그 속에서 오히려 살고자 하는 뜻이 있어 그 끓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어찌 어진 사람이 차마할 바이랴. 그러나 또한 그만두지 못할 것이니, 이따금 적게 쳐서 늙은 분의 옷을 지음이 좋다.”라는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규합총서』권2, 양잠조 [정양완 역주, 보진재, 1975, 176쪽]

주이씨가 그 대표적인 여성의 하나이다.

이씨는 관기(官妓)와 양반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분이 미천한 서녀였지만, 해좌(海左) 정범조(丁範祖, 1723-1801)³¹에 의해 <목씨부전(睦氏婦傳)>으로 기록되어 그녀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씨는 평안도 성천의 목씨에게 출가한 후 양잠을 경영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다. 그녀는 생활이 넉넉해지자 사람을 시켜 적실 자손들을 수소문해 찾아내어 전답을 마련해 주고 생활을 보살피 주었다. 가문이 몰락해서 아주 궁핍하게 살고 있었던 적실 자손들은 그녀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조상의 제사를 받들 수 있었으며, 가문을 보존할 수 있었다.³²

이처럼 조선시대 양잠은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여성들은 양잠과 길쌈을 통하여 가정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어나가고 있었다.

〈참고문헌〉

1. 사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규합총서(閨閣叢書)』

『정훈(庭訓)』

『상촌집(象村集)』

30_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많은 재부를 축적한 대표적 여성은 김만덕을 들 수 있다. 김만덕에 대한 연구는 김은석 외,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 보고서』, 김만덕기념사업회, 2004 ;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저, 『조선의 여성들-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192-208쪽 참조.

31_ 영·정조 시대의 대표적인 남인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문집으로 『海左集』이 남아 있다.

32_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09, 254-277쪽 참조.

『쇄미록(瑣尾錄)』

『해좌집(海左集)』

2. 논문 및 저서

김문협, 『잠학개요』, 부민문화사, 1975.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09.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정형지·김경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 보고사, 2006.

조혜란·이경하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3, 보고사, 2006.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박경룡, 「조선전기의 잠업 연구」, 『국사관논총』 12, 1990.

이 욱, 「조선시대 親耕禮의 변천과 그 의미」, 『종교연구』34, 2004.

이의명, 「15·16세기 양잠정책과 그 성과」, 『한국사론』 24, 1991.

한춘순, 「조선초기 잠상정책에 대한 고찰; 15세기의 잠실경영을 중심으로」, 『경희사학』 19, 1995.

한형주, 「조선초기 중사제례의 정비와 그 운영」, 『진단학보』 89, 2000.

친잠례와 선잠제 의례와 의의

임 혜 련
숙명여대 강사

성북구 성북동에는 ‘선잠단지(先蠶壇止)’라는 사적지가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양잠의 신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던 선잠단이 있던 곳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의식주이다. 선잠단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의생활의 바탕이 되는 양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식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하였다. 국가를 통치하는 국왕과 여성을 대표하는 왕비는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손수 농사를 짓고, 뽕잎을 따는 의례를 시행하였다. 왕비가 뽕잎을 따는 의례가 바로 친잠례이다. 친잠례를 하기 전 역시 선잠제를 지냈다. 이러한 의식들은 조선이 유교국가로 발전하는 가운데 의례가 완성되어 시행되었다. 지금은 낯설지만 선잠제와 친잠례를 통해 백성을 위한 지배층의 노력이 어떻게 의례화 되어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I. 선잠단과 선잠제

1. 동방예의지국의 제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불릴 만큼 예를 중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교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정착되면서 예의 의식과 절차도

정리되었다. 유교의 의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되어 ‘오례(五禮)’라고 한다. 제례(祭禮) 의식은 이중 길례(吉禮)라 하며, 오례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유교의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례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행하는 제사는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기능을 한 삼국시대 이래 중요한 의례였다.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에 유교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는 있었으나, 유교를 관료제 운영 및 정치사상으로 받아들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제례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각 왕조에서는 제사의 대상을 체계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선례(先例)와 규정이 참고가 되었다. 제사의 체계화 과정에서 선잠제는 대체로 국가의 제사 중 중간 규모의 제사인 중사(中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나라(唐)의 제사제도를 수용하였던 신라에서는 선잠제(先蠶祭)가 국가의 제사로 편입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당나라에서는 선잠에서 제사가 중사에 해당했던 것과 차이를 지닌다.¹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아니지만 신라에서는 누에치기를 강조하였다. 고려는 국가의 제사를 정사(正祀)와 잡사(雜祀)로 정리하였는데, 정사는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다시 구분하였다. 선잠제는 적전(籍田), 문선왕묘(文宣王廟)의 제사와 함께 중사로 편제되었다.² 고려의 선잠제는 송나라(宋)의 제도를 주로 수용하여 정비되었다.³

성리학자인 신진사대부들이 건국한 조선은 유교적 통치이념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예제(禮制) 정비를 통한 국가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게 되면서 길례(吉禮)의 다양한 제사들이 정비되었다. 조선의 길례는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중·소사로 등급이 매겨졌으며, 그 대상은 천신(天神)·지기(地祇)·인귀(人鬼) 즉 천지인에 대한 제사로 구분되었다. 제후국이었던 조선은 하늘에 대한 대사인 원구제(圓丘祭)는 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가의 제례 중 가장 중요하면서 규모가 컸던 것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지내는 사직제(社稷祭)와 역대 왕들에게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사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의례였다. 한편

1. 『唐令拾遺』“季春吉巳 享先蠶於西郊.”(최광식, 『新羅와 唐의 大祀·中祀·小祀 비교연구』 『한국사연구』95, 1996, 12쪽, 주) 42 재인용)

2. 『高麗史』卷 62, 志 16, 禮 4, “吉禮 中祀”, ‘先蠶’

3. 金海榮, 『《詳定古今禮》와 高麗朝의 祀典』 『국사관논총』55, 1994, 98쪽.

선잠제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사(中祀)로 정리되었으며, 선농(先農)에서의 제사와 함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을 상징하는 의례로 정착하였다.



<그림 1>
『국조오례의』 「길례」 ‘향선잠의’.
선잠제를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다.

<표 1> 조선시대 길례 항목⁴

규 모	대 상		
	천(天)	지(地)	인(人)
대사(大祀)		사직(社稷)	종묘(宗廟)
중사(中祀)	풍운뢰우(風雲雷雨) 우사(雩祀)	악해독(嶽海瀆)	선농(先農), 선잠(先蠶), 문선왕(文宣王), 역대시조(歷代始祖)
소사(小祀)	성(靈星), 노인성(老人星), 마조(馬祖), 사한(司寒), 마사(馬社), 마보(馬步)	명산대천(名山大川), 영제(榮祭), 칠사(七祀)	선목(先牧), 마제(禡祭), 포제(酺祭), 독제(蠶祭), 여제(厲祭)

2. 양잠의 신 서릉씨에게 제사지내는 선잠제

선잠제(先蠶祭)는 그 대상이 사람 즉 인귀(人鬼)이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가? 선잠이란 잠신(蠶神) 서릉씨(西陵氏)를 말한다.⁵ 서릉씨는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다섯명의 황제, 즉 오제(五帝)중 한명인 황제(黃帝) 현원(軒轅)씨의 부인

4. 『國朝五禮儀』卷1·卷2, 「吉禮」 참고.
5. 『國朝五禮儀』卷2, 「吉禮」, “享先蠶儀”

이다. 황제는 창과 방패를 발명해내고 작전술과 용병술을 가르쳐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또한 나침반의 일종인 지남거(指南車)를 만들고, 통나무를 잘라 배로 이용하는 수상교통을 일으켰으며, 십간 십이지(十干十二支)를 제정하고 역법(曆法)을 만들었다. 여기에 농사를 장려하고 백성들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서 한족(漢族)의 전신인 화하족(華夏族)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황제는 서릉족(西陵族)의 누조(嫫祖)와 혼인을 하였다. 누조는 황제의 정실 부인으로 두 아들을 낳았고, 이들도 모두 천하를 얻었다. 누조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처음으로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다.⁶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농상(農桑)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선잠제이다.



<그림 2>

서릉씨의 남편 황제(黃帝)

조선시대 선농과 선잠에서의 제사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상의 원만한 운영을 기원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념화한 것이다.⁷ 즉 선잠제는 국가 차원에서 의생활의 기본이 되는 양잠을 권장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려는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의례 정비 과정에서 중사로 편제되어 국가의 주도하에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3. 동교 사한이에 선잠단이 있었다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을 선잠단(先蠶壇)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도성의 북쪽인 북교(北郊)에 단을 쌓기도 했고, 동쪽인 동교(東郊)에 선잠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주나라(周)에서는 선잠단이 북교에 있었다. 이는 북쪽이

6. 『史記』卷1, 『五帝本紀』

7. 韓亨周, 『朝鮮初期 中祀祭禮의 정비와 그 운영-民生과 관련된 致祭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9, 2000, 91쪽.

‘순음(純陰)’이었기 때문에 정한 것이다.⁸ 여기에서 ‘순음’의 의미는 두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생사(生絲)를 뜻하는 것으로 선잠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인 서릉씨가 양잠을 처음으로 했던 것과 연관된다. 즉 누에치기를 통해 뽑아내는 실이 생사였기 때문에 이를 뜻하는 ‘순(純)’은 북쪽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서릉씨가 여성이므로 음양설(陰陽說)에 따라 순수한 음(陰)의 방향인 북쪽에 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의미도 된다. 선잠단이 동교에 설치된 것은 한나라(漢) 부터였다. 이는 뽕나무가 봄에 자라기 때문에 만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더하여 동쪽에 단을 설치하였던 것이다.⁹ 송나라에서도 이러한 한나라의 선례를 따라 뽕나무가 잘 자라라는 의미로 동교에 선잠단을 설치하였다.¹⁰



<그림 3> 성북동에 위치한 선잠단지.
조선시대에 선잠제를 지내던 곳이다.

8. 『宋史』卷 102, 『志』55, 『禮』5. “周禮 蠶於北郊, 以純陰也.”

9. 『宋史』卷 102, 『志』55, 『禮』5. “漢蠶於東郊 以春桑生也.”

10. 『宋史』卷 102, 『志』55, 『禮』5. “請約附故事, 築壇東郊, 從桑生之義.”

고려시대에는 선잠단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선잠단의 위치가 전해지고 있지 않다. 조선이 건국된 후 정종(定宗) 2년에 선잠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종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환도했었고, 한양으로 다시 환도한 것은 태종 5년의 일이었으므로, 정종 2년의 선잠제는 개경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 태종(太宗) 이후 국가 제도가 정비되고, 세종(世宗)이 즉위한 후 의례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선잠단은 이때 위치가 정리되었다.

선잠단이 한양에 처음으로 어디에 설치되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태종 13년의 사전(祀典)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 축조되어 있긴 하지만 법식에 맞지 않으므로 땅을 보고 축조할 것을 예조(禮曹)에서 건의하여¹¹ 선잠단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선잠단은 새로 축조되지 못하였다. 세종 12년에 박연(朴堧)은 선잠단의 구조가 허술하고, 지면의 형세가 기울어지고 높낮이가 고르지 않으며, 토질이 척박하여 뽕나무를 심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선농단(先農壇)과 우사단(雩祀壇) 곁에 가까이 새롭게 터를 정하여 축조할 것을 건의하였다.¹² 그러나 박연의 이 건의는 바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박연은 선잠단 주위에 난간으로 보호하는 것이 없어 소·돼지 등 가축들이 드나들어 더러워졌으므로 개정하는 공사를 시작하자는 상소를 다시 올리게 되었다.¹³ 그렇지만 박연의 의견은 왕의 하교를 받았음에도 시행되지 못하였다.

성종(成宗) 4년, 앞서 세종대의 박연의 의견을 따라 선잠단의 위치를 우사단과 선농단의 곁으로 옮겨 마련하도록 하였다.¹⁴ 그러나 이듬해 예조에서는 중국의 역대 제도를 참고하여 여러 단의 제도를 건의하였다. 이때 “수나라(隋)의 제도에 선잠단이 궁궐 북쪽 3리에 있다 하였고, 우리나라는 도성 북쪽에 단을 두었으니 옛 제도에 합합니다. 예전대로 수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¹⁵ 성종 8년의 친잠례를 위해 마련된 ‘친잠절목(親蠶節目)’에는 선잠단이 북교(北郊)에 있고, 뽕잎을 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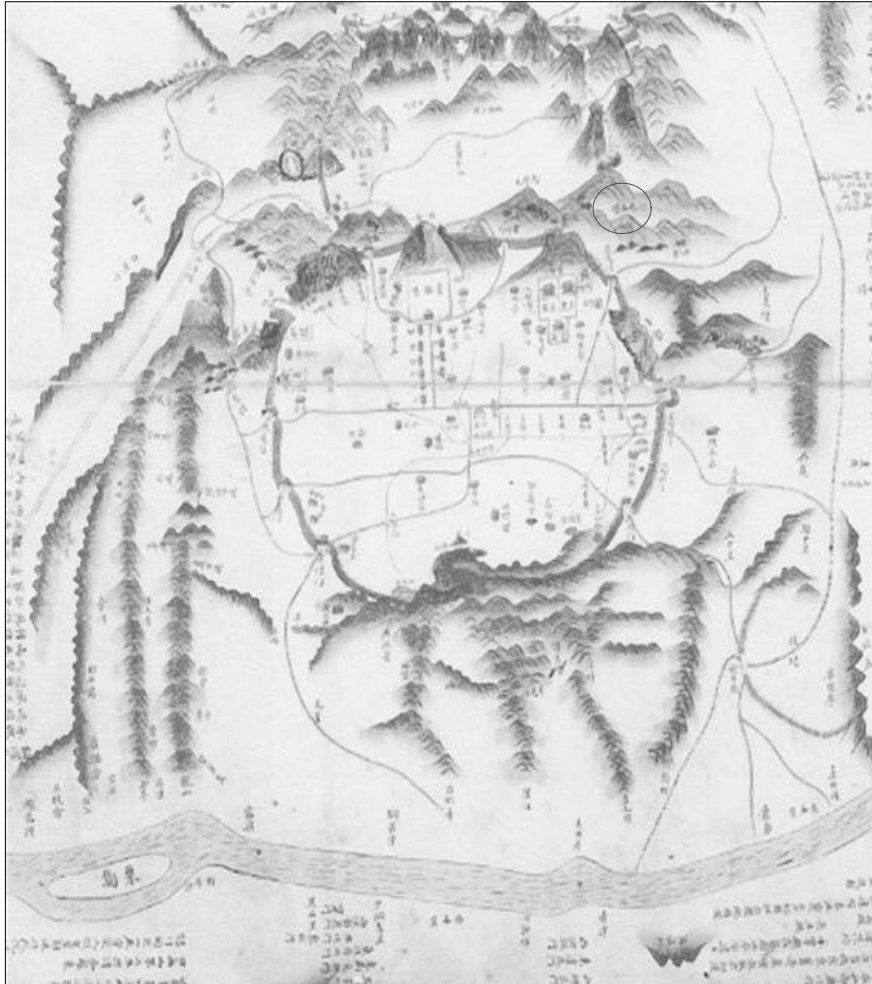
11. 『太宗實錄』卷25, 太宗 13年 6月 8日 乙卯.

12. 『世宗實錄』卷47, 世宗 12年 1月 19日 庚寅.

13. 『世宗實錄』卷83, 世宗 20年 11月 30日 癸巳.

14. 『成宗實錄』卷35, 成宗 4年 10月 25日 癸未.

15. 『成宗實錄』卷40, 成宗 5年 3月 28日 癸丑.



<그림 4> 조선 영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동지도’(보물 제 1591호).
○안의 선잠단은 창덕궁 북쪽, 혜화문 밖, 지금의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소에 설치되는 채상단은 후원에 있다고 하였다.¹⁶ 이로 인해 그간 선잠단의 위치가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선잠단은 처음 만들어진 곳에서 근처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위치가 옮겨진 것은 아니다. 이미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는 선

16. 『成宗實錄』卷71, 成宗 7年 9月 25日 乙丑.

잠단이 동소문 밖 사한이(沙閑伊), 즉 지금의 성북동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대 선잠단을 선농단 근처로 옮기자고 했지만 성종대까지 시행되지 못했으며, 성종이 허락하긴 하였지만 도성 북쪽에 단을 두었다는 것을 보면 결국엔 위치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서적들은 모두 선잠단의 위치를 동교(東郊)라 하였다. 숙종대 이공익이 저술한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는 “선잠단은 동교-동소문 밖-에 있으며, 서릉씨를 향사하였는데, 음력 3월 첫 사일에 향사한다.”라고 하였다.¹⁷ 또한 영조대 편찬한 『문헌비고(文獻備考)』를 증보하여 고종대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도 선잠단은 동교에 있다고 하였다.¹⁸ 성종대 북교라 한 것은 창덕궁의 바로 북쪽에 선잠단이 있었기 때문에 북교라 인식한 것이다. 조선후기의 기록을 보면 선잠단은 동소문 밖에 있는데 그 위치가 북쪽에 가까우므로 북방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동교에 있다는 기록들도 결국은 같은 곳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⁹ 즉 선잠단은 지금의 성북동에 있었으며, 이를 동교에 위치한다고 하였지만, 성종대에는 창덕궁의 정북쪽에 위치하였으므로 북교라 지칭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선잠단의 위치는 영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해동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선잠단의 규모는 고려시대와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제후국이었던 만큼 중국의 규모보다 작게 만들어 졌다. 중국 송나라의 선잠단의 규모는 사방 2장, 높이 5척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에서는 사방 2장(丈), 높이가 5척(尺)이며 사면에 층계가 있는 구조였다.²⁰ 즉 송나라와 고려의 선잠단과 규모가 같았다.

그러나 조선의 선잠단은 논의를 거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寸), 사방에 계단이 있으며, 양쪽에 유(塿)가 있고, 이 유는 25보(步)로 결정되었다.²¹ 이를 현재의

17_ 『練藜室記述』別集 卷4, 「祀典典故」, ‘諸壇’

18_ 『增補文獻備考』권62, 「禮考」9, ‘祭壇’2-先蠶.

19_ 『瓶窩先生文集』卷17, 「牒」, ‘稟目’, “先蠶壇之在於東小門外, 是如謂之近北而位於北方 則勝覽所謂先蠶壇在東郊云者 似與題音相左 先蠶位.”

20_ 『高麗史』 卷 62, 志 16, 禮 4, “吉禮 中祀”, ‘先蠶’

21_ 『國朝五禮儀序例』卷1, 「吉禮」, ‘壇廟圖說’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선잠단은 가로 세로 각각 약 7m의 네모난 단이며, 높이는 81cm이고, 유는 45m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조선의 선잠단은 송나라, 고려와 비교했을 때 단의 크기는 약간 크고, 높이는 낮게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에 국가 제사 중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컸던 사직단의 크기는 사방이 2장 5척, 높이 3척, 유 25보였다. 사직제는 대사(大祀)였던 만큼 중사인 선잠제보다 규모가 컸다. 그러므로 선잠단은 사직단의 크기보다 작게 만들어 졌다. 또한 송나라의 단 보다는 크기는 약간 크지만, 높이에서 큰 차이는 보이는 만큼 제후국으로서 격을 낮추어 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선잠단은 이렇듯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선잠단의 단 바깥쪽에는 다시 낮은 담인 유를 쌓았다. 선잠단의 담은 소나 양과 같이 가축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의 흙을 망가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유는 담 안쪽에, 제단 주위에 쌓은 낮은 담이다. 이것은 제례를 행할 때 성계와 속계를 나누어주는 관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예를 행할 때 장소가 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례에서 역할



<그림 5> 사직단의 담장과 유(壘).

담장 안쪽에 단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담이 유(壘)이다. 선잠단의 유는 사직단처럼 사방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단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출처: 문화재청 사이트)

에 따라 유의 밖과 안에 자리를 마련하여 좀 더 예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현실적인 기능도 하였다.

4. 3월에 선잠단에서 제사를 지내다

선잠제를 지내는 시기는 봄에 뽕잎이 피어났을 때 시행하였다. 기후에 따라 뽕잎이 피는 시기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음력 3월을 넘기지 않았다. 제사는 대개 왕이 신하를 선잠단에 보내어 지내게 하는 섭사(攝祀)로 진행되었다. 선잠제를 지내게 되면 5일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 후 선잠단에 제수를 준비하고 예를 행했다.

선잠제는 “계춘(季春)의 길일(吉日)인 사일(巳日)에 지낸다.” 라고 『국조오례의』에 규정하였다.²² 이것은 음력 3월의 길한 ‘뱀날’에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다. 길한 뱀날은 주로 상사(上巳)일로 그 달의 첫 번째 사일로 인식하였다.²³ 음력 3월은 뽕잎이 나기 시작하는 달이라서 잠월(蠶月)이라고도 한다. 선잠제의 시기는 중국·고려·조선에서 모두 같다. 선잠제를 거행할 것이 결정되면 관상감(觀象監)에서는 3개월전에 날을 정해서 예조에 알리고, 이후 예조는 의례를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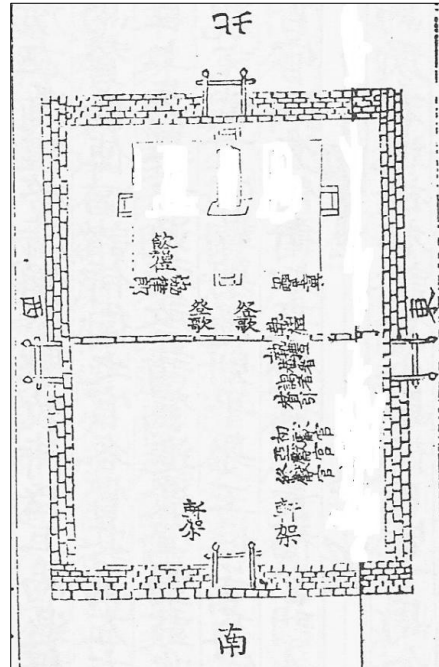
『국조오례의』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선잠제를 앞두고 날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해마다 날씨에 차이가 있어서 음력 3월 상사일에 뽕나무잎이 피지 않고 누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친잠례를 시행할 경우는 뽕잎이 피어야 뽕잎을 따는 의례를 시행할 수 있고, 선잠제를 치르는 의미가 있으므로 다소 시기가 늦춰지기도 하였다. 성종 8년에는 친잠례를 치르면서 이에 앞서 시행하는 선잠제의 날짜를 상사일인 3월 2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뽕잎이 피지 않는다 하여 결국 3월 14일에 시행하였다.

선잠제는 누가 지내는 것일까? 선잠제의 주제자(主祭者)는 국왕이다. 이는 선잠제의 축판에 ‘고려국왕왕모(高麗國王王某)’, ‘조선국왕성휘 운운(朝鮮國王姓諱 云

22. 『國朝五禮儀序例』卷1, 「吉禮」, 「時日」

23. 사일(巳日)은 12지지 중 6번째인 ‘사(巳)’가 들어있는 날을 말한다. 60갑자 중 사일로는 기사일(己巳), 신사일(辛巳), 계사일(癸巳), 을사일(乙巳), 정사일(丁巳)이 있다.

云)’라고 하였던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국왕이 친히 선잠단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관원을 보내어 대신 지내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섭사(攝祀)라고 한다. 섭사로 진행되는 선잠제에서 처음으로 술을 따라 올리는 초헌관(初獻官)은 정1품 관원 즉 삼정승 중 한명이 담당하였다. 두 번째 잔에 술을 따라 올리는 아헌관(亞獻官)은 정3품 당상관이 담당하였으며, 마지막 잔은 정3품 당하관이 종헌관이 되어 올렸다.²⁴ 제사는 관원이 지내지만 주제자는 국왕이므로 제사 하루 전에 초헌관(初獻官)을 불러 축판과 향을 직접 전하였다. 왕비가 친잠을 하는 경우에도 조선에서는 선잠제는 관원을 선잠단에 보내 대신 지내도록 하였다.



<그림 6> 선잠단의 구조
『국조오례의』

선잠제는 크게 제사를 위한 준비과정과 당일에 행하는 행례(行禮)로 이루어진다. 먼저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틀전에 선잠단 주변을 청소하고, 하루 전에는 제사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제사를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제사의 대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즉 선잠제의 신위(神位)를 선잠단 위 북편에 왕골자리를 깔고 남향으로 놓았다. 신위는 국가의 제사를 담당하던 관청인 봉상시(奉常寺)의 창고에서 선농의 신주와 함께 보관하였던 것이다.²⁵ 신위는 제사의 대상인 서릉씨이다. 고려에서는 ‘선잠서릉씨(先蠶西陵氏)’로, 조선은 ‘서릉씨지신(西陵氏之神)’으로 신위를 만들었다.

제향을 위한 두 번째 준비는 행례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였다. 우선 선잠례에 참여하는 초헌관 이하의 헌관의 위치를 단 아래에 마련하였다. 여기에 음악을 담당하

24. 『國朝五禮儀序例』卷1, 「吉禮」, 「齋官」

25. 『太宗實錄』卷27, 太宗 14年 5月 18日 庚寅. 봉상시는 태종 9년부터 세종 3년까지는 전사시(典祀寺)라 하였다.

는 악공들의 자리를 선잠단 아래 유의 안쪽과 바깥쪽에 마련하였다. 또한 행례 절차에 필요한 위치를 정하였는데, 제향을 마친 후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을 위한 장소를 단 위 남서쪽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축문을 태워 묻는 예감(瘞坎)을 단의 남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²⁶

선잠제의 준비는 제사 당일에도 계속된다. 당일에는 축판과 폐백(幣帛)을 신위 옆에 준비하고, 제향에 차려지는 음식과 희생(犧牲)을 준비한다. 희생은 제사에 올려지는 짐승을 뜻하는데, 고려시대 선잠제에서는 돼지를 썼지만 조선에서는 소뇌(小牢)라 하여 돼지와 양을 각각 1마리씩 올렸다.²⁷ 이러한 준비는 선잠제를 시작하는 축시(丑時:새벽 1시-3시) 전에 마무리되어야 했으므로 매우 이른 시간에 진행된 셈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드디어 선잠제가 치러진다. 선잠제는 대개 유교식 제사와 큰 차이는 없다. 향을 피워 신위로 서릉씨의 혼을 맞이한 다음 헌관이 초헌, 아헌, 종헌의 순서로 술을 올리고, 음복을 하고, 제기(祭器)를 옮겨 물리고 혼을 보낸 후에 축문을 태우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로서 선잠제는 끝나게 된다. 비록 국왕이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중사의 규모에 맞추어 서릉씨에게 향사함으로써 잠신(蠶神)에 대한 예를 다하고, 한해 양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II. 조선시대 친잠례 시행

1. 친잠례는 무엇인가

친잠례(親蠶禮)는 왕비가 중심이 되어 직접 뽕잎을 따고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고, 성충이 된 누에에서 고치를 거두던 일련의 의식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친잠은 왕이 직접 농사짓기를 시범보이는 친경례(親耕禮)와 더불어 중요한 국가 의례였다.

왕실 여성들에게 친잠을 하도록 한 이유는 양잠은 농상(農桑)의 근본인 만큼 여

26. 『國朝五禮儀』卷2, 「吉禮」, 「享先蠶儀」

27. 『國朝五禮儀序例』卷1, 「吉禮」, 「省牲器」, 「饌室樽壘圖說」

성을 대표하는 왕비가 친히 시범을 보여서 양잠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친잠은 부덕(婦德)에 관계되어 중국에서도 중요시 여겼던 의례였다. 누에를 치고 여기에서 실을 뽑아내는 것은 의생활의 기본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 한나라의 문제(文帝)는 “왕후는 친잠하여 제복(祭服)을 바쳐야 한다.”라고 했다. 이는 친잠을 통해 실을 생산하여 옷을 만드는 것이 여성의 역할임을 강조한 것이다.

성종 8년 친잠례를 거행한 후 성종은 “백성이 살아가는 근본은 의식(衣食)보다 큰 것이 없고 의식의 근원은 농사와 누에치기에 있다. 그러나 추울 때 갈고 더울 때 김매니 농사짓는 괴로움이 매우 심하고, 가시를 뚫고 들어가서 뽕잎을 따니 누에치는 수고로움이 특히 심하다. 이런 까닭에 근본에 힘쓰는 자는 적고 노는 자가 많아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나라에는 손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성종 24년 친잠례를 시행한 후 내린 교서에서 “농사와 누에치기는 왕정(王政)의 근본이자 의식의 근원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에 왕이 친경을 하여 농사를 소중히 여기었고, 왕후가 친잠을 하여 여인의 일을 권장하였다.”라고 하였다. 즉 양잠을 하는 것이 왕정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표하는 왕후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친잠례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양잠을 하는 것은 그 과정이 힘들어서 백성들이 힘쓰지 않으므로 친잠례를 하여 모범을 보여서 양잠을 활성화 하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조선후기가 되면 친잠례는 양잠을 장려하기 위한 의례로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잠업을 육성시키려는 경제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조선후기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계층이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사치풍조가 유행하였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중국의 비단을 사용한 의복의 사치였다. 중국의 비단을 사기 위해 은화(銀貨)가 대량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이 고갈되어 갔다. 이에 영조는 의복 사치를 제한하고 민생의 안정을 위해 국내 양잠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영조대에 친잠례를 시행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²⁸

이상과 같은 중요한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친잠례는 자주 시행되지 못하였다. 다음의 표는 조선시대에 치러진 친잠례를 정리한 것이다.

28-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09, 194-195쪽.

〈표 2〉 조선시대 친잠례 시행¹

왕	날 짜	주재왕비	친잠장소
성 종	8년 3월 14일	폐비 윤씨	창덕궁
	24년 3월 21일	정현왕후 윤씨	창덕궁
연산군	10년 3월 27일	폐비 신씨	
중 종	8년 3월 21일	장경왕후 윤씨	경복궁
	24년 3월 27일	문정왕후 윤씨	창덕궁
선 조	5년 3월 1일	의인왕후 박씨	
광해군	12년 4월 20일	폐비 유씨	
영 조	43년 3월 10일	정순왕후 김씨	경복궁 옛터

조선왕조에서 최초의 친잠례는 성종 8년에 시행되었으며, 영조 43년의 친잠례까지 모두 8차례 치러졌다. 그러나 영조 43년 친잠례를 마치고 편찬된 『친잠의궤(親蠶儀軌)』에는 영조 이전에 모두 5차례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이때의 기록을 보면 위의 표와는 달리 연산군대와 광해군대의 친잠례는 선례로 언급하지 않았다. 선조 5년의 친잠례 이후 300여년만에 의례를 시행하는데 큰 의의를 두었다.²⁹ 이는 두 왕이 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연산군은 갑자사화가 일어나는 해에 친잠례를 행하도록 하여 국왕의 권한을 바탕으로 한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흐트러진 국가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종묘 사직을 비롯하여 창덕궁(昌德宮)을 중건하는 등 왕조 체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광해군 12년의 친잠례도 왕실의 의례를 통해 유교 국가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잠례는 통치자 입장에서 중요한 의례였지만 왕실의 여성들에게 그 의미는 남달랐다. 조선시대 왕비와 비빈(妃嬪)들을 비롯한 내명부(內命婦)의 여성들은 궁궐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내외법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왕실 여성들은 궁궐 내에서

29. 『親蠶儀軌』 「傳敎·啓辭」

여성의 도리를 다할 뿐 궁궐 밖으로 외출을 한다던가, 자유로이 사람들을 만나는 생활은 불가능 하였다. 국가의 의례도 주로 왕과 관료들이 의례의 주체였기 때문에 내명부 여성들의 혼인 및 책봉, 그리고 그녀들을 위한 잔치를 제외한다면 여성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의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³⁰ 친잠은 왕비가 의례의 주체가 되고, 내명부와 외명부(外命婦)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여성들의 행사였다.

숙종대에는 이러한 친잠례의 특성으로 인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숙종 5년 남인 윤휴(尹鑄)·허목(許穆) 등은 왕에게 권하여 친경례를 행하게 하였으며, 이후 친잠례를 건의하였다. 이때 서인들은 과거 부제학 오정창(吳挺昌)이 친잠례를 할 때 그의 딸을 데리고 나가 임금에 눈에 들기를 바랐다고 하여 비판하였다.³¹ 이에 대해 사관은 “요염(妖艷)을 미끼로 하여 진출해서 이간하는 계책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였다. 이는 숙종 6년 경신환국이 일어나자 서인이 남인을 공격하면서 주장한 것으로 정치적인 다툼이었다. 그리고 숙종대에는 친잠례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친잠례가 왕실여성 뿐만 아니라 내외명부의 여성들에게는 존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의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이처럼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제한되었던 조선시대에 친잠례는 여성들의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의례였던 것이다.

2. 최초의 친잠례, 성종 8년의 친잠례

성종 8년에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친잠례가 시행되었다. 이때에 친잠례를 시행하게 된 것은 앞서 있었던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수렴청정(垂簾聽政)과 관련이 있다. 성종은 13세의 나이에 즉위하여 대왕대비 정희왕후가 8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정희왕후는 성종 7년 수렴청정에서 물러났고, 이때부터 성종의 친정(親政)이 시작되었다.³² 그러므로 친정을 하게 되면서 민본정치를 지향한다는 이념을 실천하고자 조선에서는 선례가 없는 친잠례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친잠례는 정희왕후가 철

30. 『國朝五禮儀』卷3, 「嘉禮」

31. 『肅宗實錄』卷5, 肅宗 2年 1月 18日 辛丑.

32. 林惠蓮, 「19세기 垂簾聽政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렴(撤簾)하였던 성종 7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또한 친잠례 후 정희왕후를 비롯한 대비전에 잔치를 베풀게 하여 수렴청정을 하였던 정희왕후에게 감사도 하며, 내명부의 결속을 돈독히 한다는 정치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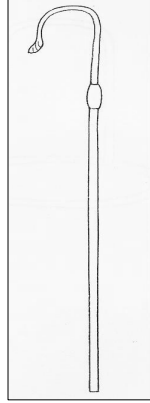
친잠례를 결정한 후 고례를 참고하여 친잠례의 절차가 준비되었다. 성종 7년 9월에 예조에서는 ‘친잠절목(親蠶節目)’을 통해 중국에서 시행하였던 친잠례를 참고로 하여 그 절차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날짜는 3월 안에 뽕잎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길사일(吉巳)을 택하도록 하였으며, 친잠의 장소는 한나라의 제도를 따라 후원(後苑)에 뽕잎을 따는 채상단(採桑壇)을 설치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친잠례를 하기 전에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잠제를 먼저 시행했었기 때문에 선잠제의 시행도 논의하였다. 선잠제는 선잠단에서 지내지만, 친잠례를 하는 채상단은 궁궐 내 후원에 있었으므로 왕비가 친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송나라의 제도를 따라 선잠제는 역시 관원이 대신 지내는 섭사로 결정하였다.³³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듬해 친잠례가 시행될 수 있었다.

성종8년 3월 14일에 친잠례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선잠제가 관원에 의해 섭사로 치러졌다. 선잠제와 친잠례의 시행 날짜는 중국의 송나라에서 같은날 시행하였던 선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친잠례를 시행할 때에는 각기 다른날에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친잠을 하기 위해서는 뽕잎이 반드시 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기후가 달라 음력 3월의 길사일에 뽕잎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⁴ 이는 이미 성종 8년에 논의된 바 있지만, 이때에는 조선에서 처음 시행하는 친잠례였으므로 보다 선례를 따라 시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같은 날에 의례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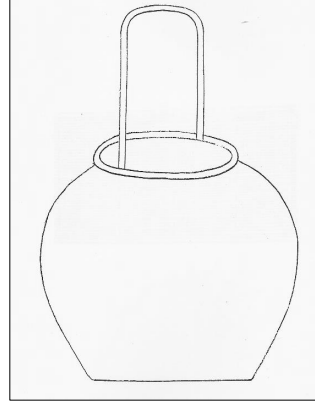
이날 왕비는 국의(鞠衣)를 입고 의례에 참여하였다. 국의는 국화의 황색과 같은데, 뽕잎이 처음 돋을 때 빛깔이 이와 비슷하다 하여 친잠시 왕비가 상징적으로 입었다. 국의를 입은 중전은 창덕궁 후원에 마련된 채상단에 나아가 뽕잎을 따내는

33_ 『成宗實錄』卷71, 成宗 7年 9月 25日 乙丑.

34_ 『成宗實錄』卷77, 成宗 8年 閏2月 24日 壬戌.



<그림 7> 갈고리[구(鉤)].
뽕잎을 따는데 사용했다.



<그림 8> 광주리[광(筐)].
뽕잎을 따서 담는데 사용했다.

의례를 행하였다. 이때 왕비는 5가지의 뽕잎을 따냈고, 내외명부 1품은 7가지, 2품과 3품은 9가지를 따냈다.³⁵ 이는 송나라에서 황후가 3가지, 내외명부 1품은 5가지, 2·3품이 9가지를 따냈던 것과 차이가 있다.³⁶ 조선은 제후국이었으므로 중국의 황후보다는 좀더 수고롭게 뽕잎을 따는 것이 예에 맞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친잠례를 한 후 중전은 선정전(宣政殿)에서 내외명부의 하례를 받았으며, 백관들은 영영문(迎英門) 밖에서 하례를 하였다. 그리고 대왕대비 정희왕후, 인수대비 소혜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3殿에게 잔치인 진연(進宴)을 베풀었다. 이어 의례에 참여한 내외명부에게도 노주연(勞酒宴)을 베풀었다.³⁷

성종은 24년 다시 한번 친잠례의 시행을 명하였다. 역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분발되는 바가 있게 하고자 함이다.”라는 성종의 하교처럼 친잠례를 통해 양잠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⁸ 성종은 이듬해 친잠례가 그 의식은 있으나 실상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중전도 직조(織造)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베짜는 기구를 만들고, 직비(織婢)를 뽑도록 하였다.³⁹ 이처럼 성종은 왕실의

35_ 『成宗實錄』卷77, 成宗 8年 閏2月 13日 辛亥.

36_ 『宋史』卷 102, 『志』55, ‘禮’5.

37_ 『成宗實錄』卷78, 成宗 8年 3月 14日 辛巳.

38_ 『成宗實錄』卷275, 成宗 24年 3月 21日 丙戌.

여성들이 양잠과 직조에 모범을 보여 백성들이 이를 통해 좀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랐다. 이는 결국 백성들이 윤택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본정치의 사상을 잘 보여준 것이다.

3. 친잠 의례의 완성, 영조 43년의 친잠례

조선시대의 친잠례는 조선후기 들어 한번도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가가 위기를 겪게 되자 왕실 여성이 주체가 되는 친잠례까지 시행할 여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정치적으로 사림(士林) 중심의 붕당정치기(朋黨政治期)였다. 이 시기는 성리학과 예학(禮學)이 발전하였지만 사림의 공론(公論)으로 인해 왕권이 견제받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만큼 농상을 권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례를 시행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의례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는 친잠례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친잠례뿐만 아니라 왕이 주체가 되어 농사의 시범을 보이는 친경례도 붕당정치기에는 한번도 시행되지 못하였고, 환국을 통해 왕권강화하였던 숙종대에도 친경을 결정하였으나 비로 연기되어 시행되지 못한바 있다.⁴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탕평정치를 시행하였던 영조가 즉위한 후였다.

영조는 탕평(蕩平)의 성과와 강화된 왕권(王權)을 국가 전례(典禮) 정비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것은 『속대전(續大典)』과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편찬이었다. 시대가 지나면서 조선시대 기본 법전이었던 『경국대전』, 의례의 법전인 『국조오례의』에 없던 조항들이 만들어졌다. 영조가 이를 집대성하여 반포한 것은 강화된 왕권의 위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영조 43년의 친잠례는 이러한 영조대 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었다.

친잠례가 치러진 영조 43년은 영조가 다시 한번 왕실의 권위와 왕권을 강조하였던 시기였다. 영조 38년 임오화변(壬午禍變)으로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죽음을 당

39. 『成宗實錄』卷292, 成宗 25年 7月 25日 辛亥.

40. 『肅宗實錄』卷6, 肅宗 3年 2月 27日 甲戌.

한 후 명나라에서는 바로 세손(世孫)이었던 정조(正祖)를 동궁(東宮)으로 책봉하는데 허락하였다. 영조 40년, 정조는 영조의 명으로 일찍 승하한 영조의 첫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후사로 종통(宗統)이 확정되었다. 죄를 받고 죽은 사도세자보다 효장세자를 계승한 것으로 하여 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영조 42년 영조는 큰 병이 나서 위중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병을 이겨냈고, 이듬해인 영조 43년 세손과 함께 친경(親耕)을 하면서 건재를 과시하였다. 그러므로 영조 43년의 친잠례도 왕실의 종통을 확정지었고, 병마와 싸워 이긴 영조의 권위와 함께 정순왕후(貞純王后)를 중심으로 한 내명부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시행한 측면이 크다.

영조 43년의 친잠례는 3월 10일에 경복궁(景福宮) 옛터에서 시행되었다. 영조와 세손, 중전인 정순왕후, 혜빈 홍씨(=혜경궁 홍씨)와 세손빈 김씨(=효의왕후)가 경복궁으로 행차하며 의례는 진행되었다. 강녕전 옛터에 마련된 단에서 중전이 선잠에게 작헌례(爵獻禮)를 시행하였고, 이어 채상단에서 친잠의식을 진행하였다. 이후



<그림 9>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의 외전으로 각종 국가 의례가 열렸던 곳이다. 영조 43년의 친잠례에서는 영조가 터만 남아있던 이곳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영조는 근정전에서, 정순왕후는 근정전(勤政殿) 안뜰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고, 교서(敎書)를 반포하였다. 이어 강녕전(康寧殿)의 옛터에서 왕과 중전이 내명부, 외명부의 조현을 받은 후 환궁하였다. 이후 5월에 누에를 거두어 들이는 수건의(收繭儀)를 시행하는 것으로 친잠의례는 마치게 되었다.⁴¹

영조 43년 정해년 친잠례는 성종 8년의 친잠례와 몇가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친잠례의 장소가 경복궁 옛터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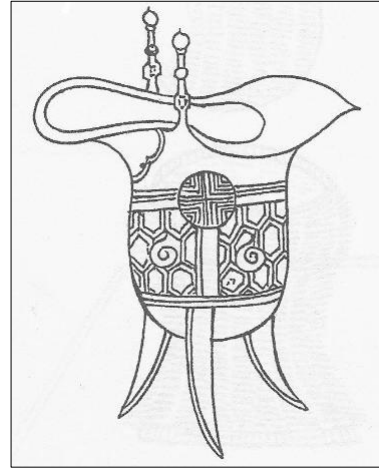
성종 8년의 친잠례는 왕과 왕실 식구들이 당시 거주하였던 창덕궁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영조 43년

에는 경복궁의 옛터에서 시행되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으로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는 곳이다. 그렇지만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진 후 고종대 중건하기 전까지는 이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였다.

영조는 “이번 행사는 300년만에 다시 있는 일이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직접 거행하니 의식 절차에 관한 예문(禮文)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교한 후 경복궁에 단 두 개를 설치하여 하나는 단 주위에 유문(壘門)을 설치하여 중전이 친제를 거행하고, 그 아래의 단은 중전이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뽕잎을 따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광해군대를 제외하고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의례를 회복한 만큼 왕조의 위엄을 상징하는 경복궁에서 예를 진행하여 의의를 더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영조도 경복궁에 가서 친잠례를 지켜 보겠다고 하여 이를 통해 왕권과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선잠제를 중전이 작헌례(爵獻禮)로 치렀다는 것이다.

성종 8년의 친잠례에서는 선잠제는 관원을 보내 섭사로 진행하였다. 이는 선잠단과 채상단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다. 그러나 영조 43년의 친잠례에서



<그림 10> 작(爵).

작헌례는 작이라는 술잔에 술을 따라 올리는 제사였다.

41. 『親蠶儀軌』 「儀註秩」

는 경복궁에 단을 두 개 설치하였으므로 중전의 친제(親祭)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선잠제를 중전이 직접 지내는 것은 의례에 사용하는 음악의 문제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영조는 친잠례에 기악(伎樂)을 연주하지 말도록 하였다. 기악은 궁중의 의식에 쓰이는 음악으로 당악·향악·아악을 통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현(管絃)악기와 종경(鐘磬)악기가 모두 사용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아악은 악인과 악기가 소실되어 복구가 어려웠다. 선잠제는 중사로 악장이 있어 아악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영조 43년에는 아악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중국의 송나라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조선의 예법에는 중사는 반드시 음악을 사용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소사(小祀)에만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전이 친제를 하는데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소사의 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불가하였고, 그렇다고 관현악만 연주할 수 있는 악공에게 종경악을 익히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본래의 예를 다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조에서는 육경고학에 해당하는 『주례(周禮)』와 『예기(禮記)』에는 왕후가 친제하는 경우가 없고, 조선에서도 선례가 없다고 하였다. 그 결과 선잠제는 기존대로 관원을 보내 섭사로 행하게 하자고 하였다.

영조는 선잠제를 섭사로 결정하긴 하였으나 선잠제의 주인인 서릉씨에게 중전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공경하는 뜻이 부족하다고 하여 경복궁의 단에서 작헌례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작헌례는 ‘작(爵)’이라는 술잔에 술을 따라 올리는 제례로 규모는 정식 제사보다 소략하지만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종묘나 문묘에서 작헌례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관원에 의한 선잠단에서의 섭사는 3월 4일에 치러졌고, 중전의 작헌례는 친잠례를 하는 3월 10일에 치러졌다. 영조는 작헌례를 위해 축문과 향을 전하였다. 축문에는 ‘조선국 왕비 모씨(朝鮮國王妃某氏)’라 칭하여 비록 작헌레이긴 하나 중전이 직접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중전이 작헌례를 통해 친제를 치른 것은 조선시대 선잠례 시행에서 유일한 경우였다.⁴²

42. 이상에서 의례의 내용은 『친잠의궤』 「전교·제사」, 『의주질儀註秩』의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

셋째, 수견례(收薦禮)가 시행된 것이다.

영조 43년의 친잠례는 5월 수견례로 마무리 되었다. 수견례는 친잠례에서 뽕잎을 따고, 그 이후 뽕잎을 먹은 누에고치를 거두고 씨고치를 갈무리하는 의식으로 이날 씨를 보관하는 장종(藏種)의식도 함께 거행되었다. 영조는 친잠례가 단지 의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농상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수견례에 중전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³ 수견례를 마지막으로 친잠례의 의례가 모두 진행되었다. 영조는 이를 종묘에 고유(告由)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개최하였다.⁴⁴

영조 43년 정해년 친잠례는 의례의 모든 과정을 행하여서 조선왕조 친잠례의 완성을 보여주었다. 영조는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왕실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으며, 절차와 의례의 시행에 신중하여 그 권위를 더욱 높였다. 아울러 친잠례 시행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상황 하에서도 백성들의 삶의 기본은 농상에 힘쓰는 것이라는 교훈을 전달하였다.

맺음말 : 선잠제·친잠례의 의의

선잠제는 고종 39년(광무 6년, 1902년)까지도 시행되었다. 고종대에는 사계절의 첫달에 교외에 있는 각 단에 예조의 관원을 보내어 살펴보는 것을 규례로 정하였다.⁴⁵ 선잠제를 지내던 선잠단은 홍살문이 쓰러져서 이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잠제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1908년 일제는 제사제도를 개정한 제사제도 칙령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선잠단의 신위는 사직단에 배향하고, 선잠단 터는 국유로 이속되었다. 이로서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냈던 선잠단과 선잠제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43_ 『英祖實錄』卷108, 英祖 43年 5月 23日 丙戌.

44_ 『英祖實錄』卷108, 英祖 43年 5月 27日 庚寅.

45_ 『承政院日記』高宗 元年 1月 28日 庚午.

친잠례는 영조 43년 이후 다시 시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9세기 들어서 왕비들이 수렴청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순조가 즉위한 후 헌종, 철종, 고종대에는 모두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친잠례는 왕실 여성이 모범을 보여 백성들에게 양잠에 종사하여 의생활을 풍요롭게 할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대한 국가 의례를 통해 왕실의 권위, 내명부의 위상을 과시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수렴청정을 하였던 대왕대비는 국왕과 같은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고 국정을 처결하였다. 그런만큼 친잠례를 시행하여 내명부의 위상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고종대에는 친잠례를 “제왕가의 성대한 행사였으나 지금은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잊혀진 의례가 되었다. 친잠례의 마지막 의례였던 수견례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도 치러졌다. 1914년과 1923년에 순종의 왕후였던 순정왕후(純貞王后)는 창덕궁 비원의 친잠실에서 일본 총독 부인 등 일본인 여성들과 조선의 귀족 여성들과 함께 수견례를 시행하였다.⁴⁶ 친잠례도 역시 일제시대에 왜곡되어 시행되다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시대 이후 선잠제와 친잠례는 의례가 사라지고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양잠을 권장하여 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한 선잠제와 친잠례는 무엇보다 여성이 주체가 되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전근대사회에는 여성이 사회전면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 선잠제의 제사 대상도 여성인 서릉씨였다는 것, 친잠례는 왕비가 누에치기를 시범 보이는 행사였다는 점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었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친잠례를 치르기 전에 왕비가 서릉씨에게 작헌례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은 여성 주도의 국가 행사가 존재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각인시킨 의의를 갖는다.

46- 『純宗實錄』卷5, 純宗 7年 6月 11日. : 卷14, 純宗 16年 6月 20日.

18세기 이후 왕비의 친잠과 양잠산업의 변화

이 정 향
여성문화유산연구회

들어가며

고대부터 근대까지 양잠은 여성노동의 대표이며 의생활의 발달과 여성이 주체가 된 경제활동으로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선초기의 역대 왕들은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원이라”하여 양잠을 적극 권장했으며, 왕비는 몸소 뽕을 따고 누에에게 뽕을 주는 친잠의식을 거행하여 백성에게 양잠을 권장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강력한 권잠정책과 잠서의 간행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나아가 농가부업으로 진전, 농업과 함께 크게 발전하였다.

조선후기부터 일제시대, 광복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잠업과 최근 양잠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 양잠산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조선후기 왕비의 친잠례

중종 이후 중단 상태에 있던 친잠례는 영조 43년(1767) 1월에 친잠례와 선잠제를 부활했다. 그 뒤 춘추관에 명하여 강화도에 소장되어 있는 실록에서 제도의 예일을 고찰하도록 하여 그해 ‘친잠의궤’가 편찬되었다. 이 의궤는 이해 3월에 친잠례를 정성왕후가 지냈던 제반절차와 소용되는 집기 등에 관해 예조에서 기록한 것으로 현

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정조때 농사를 권장하고 농서를 구하는 구언 전지에 대한 염덕우의 상소에서, 친경과 친잠례를 행하기를 아뢰니 정조가 비답을 내리기를 “친경과 친잠은 바로 우리 열성조들께서 시행하던 전례(典禮)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돌아보건대 정사나 교화가 열성조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감히 먼저 의식 절차에 관한 일에서부터 선대왕들이 하시던 바를 따라 하겠는가. 선대왕들의 뜻을 잘 받들어 이어가는 실체는 지난 축월(丑月)에 반포한 교서가 조금이라도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¹라 하며 의식보다 실전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조대에는 친잠의식은 거행하지 않았지만 다음 기록을 볼 때 선잠제는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이 “선잠단(先蠶壇) 제향 축문의 빈 곳을 채울 때에 헌관(獻官) 안창군의 성명을 의당 갖추어 썼어야 하는데, 대축(大祝)이 성(姓)자를 쓰지 않아 비록 즉시 바로잡기는 했으나 이미 일이 매우 잘못되었으니, 대축 한용탁을 중추하소서.”라는 기록²과 대신들과 영성(靈星)과 수성(壽星)에 대한 제사 여부를 논의할 때 “우리 조정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무릇 산천(山川)·성황(城隍)·선잠(先蠶)·선농(先農)·우룡(雲龍)·사명(司命)의 제사가 모두 질서 정연한 의식이 있어 거행하지 않는 바가 없는데, 어찌 유독 영성과 수성에 대해서만 예법 상 허락하지 않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³로 보아 선잠제는 지낸 듯하다.

그 후 고종 대에 와서 고종의 친경과 친잠에 대해 묻는 말에, 강관 홍종서는 “왕후는 친잠하고, 임금도 친경하였습니다. 왕후가 친잠하는 것은 종묘 제사 때에 입을 제복(祭服)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임금이 친경하는 것은 종묘 제사에 올릴 자성(棗盛)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조종(朝宗)을 공경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좌의정 이유원이

“친경과 친잠은 옛날 제왕가의 성대한 행사였으나 지금은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종 이전에는 친잠례를 하지 않았다. 궁내부 특진관 민영소가 지어 올린 [대행황후 지문]에 명성황후는 “매해 음력 2월 북원에서 친잠

1. 정조 50권, 22년(1798) 11월 30일(기축) 1번째 기사

2. 정조 44권, 20년(1796) 병진 / 3월 14일(정사) 2번째 기사

3. 정조 46권, 21년(1797년) 윤6월 1일(기해) 2번째 기사

하여 바쳤으며 제명원에 과일이 처음 익으면 햇것을 먼저 올려 제사에 쓰게 한 것은 선조를 추모하고 근본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명성황후의 친잠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확실히 언제 친잠례를 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⁴

2. 양잠의 근대 산업화 시도

1876년 개항을 전후하여 서양기술의 수용태도는 점차적으로 국가의 근대화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신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1881년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파견하였다. 일본에서 돌아온 신사유람단은 유람단의 시찰기(視察記)에 부국을 위한 유망 업종으로 잠업의 장려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의 풍토에 적당한 산업으로 잠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농사와 양잠을 적극 권장하였다. 1884년 잠업발달을 위한 관청의 설치를 천명하는 교지를 발표하고 잠상공사를 설치하여 독일인 메르텐스를 경리로 초빙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맡겼다. 고종도 경복궁 영추문 부근에 뽕나무밭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을 하여, 상해로부터 수입하여 심은 뽕나무만도 100만 그루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곤란과 기술자의 미비와 경영자의 결핍으로 잠상공사는 설치된 지 5년만인 1889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1894년 실시된 갑오개혁은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상, 공업을 천시하던 종래의 유교적 사고를 극복하고 각종 산업발달을 위한 기술학교의 설립이 요청되었다. 즉 한국이 외국과 겨루려면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다시 잠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갑오개혁 때에 농상아문에서 잠업을 관리하다 1895년에는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이 통합되어 농상공부로 개편하여 잠업을 관리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4. 고종 36권, 대한 광무(光武) 1년) 11월 22일(양력) 2번 째 기사

잠업기술 보급을 위한 ‘사립잠업전습소’가 설립되었으며 1901년 한태교에 의한 ‘청풍잠업학교’와 공주의 ‘공주사립양잠학교’등 양잠시험장이 설립되고 양잠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잠서편찬도 활발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잠상촬요(蠶桑撮要)』(1884)이며 일본책 번역판 등 전문서적이 많이 나왔다. 1880년대에서 1900년대 초에는 민간인이 잠업의 근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제국시기 잠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질이 좋은 견직물을 생산하였다. 개항 이후 시행된 잠업진흥정책은 한계성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 일본 견직물의 국내침투에 대응하여 국내 잠업을 근대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정부 및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만약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잠업근대화를 했다면 생사 및 견직물 수출의 확대로 잠사업이 국력신장에 큰 몫을 담당했을 것이다.

러일 전쟁이후 1905년 일제의 통감부가 한국에 설치되면서 잠업은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성 되었으며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잠업정책은 강제성을 띄면서 농민층에까지 강요되었다.

3. 일제침략기 양잠

일본은 한일합방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기후풍토가 좋고 오랜 잠업 전통을 가지고 있어 발전 잠재력과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민수탈을 위해 침략 초기부터 잠업장려를 추진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농상공부 ‘잠업과 시험장’ 설치, 1906년 조선총독부 소속의 ‘권업모범장’ 설치로 잠업시험연구가 중점 실시되고 1910년 한일합병과 동시에 조선총독부 관제개편에 따라 용산, 평양, 목포, 대구 등지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용산 시험장은 잠업시험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연구기관이다. 이 보다 앞서 한국 귀부인조직인 ‘대한부인회’가 설립하였던 잠업강습소의 사업전부를 승계 받은 “여자 잠업강습소”가 용산 시험장에 부설되었다.

여자잠업강습소는 1905년 7월 대한부인회에 의해서 당시 용산 만창리(萬倉理)에

창립되었다. 1910년 1월 한국정부의 소관이 되었다가 일제가 침략함에 따라 그해 10월 권업모범장 용산지장(龍山支場)에 부설 되었다. 그리고 1914년 10월 수원으로 이전되었고 1929년에 관제가 변경되는데 따라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여자 강습소가 되어 광복 후에까지 계속되었다.

강습소에서는 여자 잠업기술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실지 기능의 연마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학업의 습득에도 힘을 쓰게 되었다. 강습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업기간이 6개월 이상의 잠업강습소나 잠업전습소의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17세 이상의 여자이다. 도지사 추천에 의하여 해마다 40명 정도 입소시켰고 기숙사 숙식비로 약 10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업기간은 1년이었다. 졸업자는 군농회, 지방잠업강습소, 전습소, 애누에 공동사육소, 부락양잠조합 등에 기술자로 고용되었다.

당시 한국의 풍속은 남녀 간의 내외가 심하였는데 누에치기는 내방에서 여자들이 하는 일로서 남자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 자유롭게 내방을 출입할 수 있는 여자 양잠교사가 필요했다. 당시 양잠교사라면 양잠기술자의 한 상징이기도 하였다.

조선잠사회가 창립되던 1920년은 잠업장려에 쏟은 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때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잠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일제 식민 수탈의 정책구현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더 실력 있는 단체가 필요했기에, 관제인 조선 잠사회가 창립되었다. 조선잠사회 창립 당시 임원구성을 보면 부회장 한창수(한국인; 후에 회장이 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본인(회장은 일본인 식산은행장이 겸임)임을 볼 때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있다. 1924년 각도에 잠사회 지회가 설립되었는데, 명실공이 관제단체이고 관청에 준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⁵

한국 잠사업이 근대적 의미의 산업으로 발전을 이룩한 것은 1925~1939년까지의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견사생산 100만석 증수계획’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한국 잠사업 부문에서 처음 실시했던 중장기 계획으로 일제가 그만큼 식민지 산업으로

5. 대한잠사회, 『잠사회 80년사』, 2000, p99

잠사업에 눈독을 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1925년 대비 2.3배가 성장했으나 목표연도 계획대비 57%에 불과했고 양잠호수는 100만 호의 82% 선, 뽕밭면적은 10만 ha의 82% 선으로서, 생산 기반면에서는 계획에 접근된 측면이 있지만, 견사 생산실적은 계획과 대비하여 크게 부진하였다. 이는 1930년 전후 세계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생사 값 폭락, 지원시책의 후퇴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생사 값이 폭등됨에 따라 일제는 다시 6개년 견사생산계획(1940~1945년)을 수립하여 섬유자원 부족을 한국의 잠업 증산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증산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산 일로를 걷고 말았다. 일제침략 후 30여 년 동안 잠업신장, 비약적인 양적증가에서 한국인이 얻은 것은 값싼 고치 값 등의 수탈이었다. 1940년을 전후해서 일제의 통제, 강제가 증폭됨에 따라 잠사분야 전체의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은 반일(反日), 반잠사업(反蠶絲業)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정서는 광복 후에도 이어져 잠사업의 장애요소가 되었다.

한편 선잠단 신위는 대한제국 순종황제 2년(1908) 7월에 선농단의 신위와 함께 사직단으로 배향했고 그 후 773평의 선잠단 터는 1939년 10월 18일 일제에 의해 보물로 지정되었다.⁶ 그리고 이 터의 일부(528평)는 개인에게 불하되었다.⁷

1909년 6월 1일 순정효황후 윤씨는 수십 명의 시종을 거느리고 권업모범장에 행차하여 양잠실과 양잠·제사과정을 순시한 후, ‘민산을 장려하기 위해 금년부터 궁중에서 친잠을 하겠으니 잠업을 발달시키고 부녀자들은 더욱 진력하라’는 휘지를 내렸다. 6월 9일 황후는 창덕궁 서향각 잠실에서 오래전 중단된 친잠을 재개했다. 한성부는 황후의 권업모범장 행차와 친잠 사실을 도성 내에 알렸다. 다음해에도 황후는 황족과 대신의 부인들이 배관한 가운데 친잠예식을 거행했다. 대한매일신보는 “각 황족과 양반들이 치는 누에가 잘됨을 인하여 열심히 동산에 뽕나무를 심는 자가 많은지라, 이것으로 보면 수삼년 안에 잠농이 크게 진취되리라”(1910.7.21.)고

6. 경성부 “경성부사” 제3권(1941), p.939

7. 대한잠사회, 『잠사회 80년사』, (2000), p47

하였다.

창덕궁 주합루 서쪽에는 어친잠실(御親蠶室)이 있었는데, 1910년 6월 25일 순정효황후가 전례에 따라 친잠례를 행하였다.⁸ 그 후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도 1924년, 1925년, 1929년, 1930년, 1933년 등 1930년대까지 순정효황후가 친잠례를 행한 기록이 있다.⁹ 여성노동의 상징인 양잠을 장려함으로서 일제의 식민수탈을 강화하는데, 황후의 친잠의식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광복 이후의 양잠

광복 후 조선잠사통제주식회사가 1946년 4월에 해산됨에 따라 대체 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절실히 필요했다. 일본인이 물러가자, 민족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한 푼 없는 임의단체인 조선잠사회가 업무를 맡을 수는 없었다. 일단 조선잠사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의 대표를 모아 법인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고 1946년 7월 미군정청에서 창립총회를 하였으며 1949년 6월 조선잠사회를 ‘대한잠사회’로 변경했다.

1948년 8월 한국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혼란의 연속이었으므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생산계획이나 장려시책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미군정이 접수하여 업무가 중단되고 36년간의 일제수탈의 대표적인 분야에 대한 복수심으로 뽕나무를 캐내고 뽕밭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산추세를 견게 되었다. 그러나 잠사업은 수출산업으로 국가경제상·농촌경제상 매우 중요한 산업이므로 정부는 그 증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1949년 한국정부 수립 후 식목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농가마다 뽕나무 몇 주식을 심게 하였다. 스스로 명주를 짜서 입을 뿐 아니라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라고 하면서, 진해 해군기지 빈터에 뽕나무 심기를 지시하는 등 잠업에 각별한 관심

8. 잠업지, 한국중앙농회, 1910.7.25. p6-8

9. 대한잠사회, 『잠사회 80년사』, 2000

과 지원을 확대하였다.

1950년대 여러 번의 잠사 증진계획 수립, 업계·정부에서도 증산계획을 입안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다가 1960년의 4.19와 1961년의 5.16 혁명으로 지난계획은 재검토 되었다.

1962년부터 제1차 증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목표연도인 1966년에는 새로이 7만 4000ha의 뽕밭을 만들어 1만 4625M/T의 고치를 생산했고 1388M/T의 생사를 수출함으로써 1500만 달러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 후 1967~1971년까지 제2차 경제 개발계획의 중요사업 중의 하나로 제2차 잠업증산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목표연도인 1971년에 7,900만 달러의 외화획득을 가져올 만큼 기준연도 대비 뽕밭에서 약 110%, 고치생산에서 약 1,699%, 생사수출·외화획득에서 약 527%의 성장을 가져왔다.

잠업증산사업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72년부터 제3차 증산계획의 추진으로 1976년도에 수출고는 2억 7000만 달러에 이르러 그 성장 역시 기준연도인 1972년 대비 뽕밭 면적 105%, 고치생산 156%, 생사류 수출고 238%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에 따른 국제경제 침체로 생사 값이 오르지 않고 수출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임금상승 등의 이유로, 다시 감산되었다.

이에 따라서 1980년에 1976년 대비 약 44% 수준, 고치생산 약 49% 수준, 생사류 수출실적은 2억 4400만 달러로 90% 수준으로 감산되었다. 1990년 뽕밭 면적은 1980년의 50% 이상 수준으로 줄었다. 이러한 생사감산 현상은 노동력부족·임금상승도 원인이겠으나, 화학섬유의 보급 확대로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잠단은 광복 후 국유로 이속시켜 1961년 11월 10일 선잠단지(先蠶壇址)란 돌 팻말을 세우고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83호로 지정되었으나 거의 방치상태에 있었다. 이를 1976년 단 앞에 뽕나무를 심은 후 주민 이학수씨로 하여금 돌보게 하였다. 1972년 6월 9일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경기도 가평에서 뽕 따기와 누에치기를 하며 친잠행사를 시작한 후 1973년 6월5일 충북 청원에 있는 잠업기술연구원에서, 1974년 5월 28일 강원도 춘천 뽕나무 마을에서 거행한데 이어

1981년 9월9일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충북 청원에 있는 잠업기술연구원에서 친잠행사를 거행하였다.

5. 최근의 양잠산업

1990년대부터 값싼 중국 누에고치의 수입비율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잠업생산 기반은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보호 속에서 육성되어오던 농업관련 기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연구의 방향 또한 천연섬유 소재로서의 잠사업은 1997년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의 시한을 앞두고 일대 변신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연구목표는 “입는 SILK산업”에서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SILK 종합 생물소재 산업”으로 일대 전환기를 준비했다.

최근 양잠산업은 단순한 실크 생산 위주의 전통양잠에서 탈피해 식품 소재 산업, 기능성 소재산업 등 우리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누에의 혈당강하 효과, 오디의 항산화 효과 등을 밝히고 누에의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과 대체의약품과 관련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체험 관광 상품과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의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누에상품에는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이용한 오디잼, 건조 오디, 오디분말, 오디즙, 오디와인 등이며, 뽕잎을 이용한 뽕잎 차, 뽕잎 분말, 뽕잎 아이스크림, 국수, 빵 및 과자류 등이 있다. 또한 누에고치 단백질을 이용한 천연실크 화장품, 항암 면역증강 효력이 있는 동충하초, 누에분말 및 먹는 실크 등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1982년부터 권잠회와 대한잠사회에 의해 매년 봄 뽕잎이 나기 전 가지치기와 비료주기, 주변정리 등을 하며 선잠제 재현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다. 때마침 서울 성북구청에서는 서울 천도 600년을 앞두고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선잠제향을 재현

하기로 하였다. 1993년 5월 16일 대한잠사회와 종묘제례보존회의 고증을 받아 옛 의식대로 85년 만에 선잠제가 제향 되었다. 1998년에는 그 앞의 민가를 헐어 보상한 후 홍살문을 세우고 철책과 안내판도 다시 세워 오랜만에 봄 3월 백날에 선잠제를 배향하였다. (현재 규모 285평)

2006년 10월 14일 청원 잠사박물관에서 사양산업에서 바이오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한 잠업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1회 세계 누에산물전’이 14일 개막식에서 노무현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는 과거 왕비가 백성들에게 누에치기를 권장키 위해 행했던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그 밖에 1999년 11월 20일 한국의생활문화원의 주관으로 서울 남산한옥마을에서 대한잠사회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고증에 의거, 선잠제와 채상례, 친잠례 그리고 수견례를 재현하였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우리나라 산업 경제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최초의 산업인 양잠업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최근 양잠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누에에서 실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에 동충하초 등 기능성 식품으로 제품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 누에를 이용한 바이오산업도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에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인공뼈와 인공 고막 등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농촌진흥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양잠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 양잠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맺음말

고대로부터 여성노동의 상징인 양잠과 길쌈은 여성이 주체가 된 경제활동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영조 이후 중단되었던 왕비의 친잠례는 고종 대에 부활되어 근대 산업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수탈의 방편으로 황후의 친잠의식을 거행케

하여 고치증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광복 후에도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영부인들은 앞장서 과거의 친잠의식을 행하며 양잠을 권장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힘든 여성의 노동 양잠이 있었다.

이제 뽕나무를 키워 누에를 치고 실을 뽑아 명주를 짜고 의복을 만들어 입던 양잠산업은 농촌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화학섬유의 발달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입는 실크에서 먹는 실크”로 변화를 모색하고 최근 들어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여성노동의 상징이었던 양잠은 이제 더 이상 힘든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양잠으로 발전되어 여성이 수혜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대한잠사회, 『한국잠업사(韓國蠶業史)』, 1989

대한잠사회, 『잠사회 80년사(蠶絲會八十年史)』, 2000

박기주, “제국의 황혼 100년전 우리는”-양잠이 농가부업으로, chosun.com, 2010.8.2. 기사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연구』, 지식산업사, 2009

부안그린투어, <http://cafe.naver.com/greenbuan.cafe>

여성의 일, 길쌈의 역사와 축제

김 효 경
한남대 강사



1. 길쌈노동의 역사

1) 선사시대 : 여성이 신성화, 엘리지움(elysium)은 육아와 길쌈으로부터

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시기가 소급 될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신석기 시대를 ‘엘리지움의 시대’라 한다. 엘리지움은 여성의 자궁을 지칭하는 말로써, 여성성이 신성하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여성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은 흔히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되어 이야기 된다. 남성은 집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다. 아직은 온전한 정착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여성의 역할은 집안에서 부각되던 시기였다. 여성의 주된 역할 중 육아는 그중 중요한 일이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여성의 종교적 우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러한 여성이 지닌 종교성의 또 다른 차원에서 실제적인 여성 역할이 부각된다. 길쌈이 그것이다.¹ 생산의 주체로써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여성이 실제적인 역할

1. 길쌈이 여성의 직능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확인된다. 제우스가 인간으로 만든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의 기능으로 부여한 것이 길쌈과 바느질이다. 고대그리스 신화가 마련된 시기가 청동기 시대가 끝난 철기시대이지만 그 토대가 청동기시대인 미케네문명임을 고려할 때에 직조의 연원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과 직조를 직접 결합시키는 것은 청동기 이후에 남성의 권위가 강조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과 관련되어 인식되기 시작한다. 길쌈, 육아 등이 여성의 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을 신적(神的)인 존재로 간주하던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여성 노동의 산물인 직물은 그 자체로 신성성을 부여 받게 되었을 것이다.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길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뼈바늘과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가락바퀴(방추차) 등을 통해 그 연원을 짐작할 수 있다.² 특히 방추차는 실을 잣는 데 쓰이는 가락(실을 감는 나무나 쇠가락)에 끼워 회전을 돕는 바퀴로, 섬유에 꼬임을 주어 실을 만드는 방적구(紡績具)로서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청동기 시대 집터유적이거나 무덤에서 주로 발견된다. 가락바퀴의 출토 빈도는 낮은 편이다. 여주 흙암리의 경우 1호부터 14호 주거지가 있는데, 이중 5곳에서만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에 1개, 4호 주거지에 3개, 12호 주거지에 4개, 13호 주거지에 1개, 기타 주거지에 2개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빈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주거지에서 직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가락바퀴가 무덤 주변에 부장될 경우에는 의례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주거지의 환호(環壕)에 투기되었는데, 함께 출토된 것이 무문토기, 단조마연토기 호(壺), 붉은칠이 된 고배형토기의 대각(臺脚), 바닥에 구멍이 뚫린 저부, 토주(土珠), 어망추이다. 이들은 모두 생활용구이다.³ 이때 가락바퀴는 실제 사용하던 가락바퀴에 붉은 칠[丹]을 하거나 처음부터 의례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형모조품으로 만들고 이 역시 붉은 칠을 한 것이 특징이다.⁴ 이처럼 생활용구가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은 가락바퀴도 다른 용구와 같이 생활상의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가락바퀴를 대상으로 하는 직조활동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 가락바퀴의 사용을 신석기시대로부터 보기도 하지만 그 본격적인 사용은 청동기 시대이므로 청동기 시대로 보았다.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다른 석기류들에 비해 그 양이 적다. 여주 흙암리의 경우 1호부터 14호 주거지 중 석기가 348기가 출토되었는데, 그중 가락바퀴는 11개가 5개의 주거지에서만 출토되었다.(박순발·최몽룡, 『여주 흙암리 선사취락지 출토 석기류Ⅱ』, 『고문화』26, 1985, 2쪽.) 석부(石斧), 석촉, 숫돌 등은 모든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것에 비해 출토 빈도가 떨어진다.

3. 이상길, 『청동기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 박사학위논문, 2000, 28쪽.

4. 이상길, 위의 책, 2000, 62~63쪽.

가락바퀴가 출토되는 공간은 집터유적이다. 청동기 시대의 움집 주거공간에서 집 안쪽에서 주로 발견된다. 장방형(長方形)의 집에서 문이 달린 전면과 그 안쪽의 공간에서 출토된 유물이 다르다. 집 안쪽의 공간에서는 뼈바늘, 그릇, 방추차 등의 여성 생활도구가 발견되고, 문 입구쪽의 공간에는 작살, 화살 등의 남성 사냥 도구가 발견된다. 이러한 생활 도구의 분리는 청동기 시대에 이미 생활공간이 분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명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청동기 시대는 여성과 길쌈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

2) 고대국가

(1) 길쌈 주체의 변화 : 신녀(神女)에서 직녀(織女)로의 전환

① 국가형성 초기 : 특수한 기술을 지닌 신성한 존재인 신녀(神女)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여성의 길쌈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여성의 고유한 직무이기도 한 직조와 그 부산물인 직물이 신성성을 부여받았다. 왕후(王后)나 신화속의 신녀(神女), 고위 계층의 일부 여성이 길쌈과 관련하여 부각된다. 먼저 가야의 왕후인 허왕옥에 주목해 보자.

가야의 왕후가 되기 위해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온 허왕옥은 가야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 바친다.

“유천간 등이 돌아가서 왕후의 말을 전달하니 왕은 그렇다고 여겨 유사(有司)를 이끌고 행차하여, 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곳의 산 주변에 장막을 쳐서 임시 궁전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왕후는 산 밖의 별포(別浦) 나무에 배를 대고 땅으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고, 입고 있는 비단바지를 벗어 폐백으로 삼아 산신령(山神靈)에게 바쳤다. 그 밖에 시종한 잉신(媵臣) 두 사람의 이름은 신보(申輔)·조광(趙匡)이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모정(慕貞)·모량(慕良)이라고 했으며, 노비까지 합해서 20여 명이었다. 가지고 온 금수능라(錦繡綾羅)와 의상필단(衣裳疋緞)·금은주옥(金銀珠玉)과 구슬로 된 장신구들은 이루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왕후가 점점 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니 왕은 나아가 그를 맞아서 함께 유궁(帷宮)으로 들어왔다.”⁵

위의 자료에는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 가야의 왕후가 되기 위해 가야에 도착한 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제일 먼저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드렸다. 비단바지를 신령에게 헌물 했다는 사실은 비단이 헌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은 그녀가 혼수로 가져온 물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금수능라와 의상필단, 금은주옥 등을 가져왔는데, 이때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금수능라이다. 오늘날 중시되는 금은주옥 보다 금수능라가 중시되었다. 이는 비단이 금은주옥 보다 가격이 높았다는 것 보다 신성한 물건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가야로 입국하기 위한 첫 번째 의례로, 영역(領域)을 관장하는 산신에게 입국을 허락받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는 당시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신령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헌물(獻物)이 비단임을 의미한다.⁶ 이처럼 비단은 실생활에서도 혹은 신령을 대하는 곳에서도 중시되었다.

다음은 신라의 박혁거세의 부인인 알영과 비단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혁거세 17년에 왕이 6부를 순행할 때 비(妃) 알영(閼英)도 그 뒤를 따랐다. 백성에게 농상(農桑)을 장려하여, 토지의 생산을 마음껏 하도록 하게 하였다.”⁷

신라는 국초부터 농상을 장려했다. 이때 농사와 뽕나무를 구분한 것은 뽕나무는 임업에 속해 구분되지만 대표적인 작물이기 때문이다. 뽕나무 기르는 것이 중시되는 당시 비단 생산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더불어 조선의 선농단과 선잠단처럼 이 시기에도 왕의 역할은 농사로, 왕후의 역할은 양잠으로 구분되어 인식되었다.

한편 보다 중요한 자료는 다음의 자료이다.

5. 留天等返達后之語王然之率有司動蹕從闕下西南六十步許地山邊設幔殿祇候王后於山外別浦津頭維舟登陸憇於高嶠解所著綾袴爲贄遺于山靈也其地侍從媵臣二員名曰申輔 趙匡其妻二人號慕貞 慕良或臧獲并計二十餘口所齎錦繡綾羅衣裳疋段金銀珠玉瓊玖服玩器不可勝記王后漸近行在上出迎之同入帷宮(『三國遺事』卷 第二, 紀異第二, 駕洛國記)

6. 오늘날 민간신앙에서 마을의 산신이나 무당의 신령에게 오색 천 조각을 바치기도 한다.

7. 『삼국사기』권 제1, 신라본기 제1, 시조혁거세거서간.

“일찍이 하늘의 선녀들에게 비단을 짜게 하고, 붉은 물감[緋色]으로 물들여 조복을 만들어 그 남편에게 주었다. 나라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그의 신험(神驗)을 알게 되었다.”⁸

위의 사료는 선도산의 성모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선도산 성모의 신험이 선녀가 짠 비단에 물감으로 물을 드려 옷을 지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신령의 신성함이 직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신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옷을 직조한 존재는 하늘의 선녀이다. 성모는 단지 물을 들여 조복을 지어 남편에게 주었다. 직조와 천에 물을 들여 옷을 짓는 행위가 구분되어 있다. 직조는 하늘의 일 즉 신성한 존재의 역할임을 의미한다. 그러한 천으로 옷을 짓는 것 자체도 신험을 의미했다. 이처럼 직조와 옷을 짓는 행위는 여성 특히 선녀의 역할로 중시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삼국유사』에 수록된 ‘연오랑과 세오녀(延鳥郎 細鳥女)’의 기록을 보자.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이 즉위한 4년 정유(丁酉)에 동해의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랑이 바닷가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물고기 한 마리라고도 한다) 연오를 태우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일본국 사람들이 연오를 보고 “이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하고 이에 웅립하여 왕으로 삼았다 《일본제기(日本帝記)》를 보면 전후시기에 신라인을 왕으로 삼은 적이 없다. 이것은 변방 읍의 소왕이고 진짜 왕이 아닐 듯하다.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괴이 여겨 가서 찾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이 있음을 보고 역시 그 바위에 올라가니 바위는 다시 그 전처럼 세오를 태우고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면서 왕에게 나아가 아뢰니 부부가 다시 서로 만나고 [세오는] 귀비(貴妃)가 되었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광채를 잃었다. 일관(日官)이 나아가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지금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찾으니 연오가 말하기를 “내가

8. 『삼국유사』권 제5, 신주 제6, 감통 제7, 선도성모수희불사.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입니다. 지금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므로 나의 비(妃)가 짠 고운 명주[細絹]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에 그 비단을 주었다. 사신이 돌아와서 아뢰자, 그 말대로 제사를 지낸 이후에 해와 달이 그 전과 같이 되었다. 그 비단을 왕의 창고에 잘 간직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 하였다.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을 영일현(迎日縣) 또는 도기야(都祈野)라 하였다.⁹

위의 설화는 신라의 8대 임금인 아달라 이사금(?~184, 재위 년간 154~184)대의 인물인 연호랑과 세오녀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동해바닷가 근처에서 생활하다가 떠밀려온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연호랑과 세오녀를 찾아 일본에 가서 해와 달의 정기인 그들을 데려오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세오녀가 짠 고운 명주를 가져다가 하늘에 제사지내라고 했다. 그렇게 하니 예전처럼 해와 달이 빛을 찾았다. 여기서 연호랑과 세오녀는 일본의 왕이 되었다.¹⁰ 그들이 실제 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특별한 기술을 지녔기 때문에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늘의 해와 달의 광채를 되살리는 천제에 세오녀가 짠 고운 명주[細絹]를 헌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운 비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세오녀의 이름에 주목해 보자. 세오녀가 짠 직물은 ‘고운 명주[細絹]’이다.

9. 第八阿達羅王卽位四年丁酉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一日延烏歸海採藻忽有一巖 一云一魚 負歸日本國人見之曰此非常人也乃立爲王 按日本帝記前後無新羅人爲王者此乃邊邑小王而非眞王也 細烏怪夫不來歸尋之見夫脫鞋亦上其巖巖亦負歸如前其國人驚訝奏獻於王夫婦相會立爲貴妃

是時新羅日月無光日者奏云日月之精降在我國今去日本故致斯怪王遣使來二人延烏曰我到此國天使然也今何歸乎雖然朕之妃有所織細絹以此祭天可矣仍賜其絹使人來奏依其言而祭之然後日月如舊藏其絹於御庫爲國寶名其庫爲貴妃庫祭天所名迎日縣又都祈野 (『三國遺事』卷 第一, 紀異第一, 延烏郎 細烏女)

10. 연호랑 세오녀 설화는 일본사에 전하는 신라왕자 천일창(天日槍)의 설화와 비슷하다. 천일창은 기원전 1세기 경에 일본에 건너갔다고 하는 신라계 인물이다. 신라의 왕자로서 처음 일본의 변마국 육속읍(지금의 효고현)에 상륙하여, 근강국, 약협국 등을 거쳐 단마국(但馬國)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으며, 왕에게 옥(玉)·일경(日鏡)·창·칼 등 8가지 물건을 바쳤는데 이를 단마국의 신물로 소장하였다는 내용이 《일본서기》 스이닌천황(垂仁天皇) 3년조에 실려있다.

세오녀는 말 그대로 가는 비단을 짜는 여인으로 볼 수 있다. ‘고운 비단=가는 비단’은 거친 비단이나 삼베에 비해 특별한 물건임을 의미한다. 고운 비단으로 천제를 지냈다는 사실은 당시에 고운 비단이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세오녀는 특별한 직조기술로, 그 자체가 신력(神力)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선도산 성모의 신성을 드러낸 비단직조의 천도 하늘의 선녀가 작업했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세오녀의 신성성은 그녀가 살던 신라 초기에 직조기술이 분화되어 감을 보여준다. 가는 비단을 짜는 여인은 신녀(神女)로 간주된 것이다.

한편 신라 뿐 아니라 고구려에서는 조세 항목에 이미 세포(細布)와 포(布)로 구분했다.¹¹ 포는 삼베이지만 그 기술력에서 밀도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비단도 역시 동일한 기술력의 구분이 있었을 것이다. 세오녀가 짠 고운 비단은 고운 비단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왕녀 혹은 신녀(神女)의 역할이 모두 직조와 관련 깊다. 이들의 직능은 분화된 기술력 중에서 고도의 기술력의 소유자이다. 고대국가의 특징이 연합정권이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직조활동의 신성화는 남성을 천손족으로 신성시 하는 것과 동일 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가형성 초기 단계의 비단은 남성의 신성성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다. 여섯 가야국의 시조 탄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색비단에 매달린 알로 표현되었고,¹² 다파라국에서 온 알에서 깨어나기 이전의 탈해는 비단보자기에 싸여 있었다.¹³ 비단은 신성한 존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하늘과 관련한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 귀한 자와 관련한 비단이 모두 자색인 것은 “붉은 색의 옷은 서민(庶民)이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금제(禁制) 조치로 보아도 알 수 있다.¹⁴

이러한 전통은 후대에도 간혹 나타난다. 신라의 제28대 여왕인 진덕여왕이 즉위하여 스스로 태평가를 짓고 비단을 짜서 무늬를 놓아 사신을 보내어 당주(唐主)에게 바쳤다.¹⁵ 여왕이 직접 짠 비단을 당나라에 바치는 행위는 제후국의 여왕의 최대

11. 『隋書』권81, 列傳46, 高麗.

12. 『삼국유사』권2, 기이2, 가락국기.

13.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14. 『삼국사기』권33, 잡지2, 색복.

한의 예(禮)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왕녀나 성모 등이 모두 직조와 관련되어 성스러운 여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특별한 직능의 소유자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시대의 산물이라 하겠다.

② 고대국가 : 보편적인 여성 노동의 기술로 길쌈하는 여인, 직녀(織女)

시간의 변화속에서 직조 기술에 대한 신성성은 점차 배제된다. 직조가 여성 노동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상징으로 사용되면서부터 직조=신녀를 직조=평범한 ‘베를 짜는 여자[織女]’으로 묘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분 벽화에 묘사된 직녀(織女)라는 명칭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소를 끌고 가는 남자는 견우(牽牛)라 하고, 그 옆의 여자는 직녀라 묘사한다.¹⁶

견우와 직녀는 오늘날까지 알려진 ‘견우직녀설화’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견우직녀 설화는 중국의 『詩經』에 처음 등장한다. 시대별로 내용이 조금씩 첨삭되면서 만들어졌는데, 남조의 양대(梁代)에 이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모티브의 설화가 완성된다.¹⁷ 이러한 이야기가 한반도에 언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의 직조 노동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직조’라는 등식과 더불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것이 아닐까 한다. 직녀가 등장하는 이 시기는 직녀=여성의 노동, 남성=쟁기질이라는 보편화된 남녀성의 성별 역할이 고착화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5세기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직녀도를 보도록 하자. 5세기는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던 때로,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이 형성될 정도로 광대한 영토를 운영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사회분화도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의 고분벽화에 다양한 직업이 개별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분화된 사회상을 짐작케 한다.¹⁸ 견우와 직녀

15_ 『삼국유사』권1, 기이1, 진덕왕.

16_ 견우와 직녀와 함께 선인(仙人)과 옥녀(玉女) 등이 묘사되어 있다. 선인과 옥녀는 모두 신선의 일종으로, 견우와 직녀도 동일한 신격으로 묘사된 것이 아닐까 한다.

17_ 전호태, 위의 글, 130~134쪽에서 시대별 견우직녀 설화의 변화상을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18_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직녀도」, 『역사와 현실』38, 164쪽에서 직녀는 5세기 고구려 사회의 수공업 발달과 관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양한 수공업의 발달이 직녀를 중시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녀를 베와 관련한 뽕나무의 여신에서 파생된 존재로 보았다. 중국에서 견우와 직녀



<그림 1> 견우와 직녀
(덕흥리고분, 『조선 유적유물도감 5』 p.158)

의 그림도 그것들 중 하나이다. 분화된 사회 분업의 하나로 묘사된 직녀는 이전의 세오녀, 허왕옥 등처럼 개인이 부각되어 신녀(神女)로 이미지화 된 것과는 다르다. 직녀의 모습은 덕흥리 고분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다.¹⁹ 이 시기에 직녀와 관련한 문헌설화는 없어 그 존재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직녀라는 명칭의 뜻대로 ‘베를 짜는 여인’이

다. 직녀는 마포, 저포 등의 다양한 직물을 짜는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귀족의 물품인 비단이 ‘비단=신녀’로 등식화되었다면, ‘마포, 저포 등의 다양한 일상의 직조물건=직녀’로 등식화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직물의 직조가 보편화되면서 여성 노동의 상징으로 직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마포, 저포 등의 직조활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사용된 보통명사가 직녀라 하겠다.

직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은 여성=직조라는 노동의 관계가 고착화되면서 부터일 것이다. 그 효용성이 증대된 것에는 고대국가 체제로 들어서면서 포세(布稅)의 설정도 관련이 깊다. 국가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이 쌀과 포였다. 경제 수단으로 포가 곡식과 더불어 중시되면서 직녀의 역할도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길쌈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베틀이라는 도구의 발달일 것이다. 삼국시대 주요한 생산품이자 거래품으로 언급되는 것이 포이다. 기원 후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을 비롯하여 『후한서』 등의 중국 사서에 수록된 삼한(三韓)에서는 다양한 포를 생산했다. 마포(麻布), 비단[絺布], 면포(綿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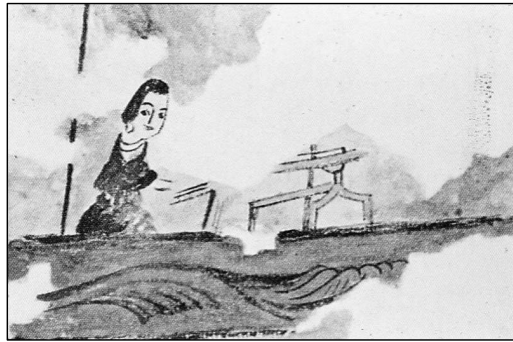
가 농업과 직물산업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음에 착안하여 5세기(408년)에 그려진 덕흥리 고분의 직녀도도 고구려의 직물산업 정책과 연계되어 직녀신앙이 민간에 유포되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정했다.

19. 물론 대안리 고분에 묘사된 베 짜는 여인을 직녀라 부르는 것에 일치된 의견이 있지는 않다. 다만 덕흥리 고분의 직녀와 동일하게 베를 짜는 직능을 지닌 여인이므로 그리 부르도록 하겠다.

20.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바느질을 잘하려면 칠석날 직녀에게 치성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직녀는 모든 여성의 노동과 관련된 존재로 인식된다.

검포(縑布), 폭이 넓은 고운 베(廣幅細布) 등이다. 면포나 검포는 모두 비단이다. 넓은 폭의 가는 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때 이미 폭이 넓은 포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 아직 저포[모시]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포가 마포, 저포, 갈포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포는 마포, 저포, 갈포 등의 다양한 포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때 보다 다양한 명칭을 지닌 것이 비단임을 고려할 때 비단의 생산이 보다 발전된 직물에 속한다고 하겠다. 귀족들의 물건이었기에 그 쓰임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직물을 짤 수 있었던 것은 대안리 1호분의 베틀의 모습처럼 5세기에 이미 베틀이 마련되어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베틀 앞에 앉아 직조를 했기에 베틀 아래에는 그 여인이 짠 직물이 널려 있다. 특별히 직녀라고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 역시 ‘직녀’로 볼 수 있다. 견우와 직녀의 설화적 모습이 아니라 직녀 홀로 등장한 것은 직녀의 직능이 분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2> 천을 짜는 여인
(『조선유적유물도감 6』 p.107,
대안리1호분 안칸 남벽 묘사도)

(2) 다양한 직물의 직조와 노동방식

① 다양한 직물의 종류

고대에 생산된 직물은 매우 다양하다. 위의 자료들에서 보았듯이 비단, 삼베, 포[저포, 마포, 갈포를 의미]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한서』에 “마한 사람들은 농사와 양잠을 할 줄을 알며, 비단을 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¹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사와 양잠은 대비될 정도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21.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韓. “馬韓人知田蠶 作縑布”

남성의 농사와 여성의 양잠은 남녀성의 성적 역할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이었다. 양잠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포를 짚으므로 마한 사람이 짚던 포는 비단이다. 변한과 관련해서는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비단을 짤 줄 알았다.”라고 했다.²² 이 역시 양잠과 비단을 의미한다.

진한 역시 “땅이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다. 양잠이 성행하고 비단을 잘 짠다.”²³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시 비단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삼한시대에 마포와 저포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뽕나무와 비단이 강조되는 사회였다고 하겠다.

반면에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직물이 소개된다. 고구려와 관련해서 “삼베, 비단, 가죽 옷을 입고 머리에는 절풍을 쓰며 옆에 새 깃털을 꽂는다. 귀천에 차이가 있다. 공적인 모임의 의복은 모두 비단실로 수를 놓고 금은으로 장식한다.”라는 기록이 있다.²⁴

삼베, 비단을 비롯해서 가죽을 직물로 사용했으며, 공식적인 모임에 나갈 때는 의복을 모두 비단실로 수를 놓아 입을 정도였다. 수를 놓고, 금은으로 장식한 직물은 무늬를 넣은 것이라기 보다는 무늬없는 직물일 가능성 있다.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 장식할 정도로 직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

백제에서는 세금으로 포, 비단, 실, 삼베[布絹絲麻] 및 쌀 등을 냈다. 직물이 세분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아신왕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패한 후 세포(細布) 1,000필이나 보냈다는 사실에서는 포가 가는 포와 굵은 포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신라에서는 다양한 직물을 생산한다. 가배의 대상이 삼베였으며, 비단은 국초부터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주로 귀족이 비단을 사용했다. 신분제 사회였기에 비단은 그 쓰임은 신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랐다.

22.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23. 『晉書』東夷列傳 辰韓. “地宜五穀 俗饒蠶桑 善作縑布”.

24. 『魏書』권100, 列傳88, 高句麗.

- ① 처음에 그 나라 왕이 여국왕(女國王)의 딸을 맞이해 처로 삼았는데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은 “사람으로서 알을 낳은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 마땅히 이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여자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함에 넣고 바다에 띄워 가는 대로 맡겼다.²⁵
- ② 7년(423) 여름 4월에 남당(南堂)에서 노인들을 대접하였는데, 왕이 몸소 음식을 집어 주고 곡식과 비단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²⁶
- ③ 가을 9월에 왕이 날이군(捺已郡)[譯註 001]에 행차하였다. 군(郡)사람 파로(波路)에게 딸이 있어 벽화(碧花)라 했는데, 16세로 나라 안의 절세미인이었다. 그 아버지가 [딸에게] 수놓은 비단을 입혀 수레에 태우고 색깔 있는 명주로 덮어 왕에게 바쳤다.²⁷

위의 기록에서처럼 비단은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다. ①에서는 비단을 갓난아이를 싸는 싸개보로 활용했고, ②에서는 귀족 노인에게 하사품으로 내렸다. 김유신과 같은 명장이 죽음을 당했을 때는 국가에서 포 1,000필을 하사하기도 했다. ③에서는 왕에게 보내는 여자의 옷과 그녀를 덮는 덮개로 활용했다. 임금의 하사품으로 주로 비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다른 직물과 달리 비단은 그 종류가 다양했다. 그 내용을 아래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자.

진골의 대등은 복두(幘頭 : 頭巾(두건)의 일종)를 임의로 쓰고, 겹옷과 반비(半臂:소매가 짧은 배자)·바지에는 모두 계수금라(罽繡錦羅)를 금하며, 허리띠에는 염문백옥(研文白玉)을 금한다. 목이 긴 신발은 자색(紫色) 가죽을 금하고, 화대(靴帶)는 음문백옥(隱文白玉)을 금하며, 버선은 능(綾) 이하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履]은 가죽[皮(피)]·실[絲]·삼[麻]을 임의로 사용하며, 포는 26승(升:날) 이하를 사용한다.

6두품(頭品) 여인은, 겹옷(表衣)은 다만 중소(中小) 크기의 무늬 능직(文綾)과 거친 견직(絁絹)만을 사용한다. 내의(內衣)에는 용단(罽)과 수놓은 비단(繡錦)과 야초라(野草羅)의 사용을 금한다. 반소매 옷(半臂)은 용단(罽)과 수놓은 나직(繡羅)과 가늘고 성긴 나직(總羅)의 사용을 금한다. 바지(袴)는 용단(罽)과 수놓은 비단 나직(繡錦羅)과

25_ 『三國史記』卷 第一 新羅本紀 第一, 脫解尼師今.

26_ 『三國史記』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訥祗麻立干, 七年夏四月.

27_ 『三國史記』卷 第三 新羅本紀 第三, 炤知麻立干 二十二年秋九月.

세라(總羅)에 금박(金泥)한 것의 사용을 금한다. 목도리(裱)에는 용단(鬪)과 수놓은 비단 나직(繡錦羅)에 금은박(金銀泥)한 것을 금한다. 배자(襟)와 잠방이(襟), 짧은 옷(短衣)에는 모두 용단(鬪)과 수놓은 비단 나직(繡錦羅)과 포방라(布紡羅), 야초라(野草羅)에 금은박(金銀泥)하는 것을 금한다. 겹치마表裳에는 용단(鬪)과 수놓은 비단 나직(繡錦羅)과 세라(總羅), 야초라(野草羅)에 금은박 된 채색비단(金銀泥 纈)의 사용을 금한다. 허리끈(褰)과 옷끈(褰)에는 용단(鬪)과 수(繡)놓은 것을 금한다. 속치마(內裳)는 용단(鬪)과 수놓은 비단 나직(繡錦羅)과 야초라(野草羅)를 금하며, 허리띠(帶)는 금은실(金銀絲)과 공작꼬리(孔雀尾)와 비취털(翡翠毛)로 만든 끈을 금한다. 버선목(襪袖)은 계라(鬪羅)와 세라(總羅)를 금하며, 버선(襪)은 용단(鬪)과 수놓은 비단 나직(繡錦羅)과 세라(總羅)와 야초라(野草羅)를 금한다. 신(履)은 용단(鬪)과 수놓은 비단 나직(繡錦羅)과 세라(總羅)를 금한다. 빗(梳)에는 슬슬전(瑟瑟鉤)을 금하며, 비녀(釵)는 순금(純金)에 은(銀)으로서 새기는 것과 구슬로 꿰는 것을 금한다. 모자(冠)는 세라(總羅)와 사견(紗絹)을 사용하고, 포(布)는 25승 이하를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赭黃)과 자색(紫)과 자색 분(紫粉)과 금가루(金屑)와 홍색(紅)의 사용을 금한다.²⁸

위의 기록을 볼 때에 9세기 신라에서 사용된 비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성골만이 사용했던 계수금라(鬪繡錦羅)로부터, 6두품이 사용하는 무늬 능직(文綾), 거친 견직(絁絹), 6두품이 사용할 수 없는 비단으로 수놓은 비단(繡錦), 야초라(野草羅), 수놓은 나직(繡羅)과 가늘고 성긴 나직(總羅), 수놓은 비단 나직(繡錦羅)과 세라(總羅)에 금박(金泥)한 비단, 포방라(布紡羅), 야초라(野草羅)에 금은박(金銀泥)한 것, 계라(鬪羅)와 사견(紗絹)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구분하면 무늬를 넣지 않은 비단과, 무늬를 넣어 짠 비단으로 우선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 비단의 조직으로 가늘고 성긴 비단과 거친 비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비단에 수를 놓거나 금·은박으로 장식했다. 이외에 포방나, 야초라 등의 비단도 있었다. 이러한 비단은 대부분 성골과 진골에게만 허용되었을 뿐 6두품 이하에게는 대부분 금했다. 6두품은 비단을 겹옷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무늬 있는 비단과 거친 비단만을 사용했다. 이는 다양한 비단은 왕과 귀족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귀족만을 위한 비단의 생산은 민간의 삼베와 포의 생산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28.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

한편 이와는 별개이지만 가야에서는 지방에서 별도로 생산되는 비단도 있었다.

성왕(聖王)이 계시던 국성(國城)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마땅히 나는 그 진영(眞影)을 그리고 향(香)과 등(燈)을 바쳐 그윽한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하고, 교견(蛟絹) 3척을 가지고 진영을 그려 벽 위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켜 놓고 공손히 받들었다.²⁹

위의 기록에 나타난 교견은 남해지역에서 생산된 비단을 의미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비단에 별도의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그 생산이 분화되어 있었다.

당시 비단과 마포의 생산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8세기에 작성된 신라장적이 있다.

- ① 사해점촌 (중략) 말 25마리, 소 22마리, 논 102결, 연수유답 9결2부4속, 밭 62결10부, 마전 1결9부, 뽕나무 1004그루, 백자목 20그루, 추자목 102그루³⁰
- ② 살하지촌 (중략) 말 18마리, 소 12마리, 밭 102결, 관모답 3결60부7속, 연수유답 59결 98부2속, 논 109결5부8속, 마전 1결6부, 뽕나무 1280그루, 백자목 69그루, 추자목 71그루³¹
- ③ (중략) 말 8마리, 소 12마리, 논 71결67속, 관모답3결, 연수유답 68결67부, 밭 58결 7부1속, 마전 1결2부, 뽕나무 730그루, 백자목 42그루, 추자목 107그루³²
- ④ □□□촌 (중략) 말 10마리, 소 8마리, 논 29결19부, 관모답 3결20부, 연수유답 70결 19부, 밭 77결19부, 마전 1결8부, 뽕나무 1235그루, 백자목 68그루, 추자목 48그루³³

29.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第二, 駕洛國記, 제사와 관련한 기이한 사건들.

30. 沙害漸村 (中略) 合馬二十五 合牛二十二 合沓百二結二負四束 烟受有沓九結二負四束 合田六十二結十負 合麻田一結九負 合桑千四 合栢子木二十 合秋子木百二

31. 薩下知村 (中略) 合馬十八 合牛十二 合沓六十三結六十四負九束 以其村官謨沓三結六十六負七束 烟受有五十九結九十八負二束 合田百十九結五負八束 合麻田一結六負 合桑千二百八十 合栢子木六十九 合秋子木七十一

32. (中略) 合馬八 合牛十一 合沓七十一結六十七負 以其村官謨沓三結 烟受有沓六十八結六十七負 合田五十八結七負一束 合麻田一結二負 合桑七百三十 合栢子木四十二 合秋子木百七

33. □□□村 (中略) 合馬十 合牛八 合沓二十九結十九負 以其村官謨沓三結二十負 烟受有沓七十結十九負 合田七十七結十九負 合麻田一結八負 合桑千二百三十五 栢子木六十八 合秋子木四十八

위의 기록에 수록된 마전(麻田)은 마을의 공동경작지로 삼베를 생산했다. 4개촌의 마전은 1결 8부에서 1결 2부로 대부분 비슷하다. 다른 밭과 비교할 때 마전의 비중은 매우 적다. 밭이 62결에서 102결 정도를 소유한데 비해 마전은 1결 남짓이다. 이러한 비중은 삼베의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뽕나무는 4개 촌 모두에서 다른 나무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다. 양잠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백성의 의복에 사용되는 삼베를 생산하는 마전은 그 비중이 적고, 귀족의 옷감인 비단을 생산하는 뽕나무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당시의 의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헐벗은 백성과 비단으로 치장한 화려한 귀족의 의생활을 엿볼 수 있다.

(2) 길쌈의 공동 작업화

：가배(嘉俳)는 보편화된 길쌈의 능력을 확인하는 축제의 현장

집단으로 길쌈을 행하는 것과 관련한 가배는 신라가 고대국가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유리왕 대의 일이다. 신라는 다른 고대국가와 달리 유독 혈연적이고, 혈족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가 발달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가배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가배의 내용을 살펴보자. 신라의 제3대 왕 유리 이사금(儒理尼師今)때 벌인 적마경기(績麻競技)는 《삼국사기》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왕이 육부(六部)를 정하고 나서 이를 반씩 둘로 나누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部) 안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편을 짜서 가을 음력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 큰 부(大部)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도록 하여 밤 10시경에 그치는데, 음력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적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편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사례하였다. 이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모두 행하는데 그것을 가배(嘉俳)라 하였다. 이때 진편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며 탄식해 말하기를 “회소(會蘇) 회소”라고 하였는데, 그 소리가 슬프고도 아름다워 후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 노래를 지어 회소곡이라 이름 하였다.”³⁴

34- 十七造位王既定六部中分爲二使王女二人各率部內女子分朋造黨自秋七月既望每日早集大部

가배는 추석 한 달 전부터 추석까지 나라 안의 여자들이 편을 나누어 길쌈을 하던 풍습[積麻]이다.³⁵ 당시 신라는 왕경인 경주가 6개의 부(部)로 나뉘어져 있던 연합정권이었다. 각각의 개별 성씨집단인 6부는 혈족집단인 동시에 정치체이다. 이들이 둘로 패를 나누어 왕녀 주도하에 길쌈 경쟁을 한 것이다. 6부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셈이 된다. 경제공동체로의 6부는 개별적인 성읍국가가 아니라 왕에 의해 관리되는 연맹체임을 의미한다. 혈연중심의 종적 유대로 인해 나라가 6개의 부파로 나뉘어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폐단을 막아주는 횡적 유대의 씨줄 역할을 한 것이 가배이다. 경쟁을 하는 동안 6부는 두 개의 패로 나뉘어져 공동체별로 연대감을 강화하고, 이웃사촌임을 확인한다. 자연스레 공동체적 일체감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연맹이 견고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경제공동체로써 길쌈이 강조되었을까? 그것은 실제 길쌈이 개인의 노동이 아니라 공동의 노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삼을 키우는 삼밭의 마련부터, 그것을 키우고, 작업하는 일 모두 공동의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6부의 모든 여성이 동원되어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에게 익숙한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직조는 더 이상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일인 것이다.

한편 가배는 한 달 동안 지속되었다. 이 기간은 논농사이든 밭농사이든 농한기이다. 유희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긴 기간 동안 베를 짜는 일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까지도 이 기간 동안 삼을 베고, 찌고, 직조하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 삼의 직조는 오히려 이 기간이 지나 가을부터 겨울, 심지어는 이듬해 봄까지 주로 행한다. 이를 고려할 때에 가배는 삼 수확부터, 베를 짜기

之績麻乙夜而罷至八月十五日考其功之多小負者置酒食以謝勝者於是歌舞百戲皆作謂之嘉俳是時負家一女子起舞嘆曰會蘇會蘇其音哀雅後人因其聲而作歌名會蘇曲(『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儒理尼師今)

35. 가배(嘉俳)의 당시 발음이 '가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부터 중세 한국어의 '가·배'와 지금의 '(한)가위'라는 이름이 온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견은 대략 10월경에 벌어지는 동명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일본의 『일본서기』에 따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기념한 날을 승전기념일로 기념하여 즐겁게 보낸다는 뜻도 있다.(이희승, 『국어대사전』, 가배 항목.)

위해 행해야 하는 모든 공정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가배는 마포를 짠 양의 다과만을 의미하지 않고 삼의 관리를 공동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시절의 ‘삼 관리’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배를 통해 공적(功績)을 가린다는 것은 단순히 양의 다과(多寡)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편은 포를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가배는 조직원들 간의 단합, 직조 기술 등을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했을 것이다. 혈족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립(對立)을 쟁투(爭鬪)를 통해 내제된 긴장과 불안을 소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진편이 부르는 회소의 소리는 통곡의 소리이다. 그 내용이 전하지 않아 무엇을 노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탄식의 애가(哀歌)였을 것이다. 탄식의 애가를 훗날에도 즐겨 불렀다는 사실은 적마 자체가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므로, 이를 패한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가배의 대상은 삼베[麻布]이다. 적마[積麻]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삼베가 그 중심에 있다. 삼베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삼남 이남에 집중되므로 신라의 가배에서 경쟁의 대상이 된 것은 삼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가배는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도구인 베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라 하겠다. 단순한 놀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중요한 경제활동을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당시 신라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느슨한 연맹체적 성격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주에 거주하는 6부의 여성을 총동원하여 공동노동을 하게 하여 내제되어 있던 혈연 중심의 갈등을 무마하고, 패끼리의 연대감을 조장함으로써 강한 연맹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가배의 활성화는 이 시기에 포세(布稅)의 대상이 마포(麻布)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마포는 당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중요한 포세의 대상으로 생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3) 고려와 조선 : 보편화된 직조는 여성의 미덕(美德)으로 칭송

직조가 일반화되면서 여성의 직능으로써의 직조 활동은 중시되었다. 고려시대의 직조는 주로 모시와 마포였다. 서공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에 주목해 보자.

“고려는 모시[苧]와 삼[麻]을 스스로 심어, 사람들이 많이 베옷을 입는다. 제일 좋은 것을 이(苧)라 하는데, 깨끗하고 희기가 옥과 같이 폭이 좁다. 그것은 왕과 귀신(貴臣)들이 다 입는다. 양잠(養蠶)에 서툴러 사선(絲線)과 직임(織紵)은 다 장사치를 통하여 산둥이나 민절(閩浙) 지방으로부터 사들인다. 극히 좋은 문라화룡(文羅花綾)이나 긴사(緊絲)나 비단[錦]이나 모직물을 짜는데, 그동안 여진의 항복한 줄개가 공장[工技]이 많았으므로 더욱 기교(奇巧)하고, 염색(染色)도 그 전보다 나았다.”³⁶

위의 기록에 고려 사람들은 모시와 삼을 주로 옷감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모시와 삼의 직조는 매우 발달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서공이 양잠에 서툴러서 비단은 다 산둥이나 민절 지방에서 사들였다고 되어 있다. 이 글이 송나라의 사신의 글임을 감안할 때에 ‘서툴다’라는 표현은 중국에 비해 서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단의 생산이 모시와 삼에 비해 뒤떨어 졌음은 분명하다. 스스로 심어 길쌈을 한 모시와 삼을 왕과 귀족이 모두 입었다는 사실은 통일신라의 상황과는 대조가 된다. 왕과 귀족이라는 신분에 따라 복색을 금지하던 시대에 그들의 신분을 특화시키는 물건이 비단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비단을 신분의 상징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의생활에 있어서는 평준화가 된 셈이다. 귀족이 비단을 즐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단의 생산이 민간에서 집중되지 않은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단을 전혀 생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의 기록에 ‘극히 좋은 무늬 있는 비단이나 붉은 실, 비단 등은 직접 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질의 비단을 짜는 특화된 기술은 있었으나 민간에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진인이 비단을 잘 짰다는 사실은 여러 각도로 해석된다. 비단 생산이 민간에서 별반 이루어지지

36. 『선화봉사고려도경』제23권, 雜俗2, 土産條. 민절지방은 지금의 절강성과 복건성 지방으로 중국의 남부지방이다.

않았기에 여진인을 데려다 쫓다고 볼 수도 있고, 여진인의 특화된 기술을 이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고려시대 정부에서는 중국에 조공하기 위해 비단을 많이 생산했다. 국가 차원의 비단 생산은 조선에 이르도록 줄곧 그 수요가 늘었다. 원에 뒤이어 명나라에도 비단을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명나라 조공용 명주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의 관청으로 하여금 비단실을 생산해 바치도록 하였다. 각도, 각읍의 잠실에서 공납한 비단실이나 누에고치는 중앙의 해당 관청에 소속된 경공장들이 명주를 짤 수 있는 실로 만들었다.³⁷ 지방에서 생산한 것은 비단실이었고, 그 직조는 한양의 경공장이 맡았다. 경공장은 문양을 넣어 짜는 능라장과 문양을 넣지 않고 가늘고 섬세하게 짜는 방직장이 있을 정도로 그 직조 능력이 분화되어 있었다.

중종 대에 이르면 조공용으로 사용되던 ‘가는 명주’가 민간에 유포되어 사치풍조를 조장했다. 16세기에 관용 수공업체제의 쇠퇴로 인해 사적 수공업의 진전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견직물의 수요 증대에 따라서 견직물이 상품화와 저변화가 진행되었다. 소농민의 부업으로 견직물 직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비단이 서민화 되었던 것이다.

비단짜기까지 민간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모시와 삼의 비중은 여전히 컸다. 모두 여성의 노동으로만이 이루어졌다. 특히 성리학이 발달되어 내외법(內外法)이 마련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집안으로 고착화되면서 여성 노동인 길쌈은 단순한 노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기준으로 변화, 발전한다. 여성의 성품, 인품 등의 척도로 길쌈이 부각되기에 이른다. 길쌈 솜씨는 여성의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질로 평가되었다. 전근대 사회 내내 여성의 자질은 바느질 솜씨나 길쌈 솜씨로 가늠했다. 바느질 솜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곱게 짜진 옷감이 필요하다. 때문에 바느질 솜씨 이상으로 길쌈 솜씨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여성의 덕목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길쌈과 바느질은 빠지지 않았으며,

37. 원나라와 명나라의 비단 조공관련한 내용은 장경희, 『명주짜기』, 화산문화, 2002의 내용을 요약했다.

여성의 미덕(美德)으로 강조되었다. 중요한 가내수공업으로 간주되면서 길쌈은 개인의 솜씨를 벗어나 그 사람의 성품, 자질 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 것이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야 하며, 길쌈을 잘해야 좋은 여성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부인들은 길쌈에 전념하지는 않았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여성의 예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① 비단을 계란처럼 반지르르하게 표백하고, 베를 매미날개처럼 곱게 다리는 것은 사치를 위함이 아니라 공력을 드리는 것이다.
 - ② 실을 뽑고, 솜을 타며, 옷을 다리고 비단을 표백하는 일은 비록 몸종이 있더라도 손수 익혀야 한다.
 - ③ 부인으로서 길쌈하고 음식을 만들 줄 모르면, 마치 장부로서 시서와 육예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기』 내칙편에는 “베를 짜고 띠를 땀고 바느질을 한다.”라고 일컫고, 『주역』에는 “규문 안에 있으면서 음식이나 만들면 貞吉할 것이다.”라고 일컬었다.
 - ④ 요즈음 풍속에는 서울의 부인들은 베 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대부의 부인들은 밥 짓는 것을 알지 못하니, 모두 비루한 풍습이다. 베 짜고 밥 짓는 일을 수치로 생각하니, 이들을 부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20. ⑤ 대체로 대문에 들어설 때 안에서는 물레질하고, 베 짜는 소리가 나고, 밖에서는 시를 외고 글을 읽는 소리가 나면 그 집안이 잘 다스려짐을 알 수 있다.

이덕무가 살던 18세기에 여인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덕무는 여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베짜는 것’과 ‘밥 짓는 것’을 들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가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대부 여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수치로 여겨 행하지 않았다. 이는 길쌈이 지역적, 계층적으로 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사대부 여인 특히 한양에 거주하는 여인들은 길쌈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다. 이덕무는 이러한 일을 여전히 여성의 일로 간주했다.

당시 여성의 가사 노동으로 물레질하기, 베 짜기가 최고였지만 이외에도 실을 뽑고, 솜을 타며, 옷을 다리고, 비단을 표백하는 일은 여성이 손수 익혀야 하는 일로 중시했다. 이러한 이덕무의 주장에서 당시 여성들의 길쌈이 주로 무명과 관련 깊다

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실을 뽑고, 솜을 타는 일은 모두 무명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이다. 비단과 관련해서는 표백하는 것만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비단직조는 반가 아녀자의 일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2. 길쌈관련 민속

길쌈이라 할 때 흔히 베[무명·비단 등]를 직조하는 현상만을 일컫는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길쌈은 식물의 낱알을 땅에 심는 것으로부터 베어서 그것을 찌거나 삶고, 짜고, 엮고, 짜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일중 일부는 남성이 행하기도 하고, 개인이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 과정을 볼 때 대부분이 여성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³⁸

이러한 길쌈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속담과 노동요, 무명·비단·삼베 짜기를 살펴 보았다.

1) 속담(俗談)에 담긴 길쌈³⁹

길쌈과 관련한 속담은 그 수가 매우 적다. 우선 길쌈 솜씨와 관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석새 베에 열새 바느질’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성글고 굵은 낱실 베에 열새 뜸의 바느질을 할 정도로 솜씨가 좋음을 의미한다. 이는 바느질을 특별히 잘하는 것을 칭찬할 때 사용한다.

반면에 일솜씨가 매우 거칠고 엉성한 사람을 빗대어서는 ‘석새베에 씨도 안든다’라고 한다. 성글고 굵은 낱실 베에 가로 들어가는 씨실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형

38- 여성의 길쌈은 다양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시대 왕비의 역할로 부각되었던 선잠단의 누에치기와 관련한 비단을 짜는 것을 비롯하여 무명짜기처럼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식물의 생장의 상하한선과 관련하여 자연스레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 모시짜기, 삼베짜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직조를 하던 땃땃이짜기, 춘포 짜기 등도 있다.

39- 속담은 『한국속담대사전』의 것을 추출했다.

편없는 상태를 말한다.

‘가는배 낳겠다’는 속담도 있다. 이는 솜씨가 거칠고 무딘 사람이 솜씨 발휘를 하겠다고 터무니없이 나설 때 비웃는 말이다. 길쌈 활동은 모든 솜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솜씨로 여겨졌기에 이런 속담도 만들어 질 수 있었다.

“길쌈잘하는 첩”이란 속담도 있다. 첩이란 본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사랑 속에 기생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첩이 길쌈을 잘할 리 없다는 데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헛되게 바라는 경우’를 이른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술 샘 나는 주전자”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길쌈은 여자의 성품 혹은 솜씨를 의미하는 척도로 활용되었다.

2) 노동요(勞動謠)로 본 길쌈

길쌈과 관련한 민요는 길쌈을 하는 행위를 묘사한 것과 여성의 힘겨운 노동의 현실과 실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중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후자이다. 길쌈을 하는 동안 고통을 잊고자 신세한탄의 일종으로 노래를 부른다. 민요 혹은 노동요에는 길쌈과 관련한 힘든 시집살이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룬다.

길쌈이라는 여성 노동의 힘겨움과 시부모, 남편 등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많이 묘사되어 있다. 시집살이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일 년 내내 길쌈과 바느질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의 가사노동은 물론이고, 대가족의 식구들의 입성을 수시로 마련해야 했기에 여성은 손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다. 여성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일고생’이었다. 밀도 없고 끝도 없는 일고생과 관련한 노래가 민요 중 가장 많다.

여성의 노동요로는 ‘물레노래’, ‘삼삼기노래’, ‘베틀노래’, ‘방아노래’, ‘바늘노래’, ‘부엌일노래’, ‘빨래노래’, ‘맷돌노래’, ‘명따기 노래’, ‘나물노래’, ‘밭매기 노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일노래가 많다는 것은 여성의 일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⁴⁰

이중 길쌈과 관련한 노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민요에는 시집살이의

고난이 베틀의 움직임과 그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소실많은 도투마리 / 누우실랑 일어나실랑 / 소실하나 줄굴라고 /... / 절로 굶은 신랑 그는
/ 헌신짝을 목을 걸고 / 오락가락 잘두노네(안동군 서후면 민요)⁴¹

식구가 많아서 이를 줄이려고 하는 가난의 고난이 ‘소실하나 줄굴라고’에 들어있다. ‘절로 굶은 신랑 그는 헌신짝을 목에 걸고’라는 표현에는 고된 일로 자연히 굶어 버린 허리를 이끌고서 계속 험한 일을 해야 하는 몸고생이 형상화되어 있다.

아래의 삼삼기 노래는 시집가기 전의 처녀들의 길쌈의 고통이 담겨져 있다.

영해영덕 진삼가리 / 진보청성 뻗쳐놓고 / 올라부지 관솔놓고 / 우리엄마 밤참하고 /
밤새도록 삼은삼이 / 정낭질에 모지랜다(안동군 북후면 민요)

온 식구가 달려들어 정성껏 삼삼기를 도와주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엄마는 밤참하고, 밤이 새도록 삼을 삼았건만 변소길[정낭길]까지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그 양이 적다는 뜻이다. 비록 시집가기 전의 친정에서의 삼삼기이지만 이러한 실정은 시집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졌을 것이다. 삼 삼기는 집안 여자들의 노동이 집약되어야만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친정은 그나마 마음이라도 편했겠지만 시집은 불편한 공간이므로 그 일이 더욱 어렵게만 여겨졌을 것이다. 밤을 삼아 삼을 삼아야 하는데, 관솔 불을 놓아 줄 사람도 없고, 밤참을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 모두 자신의 몫이 되고 만다. 때문에 시집살이의 고생이 삼삼기와 관련해서 수시로 언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길쌈과 관련한 시집살이는 수많은 일감과 사투인 ‘일고생’과 밤을 새워야 하는 ‘잠고생’이라 하겠다.⁴²

이처럼 여성의 노동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길쌈이므로 과거에는 며느리감을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이 길쌈 솜씨였다.

40- 임재해, 『여성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와 여성생활의 향방』, 『한국민속학』21, 1988, 219쪽.

41- 임재해, 『여성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와 여성생활의 향방』, 『한국민속학』21, 1988, 221쪽.

42- 임재해, 『여성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와 여성생활의 향방』, 『한국민속학』21, 1988, 223쪽.

그러나 이러한 일에도 즐거움은 있다. 물레노래에 잘 담겨져 있다.

- ① 부르릉 부르릉 물레질 / 늙으신네 노리깥래 / 반뜩반뜩 침자질 / 새각시방에 노리깥래(안동군 임동면 망천 2동 안말순)
- ② 보릉보릉 물레질 / 늙으신네 노르개 / 송닥송닥 바느질 / 젊으신네 노르개(봉화군 봉화읍 민요)
- ③ 저마음에 손에 들고 / 들에가는 이재미로 / 허우허우 매다보니 / .. / 고상두야 낙을삼고 / 그것두야 재미라고 / 이리저리 다했더니(성균관대 국문학과, 제2차 안동문화권학술조사보고서)

위의 물레질 소리는 물레질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물레질을 할 때는 혼자서 하기 보다는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행하는 것이 일췌였다. 이때는 밤참도 준비되고 이야기와 노래도 주고받으며 일의 재미를 한껏 즐기게 된다.

이와는 달리 바느질은 힘든 노동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소일거리이기도 하다. 밤을 새워 식구들의 옷을 짓는 바느질은 때로는 소일거리이자 노리거리가 될 수 있다. 임을 생각하며 그의 옷을 짓는 상황은 모처럼 즐거운 마음이 되는 시간으로,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

또한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된 시집살이 가운데 낙이고 재미이다. 여럿이 작업을 하는 길쌈 두레의 순간은 그 자체가 일시적이거나 시집살이의 해방 공간이다. 타율적인 삶을 사는 여자들의 일상에서 유일하게 자율적인 순간이며, 일의 성과를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의 순간인 것이다.⁴³

이와 관련해서 모시를 생산하며 부른 노래의 일부분을 보도록 하자.

추야공산 긴긴밤을 찢지바탕 마주보며
무릎비며 삼은모시 서울님을 줄것인가
오동잎이 울어떨때 감골낭군 줄것인가
편지왔네 편지왔네 강남낭군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들고 두손으로 펼쳐보니

43- 임재해, 「여성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와 여성생활의 향방」, 『한국민속학』21, 1988, 228쪽.

시앗죽은 편지여라 옳다고년 잘죽었다
고기반찬 비리더니 소금반찬 고습구나

이는 모시를 생산하는 여인네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모시 작업을 하면서 여인네들은 일 보다는 자신의 한탄스러운 삶을 읊고 있다. 타향에서 시앗[첩]을 보아 살고 있는 강남낭군을 입히려고 밤을 새워 모시를 짜고, 모시를 비비는 여인네의 한스러운 삶이 담겨 있다.

3. 여성노동의 축제화 :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된 길쌈두레

여인들의 노동은 대부분 가사 내에 집중된다. 그러나 길쌈은 마을 내의 소규모의 조직 혹은 마을 단위로 행해진다. 마전(麻田)은 통일신라시대에도 공동으로 경작되었다. 삼밭은 물 빠짐이 좋은 곳이어야 하므로 적절한 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개인 소유의 논과 밭에 삼베를 심기 보다는 공동소유의 토지에 공동경작해서 공동 작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농경지가 적으므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노력이었다.

공동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비단 경작지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삼이나 모시 등은 자급자족하므로 많은 양을 생산하지 않는다. 삼 손질이 워낙 여러 차례 손이 가므로 많은 양을 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적정량만을 생산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기 위해서 집집마다 별도의 삼밭을 경작하고, 개별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과잉생산 뿐 아니라 노동력 낭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삼은 자급자족할 정도만을 생산하고, 개별 노동이 가능한 다른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에 삼, 모시 등은 오랜 기간 동안 공동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놀이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일과 놀이가 어우러진 우리네 농촌의 삶에서 여성노동이 공동화된 길쌈두레는 작은 놀이판을 지닌 일꾼의 모임인 셈이다.

두레는 주로 무명과 삼과 관련해서 이루어졌기에 이와 관련한 두레를 ‘명두레’ 혹은 ‘삼두레’라 부른다. 충청도에서는 두레라 하지만,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둘게’, ‘들게’라 한다. 모시와 관련해서 여럿이 모여 공동 작업하는 공간을 ‘모시방’이라 한다.⁴⁴

길쌈 두레는 소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여럿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이 누리는 유일한 놀이의 순간이다. 또한 여성들이 일의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본인의 일손이 하나의 작품이자 성과물로 나타나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동안 바쁜 일손의 놀림과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래는 하나의 축제의 현장을 만든다. 홀로 하는 놀이가 아니라 여럿이 같은 일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 내는 현장인 것이다.

보통 길쌈을 공동작업한다는 뜻에서 ‘길쌈두레’라 한다. 길쌈의 대상에 따라 ‘모시두레’ 혹은 ‘삼두레’라 한다. 이때의 두레는 하나의 마을이 대상이 되지 않고 6가구 정도가 하나의 두레패를 결성한다. 삼베생산지인 안동의 금소동의 경우 6가구 두레를 조직하여 삼밭 면적 서 마지기(600평)에 삼을 경작한다. 가구당 닛 되지기(100평)의 수확량인 15단의 삼을 분배받는다. 좀 적게 수확하고자 할 때는 10가구가 두레를 조직하여 가구당 9단씩을 분배받기도 한다. 분배받은 삼은 공동으로 찌낸다. 삼굿이라 하여 임시로 만든 구렁이에 불을 때서 찌낸다. 수십 명이 공동으로 작업해야 하므로 두레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⁴⁵

일제강점기에 큰 솔이 보급되어 솔 주인이 솔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삼을 찌주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땅을 파서 만든 ‘삼굿’에 삼을 찌 내는



< 그림 44 > 기산풍속화 중 길쌈하는 여인들
(《복식》 빛깔있는책들, 107쪽)

44- 이경엽, 「길쌈두레의 구성과 기능」, 『한국민속학』25, 1993, 240쪽.

45- 임재해, 「안동의 길쌈 전통과 두레공동체」, 『민속학연구』, 1989, 36쪽.

것이 보통이었다. 그 이후의 공정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길쌈의 순간이다. 찢은 삼을 벗기고, 훑고, 짜고 삼고 짜는 작업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여름부터 온 겨우내, 봄까지 계속된다. 개인적인 노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므로 일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끼리 또 래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일을 한다. 이때 길쌈노래, 삼삼기 노래 등을 부른다. 전 과정 중 가장 힘들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삼삼기이다. 힘들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두레삼을 삼기 일쑤이다. 10명 안팎의 가까운 이웃들이 세대별로 한 집에 모여서 공동으로 삼을 삼는데, 안동에서는 이를 ‘두게삼 삼는다’ 또는 ‘둘게 한다’고 한다.⁴⁶

한산에서는 모시를 작업하기 위해 모이는 방이라 하여 ‘모시방’이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공동작업을 하면 일에만 전념할 수 있으므로 노동능률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옛날이야기를 하고, 노래도 하며,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을 수 있으므로 고달픔도 잊고 잠도 쫓을 수 있어, 일이 아닌 놀이로서의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작은 공동체의 축제 현장인 것이다.⁴⁷

일속에 삶이 묻어나는 노래가 있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길쌈 두레 현장 그 자체가 작은 놀이판인 것이다. 여름철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둥글게 둘러 앉아 길쌈을 하는데, 관솔가지를 꺾어다가 불을 피워 모기를 쫓는다. 강냉이, 감자, 참외, 수박 등의 제철음식을 밤참으로 낸다. 밤참도 두레꾼들이 돌아가며 준비한다. 한 집의 일이 끝나면 그때마다 일을 끝낸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작은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두레일꾼의 일이 끝날 때마다 작은 잔치는 지속된다. 노동의 현장이 축제의 현장이 되는 참된 모습이다. 망중한(忙中閑)처럼 바쁘게 놀려야 하는 일의 현장에서 노래와 휴식이 어우러져 충분한 기능을 한다.

두레는 노동이 중심이다. 노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초저녁잠을 견디기 어려울 때는 서로의 머리꼬리를 묶어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모두가 일어나도록 했다. 이는 함께 삼삼기를 하자는 두레꾼들의 공동체 의식

46- 임재해, 「위의 글」, 1989, 46쪽.

47- 필자조사, 2006년 8월.

을 유지하면서 잠에 빠져 새벽까지 계속 자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남 몰래 일어나서 자기들보다 삼을 더 많을까 하는 경쟁심이 내제되어 있다. 공동 작업은 삼을 자도 함께 자고, 일을 해도 함께 하도록 규칙화되어 있던 셈이다.⁴⁸

이처럼 행해진 길쌈두레는 일의 고통을 잊게 하고, 시집살이의 고달픔도 잊게 하며, 별도의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시간이다. 세상 근심 잊고 또래끼리 어울려 시집살이 노래로 한풀이를 하고, 시어머니 흉도 잡으며 살림살이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는 즐거운 시간인 것이다. 고되고 힘든 시집살이로부터 해방된 순간이고, 힘든 일의 하중을 경감하는 효과까지 낼 수 있는 해방공간이었던 것이다.

48- 임재해, 『위의 글』, 1989, 47쪽.

〈첨부 자료〉 길쌈과 관련한 민요

1. 왕챙이 물레 잣는 노래

(명주실 가닥을 왕챙이 물레에 돌려 명주실의 양을 불리면서 부르는 노래)

자새대롱 단형제 달달달 잘도 돈다.
 왕챙이대 사형제 빙글빙글 잘도 돈다.
 부름부름 왕챙이 늙으신네 노리개
 오롱오롱 왕챙이 아가씨네 노리개
 돈다돈다 왕챙이 인기나게 잘도 돈다.
 나왕챙이 도는양은 하늘이라 문산선녀
 장매수를 가둔듯다 저명주실 귀경하소
 거미줄 모양같다.

(장경희, 『명주짜기』, 화산문고, 2002, 120쪽의 성주 두리실 마을의 왕챙이 물레 잣는 소리)

2. 물레질하기

(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을 풀어서 물레로 가락이나 꾸리에 감을 때 부르는 노래)

자외선 궁글들은 너넝봉에 꽃이레라
 물레살 팔형제는 내외선을 둘러내어
 건구지라 걸린양은 이아래라 칠팔때에
 사방뭍은 걸린듯네 물렛대라 두린양은
 병영수 비가와서 하얗땅 무지개는
 서복을 두른 듯 네물레도 놓인양은
 고지개돌 놓인듯네 게머리라 놓인양은
 은도사 노사중이 고를 지어 놓인듯네
 쇠철사 가락소리 썩이야 외기리기
 벗부르는 소리로세 메영가락 노는양은
 초생달 불근숫아 달에반점 실고가는듯네

(임동권, 『한국민요집』5, 집문당, 1979, 172쪽, 물레노래(문경지방))

오르릉오르릉 물레질 갈밭에갈갈 솔밭에솔솔
 이물레를 찾아가주 비를 짜서 이비를 말라가주 매여서
 누구를 해여주꼬 돈으팔려서 비를까기주구
 장에가서 팔아가주 자여들 믹일라구
 그러구려 자여들도 헌걸로 해입히고
 그러구려 살았더라 허송세월 다보내고
 인지는 가이없네 눈도어둡고 귀도어둡고
 가이없이 되었구나 허송시월 다보냈네
 히던가심 황금되고 껌든머리 백발되고
 이제 웬일이냐 황천길가기가 유식구나
 (임동권, 『한국민요집』3, 집문당, 1975, 148~149쪽, 물레노래(성주지방))

3. 베틀노래 (명주나 무명을 베틀에서 짜면서 부르는 노래)

비단짜는 / 구경하자
 하비단을 / 뭘할랑가
 우리형님 / 시집갈때
 가매허리 / 돌려주고
 우리오빠 / 장가갈때
 가매휘장 / 돌려주고
 하비단짜서 / 뭘할랑가
 우리머슴 / 나갈적에
 석자수건 / 해줄라네
 우리어머이 / 죽거들랑
 앞산에도 / 묻지말고
 뒷산에도 / 묻지말고
 해당앞에 / 묻었다가
 해당꽃이 / 피거들랑
 우리동상 / 꺾어주세
 (『한국구비문학대계』7집 8책, 866~867쪽, (경북 원장 1리 뒤뜰, 천혜숙, 강애희 조사, 구연자 길용이))

옥난간에 베틀놓아 / 앞두다리 도아놓고
 뒷다릴랑 낫게놓고 / 도투마리 엮어놓고
 구름에다 잉애걸고 / 두루명주 짜내보세
 안개 속에 앉은 품이 / 양귀비의 냇이로다
 짚신일랑 발에 걸고 / 북바디집 마주잡고
 부티허리 두른양은 / 매봉재라 높은봉에
 허리안개 두른 듯이 / 휘영청 감돌았다
 북이라 노는양은 / 꾀꼬리가 둥지찾아
 버들가지 넘나들 듯 / 바디집 치는양은
 해인사 절지을세 / 연목거는 소리로다
 잉땃대는 삼형제 / 눈썹대는 홀아비
 세모졌다 버기미는 / 올올이 갈아놓고
 눈썹노리 잠긴양은 / 강태공이 낚시대를
 위수강에 던지듯이 / 시치미라 갈린양은
 칠월이라 칠석날에 / 견우직녀 이별하듯
 밀침대 치치는양 / 정든임과 말다툼뒤
 그렇지도 앓으면서 / 등을 밀어 밀치는 듯
 가리새 저는 양은 / 청룡황룡 굽니는 듯
 용두머리 우는 양은 / 새벽서리 찬바람에
 외기러기 짝을 잃고 / 벗부르는 소리로다
 도투마리 노는 양은 / 늙은신네 병일런가
 심심하면 누웠어라 / 누웠다가 앉았어라
 절로 굶은 신나무는 / 헌신짝에 목을매고
 땡겼다가 물러서며 / 꼼짝없이 늙어간다.
 말코대에 감은명주 / 초례청에 새아씨가
 두손목을 감추는 듯 / 야금야금 저칫발은
 남원아전 이방이가 / 갈짓자 걸음걸이
 오뉴월 삼복더위 / 명주한필 다짜내어
 옛새삼베 고쟁이가 / 땀주머니 되었고다
 액미간에 고인땀은 / 목밑으로 시냇물가
 등에서 솟은땀은 / 안동포 낚은 적삼

갈기갈기 다적시고 / 살갓이 되었고도다
 허리에 감긴우리 / 후유하고 풀어놓고
 은장도라 드는칼로 / 어석어석 끊어내어
 은척에도 마흔자 / 늦척에도 마흔자
 (장경희, 『명주짜기』, 화산문고, 2002, 211쪽의 안동 권씨 덕 백문기 씨가 소장하고 있는
 베틀노래)

월궁에 노던선녀 / 노자하니 심심하야
 금수한필 찢라하니 / 베틀없어 못짜겠다
 서울이라 다달아서 / 도대목을 잡아다가
 달가운데 계수나무 /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비어내어 / 동쪽으로 번은가지
 굽은나무 굽다듬고 / 잣은나무 잣다듬어
 얼른뚝딱 베틀을 / 베틀한쌍 걸었더니
 좌우를 둘러봐야 / 베틀놀데 전혀없네
 옥난간이 비였거늘 / 옥난간에 베틀놓아
 베틀다리 돌우놓고 / 앉을까라 더져놓고
 베오리라 가는양은 / 뒷동산 왕거미가 / 줄을쳐서 터진듯고
 부티라 두른양은 / 용문산에 실안개나 / 두린듯고
 말코라 차인양은 / 우빙사 자빙사에 / 패동개나 차인듯고
 잉애타 노는거는 / 청도황도 손에들고
 짐장군 노는데와 / 이무용두 나는듯고
 바디집 치는소리 / 백옥산 깊은 골에 / 별격으로 우린듯고
 북이라 다돈양은 / 벽랑강에 금오리가 / 알을품고 나른듯고
 지질개라 치는 양은 / 하늘에 나돌아 / 비오는날 시월이라
 최활이라 가는 양은 / 남산에 무지개가 / 북해로 이은듯고
 버기미라 누운양은 / 거우에 앉은임이 / 낭군에 자위하고
 눈썹대 노는양은 / 영금에다 옥을매어 / 지두방에 나는듯고
 고다눈살 놀부대는 / 강태공의 낚싯댄가 / 낚시에다 피운듯고
 용두머리 우는양은 / 구월이라 광중에 / 워디죽은 무덤걸고
 배비라 드는양은 / 구시월 시단풍에 / 떡가랑잎 드는듯고

금수한필 다짚더니 / 은장두라 드는 칼로 / 어리설빅 목을 비어
반달겉은 큰솔에다 / 어리설적 삶아다가
뒷넷물에 씻어다가 / 앞넷물에 행귀내어 / 백설같이 바랬더니
킴킴한 그뭍밤에 / 앞치마를 지었더니
흔솔없이 지녀다가 / 용우줄에 걸어놓고
입어보자니 몸때묻고 / 만져보자니 손때묻어
들며보고 날며보고 / 눈살맞아 다 떨어진다.
(임동권, 『한국민요집』3, 집문당, 1975, 122~123쪽, 베틀요7.(성주지방))

4. 명주 팔아서 가게에 보태거나 옷을 만드는 노래

처제처제 키큰처제 / 베잘짠다 소문났네
그베짜서 누굴줄래
우리오빠 장가갈 때 / 가마휘장 둘러줄래
그남치기 누굴줄래
이내적삼 비었드니 / 깃도없고 셔도없네
앞집에야 내동모야 / 뒷집에야 내동모야
깃한자루 셔한자루 / 꺾여다고 꺾여다고
맨드라미 깃을달고 / 봉숭아라 셔을달아
입어보니 때가묻고 / 벗어보니 입구접고
만치다가 다떠랴네
(임동권, 『한국민요집』2, 집문당, 1974, 145쪽, 베틀요4.(성주지방))

선잠단과
기찻길이야기

선잠단에 관한 기억들



선잠단에 관한 기억들

최 선 경
여성문화유산연구회

요즘은 축제나 문화행사가 넘쳐난다. 축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웬만해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주관단체나 기관에서 아무리 열심히 행사를 준비해도 주민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행사들이 많아졌다. 선잠단 사업 역시 그렇게 될 것이 가장 우려스러웠다. 주관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자칫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잠단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성북구 주민들은 선잠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선잠단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오래된 토박이가 많은 곳으로 알려진 성북동에 당연히 이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성북의 지역신문, 현수막 등의 홍보를 통해 ‘선잠단과 길쌈’에 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주민제보를 기다렸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로 아무것도 접수되지 않았다. 몇 분의 제보가 있었지만 선잠단에 관한 결정적인 제보는 아니었다. 굳이 선잠단만이 아니라 복개되기 이전의 성북천 일대에서 놀던 기억이나 사진이라도 찾았지만 그것은 구청이나 성북구사진가회에서도 구하기 어려웠다. 왜일까?

주민들이 선잠단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1차 설문조사는 8월 19일 ‘선잠단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였다. 37명이 응답하였는데, 대다수가 선잠단이

뭐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다. 설명회에 참가한 분들 자체가 이미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분들도 1993년부터 시작한 선잠제향과 현재 선잠단의 모습을 기억할 뿐이지 그 이전의 기억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기억을 찾아 나서기로 하였다.

성북동에 오래사신 노인층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기로 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한달여에 걸쳐 여성문화유산연구회 회원과 선잠단 서포터즈가 지역의 노인정이나 길거리, 상가, 학교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여명을 만날 수 있었으며 중요한 제보도 나왔다. 추가로 객관식 설문조사까지 포함하여 모두 100여명의 주민조사가 집계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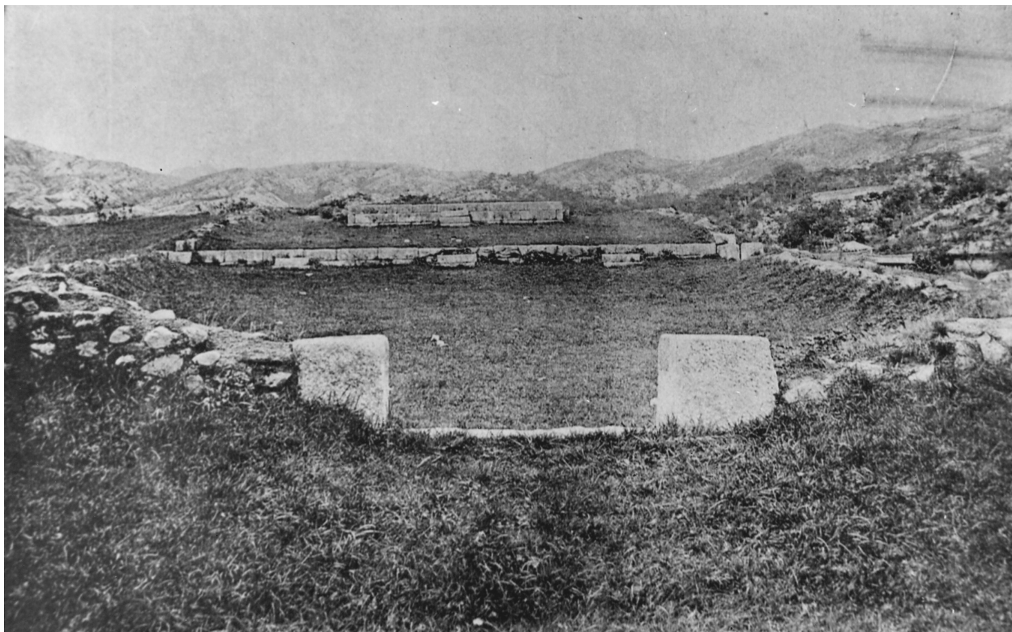
객관식 설문조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선잠단을 잘 모른다’로 일관하기 때문에 조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조사대상은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대부분 선잠단을 잘 모르고 있었고 50대 이상은 선잠단을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어 제향에도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오래 산 주민이 많은 성북동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주거하고 있는 토박이 주민일수록 지역행사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참여하고 있었다. 반대로 새로 이사 왔거나 젊은 층들은 대부분 거의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다. 애항심은 거주기간과 나이에 비례하는 걸까? 정책 관계자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면접조사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 실시했다.

1. 선잠단과 양잠에 관한 기억
2. 마전터와 개천에 대한 기억
3. 길쌈에 대한 기억

1. 선잠단과 양잠에 관한 기억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한잠사회와 청원 잠사박물관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는데, 다행히 1910년대 선잠단 사진을 구할 수 있었다. 나무는 하나도 없는 황무지 상태지만 제단이 남아있고 주춧돌이 남아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보다는 많이 넓어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은 언제 어떻게 조성된 것일까? 성북초등학교와의 사이에 난 도로는 당시 사진에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길은 언제 난 것일까? 선잠단은 국가적 행사였기 때문에 제단 주변이 현재보다는 넓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는 바로 옆에 도로가 나있고 성북초등학교와 어색하게 끊어진 느낌이 들었다.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1910년대 선잠단

선잠단에 대한 기억

송대식 전 국회의원(50세)은 성북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녔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본토박이다.

“성북구의 생활수준은 극과 극이다.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한쪽은 극빈층(대한민국의 마지막 0.5% 빈곤층)이, 다른 한쪽은 최고 부자들(0.1%의 부자들)이 살고 있다.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는 이런 성북동의 현실을 노래한 슬픈 이야기다.”

“선잠단 옆길은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길이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도 관심이 없었다. 관심가진 것이 요즘... 선잠단 옆에 독서실(현재 부대찌개 집)이 있어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선잠단으로 넘어가 담배피기도 했다(저는 아니구요. 웃음). 당시 선잠단은 풀숲에 우거져 있어서 뭘지도 몰랐고 무덤으로 알고 있었다.”

이영순(66세, 홈페이지 운영)

“성북동에서 60년을 살았다. 예전 선잠단의 모습은 나무도 없었고 약장수들이 약 팔고 활동사진도 보여주곤 했다. 그냥 공터인줄 알았다. 뽕나무는 전혀 없었고 성북 초등학교와의 사이에 작은 오솔길이 있었다.”

백영애 (50세, 성북 감떡집)

“30년 넘게 살았다. 선잠단이 예전에는 텃밭로 덮여있었다. 선잠단 앞에 집이 있어 작은 골목길로 돌아서 올라갔다.”

성북동이 가장 깨끗하고 도둑도 없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성북동에 살기로 했다는 하두호 할아버지(83세, 성북2동 경로당 회장)는 1952년부터 이곳에서 살았다.

“제사지내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된다. 1993년부터이고 제관으로도 참여했다. 선잠단은 양잠을 권장하기 위한 곳이다. 뽕나무는 근래에 심은 것이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허가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선잠단 옆에는 도로가 없었다. 한 블록 아래 한옥집이 있는데, 길이 있었다. 70년대 길을 뚫었다. 간송 미술관에서 살았는데도 특별한



것을 몰랐다. 제단인줄 몰랐고 선잠제를 지내기 시작한 후에나 알게 되었다. 양잠하던 곳은 없었다.”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도 옛날 선잠단은 잘 모른다거나 기억을 해도 위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선잠단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선잠단지는 1993년 5월 제향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덩불에 싸여있거나 공터이거나 묘지인, 알 수 없는 곳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10월 [보물 제17호]로 지정되었고 해방 후 1961년 11월에는 [선잠단지] 표지석이 세워졌고 1963년 [사적 제83호]로 지정되었지만 주민들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70년대까지 선잠단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 묻혀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선잠단을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선잠단의 뽕나무

선잠단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이다. 그 이전의 뽕나무가 없었다는 증언은 정확했다. 뽕나무가 심어진 것은 바로 1976년이기 때문이다.

선잠제 보존위원회 회장이며 18년 동안 보존회 활동을 해온 현금동(68세, 쌀집 운영)씨와 페인트점을 운영하는 정동규(59세)씨를 만나면서 정확한 상황을 듣게 되었다.

“이학수라는 분이 있었다. 5년전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있었으면 100세정도 되었을 것이다. 70년대에 그 분이 구청에서 선잠단의 유래를 듣고는 왕실에서 제사지내는 중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선잠단 주변의 덩불을 치고 정리했다. 이학수씨가 선잠단을 정리하고 잘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청에서 식목일 행사로 뽕나무를 심게 했다. 막걸리를 내줬다며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뽕나무를 심었다. 원목은 구청에서 구입해줬다. 그후 구청에서도 이학수씨한테 선잠단을 관리하게 하였다. 특별한 보수는 없었다. 당시 선잠단에는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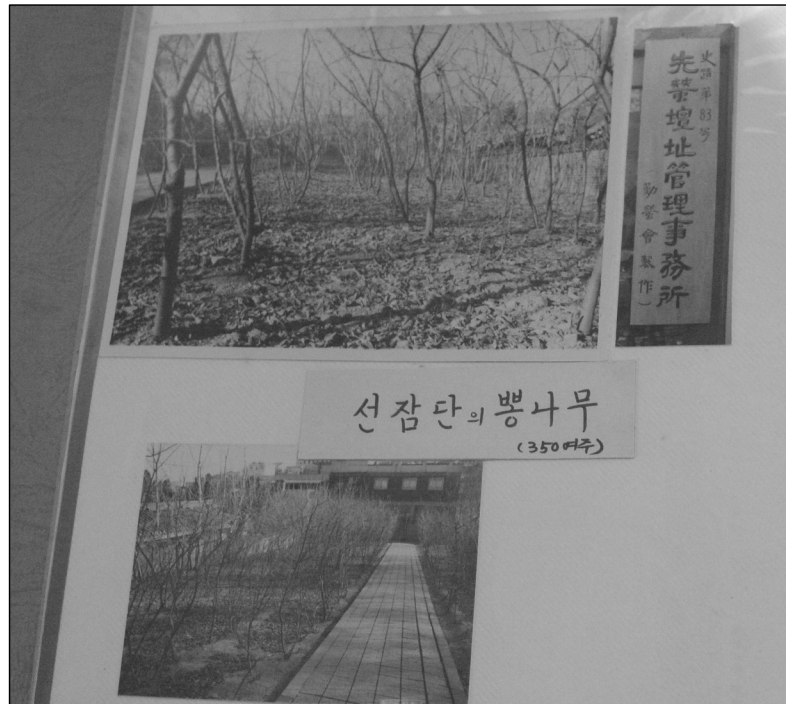


이 증언은 대한잠사회에서 발간한 [잠사회 80년사]란 책을 통해 선잠단 조성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18세기 이후 양잠 산업의 변화’를 집필한 이정향의 글에서 보듯, 1976년 식목일 행사로 이학수씨와 주민들이 뽕나무를 심었고 그 이후부터 선잠단이 그나마 관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동규씨는 그때 20대였는데, 이학수씨와 함께 뽕나무를 심은 3명중의 하나라고 한다. 역사 속 산증인이다. 그 이후 이학수씨는 명예 관리인이 되었고 관리소 명패까지 만들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서야 제향이 시작된 것이다.

1982년부터 근잠회와 대한잠사회에 의해 매년 봄 뽕잎 가지치기와 비료주기, 주변정리를 하며 선잠제 재현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던 차에, 성북구청에서 1993년 서울천도 600년을 기념하여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선잠제향을 재현하기에 이른다. 일제시기 끊어진 제향이 85년만에 재개되었고 제향이 치러진 5월 16일을 성북구민의 날로 정했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어 살려낸 문화재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선잠단에는 홍살문이 없었다. 선잠단 앞에는 여전히 건물이 가로막고 있었다. 1998년에 와서야 민가를 헐고 홍살문을 세울 수 있었다. 그 당시 건물에 가로막혀 있던 모습은 여주 잠사민속박물관에서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 선잠단지 가운데 길은 지금과 달리, 붉은 벽돌로 깔려있다. 80년대부터 선잠단지 조성 과 조사를 해온 박재명 관장님은 [잠사회 80년사]의 저자이자, 양잠산업의 산증인

으로 사진자료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도 가진게 없다고 하신다. 당시에 관계자들에게 자료를 전부 넘겨주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화가 안되어 있는 시대에 인화된 사진들이 송두리째 없어진 것이다. 부실한 기록문화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8년 홍살문이 세워지기 이전의 선잠단 모습

선잠단의 크기

선잠단과 성북초등학교와의 사이에 난 길은 언제 생겼을까? 구청 지적과에서도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구청에서 일부러 도로를 낸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 도로이거나 민간이 조성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가장 오래전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북초등학교 땅의 소유자이기도 했던 간송 미술관의 전성우 씨일 것이다. 부인 김은영 씨(77세)가 전화를 통해 증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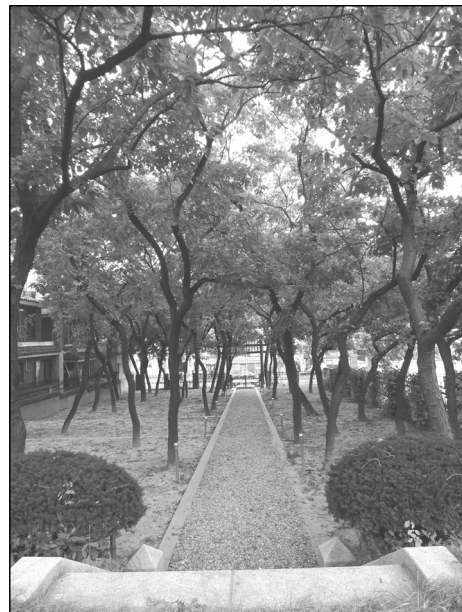
해주셨다.

“성북초등학교는 간송 땅이었는데, 해방 후 소학교의 땅이 없어 희사했다. 원래 삼산초 등은 5개 교실이었고 선잠단 옆에 있었다. 해방 후 학교가 좁고 땅이 없어 현재의 자리를 희사한 것이다. 일제 때도 성북초등 자리는 선잠단이 아니었다. 선잠단 북쪽에 있다고 해서 오세창 선생이 ‘북단장’이라 이름지었다. 그곳이 간송미술관 자리이다. 선잠단과의 사이에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그다지 좁지 않았고 현재의 길이 그대로 난 것 같다. 선잠단 뒤 삼거리에 물이 많았고 길상사, 골프장 등에서 내려오는 물이 삼거리에서 모여 선잠단 오른쪽 샛길로 빠져나갔다. 길상사 위쪽으로 절, 암자가 300여개나 있었다. 숲이 우거져 오소리, 토끼, 여우가 나올 정도였다. 현재 명수학교에는 큰 물 웅덩이가 있어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성북동에 터를 잡고 들어온 것은 1934년경의 일이고 그때 성북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만여 평을 구입하게 된다. 위창 오세창 선생은 그곳이 옛 선잠단지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단장(北壇莊)이라 명명하였다.¹

1910년대의 선잠단 사진을 볼 때, 현재 선잠단 양쪽에 있는 빌라와 도로까지가 선잠단지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773평이었던 선잠단지는 1930년대 일제에 의해 200여평만 남겨놓고 528평이 개인에게 불하된다.² 현재 제단의 모습이 비좁아진 이유는 그 때문이다.

성북초등학교와의 사이에는 오솔길이었는데, 언제 지금과 같은 축대가 쌓이고 도로가 생긴 것일까? 성북초등학교 연혁에 의하면, 학교 동관이 세워진 것은 1969년으로, 그즈음 축대를 쌓고 도로가 생긴 것



1. 성북구, 『성북구지』 1993, p.755

2. 대한잡사회, 『잡사회 80년사』 2000년, p.47. (경성부 자료 재인용)

이 아닐까 한다. 일제시기 200평 남짓 남아있던 것이 광복 후 1998년 홍살문을 세우기 위해 민가를 사들이면서 조금 넓어져 현재 선잠단지의 최종 넓이는 285평(939m²)이다.

그렇다고 선잠단 제단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국조오례의에 기준하여 선잠단의 크기는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寸), 사방에 계단이 있으며, 양쪽에 유(壘)가 있고, 이 유는 25보(步)라 하였다.³ 환산하면 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7m인데, 실제 측량결과 7m가 약간 넘지만 비슷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유(壘)’라고 하는 중간 담장이 사라진 것이 아쉽다. 복원과정에서 정확한 사료를 근거로 하지 않은 듯하다. 유의 너비가 45m이니, 이를 통해 선잠단의 전체 너비를 예측할 수 있다. 1910년대 사진을 보아도 중앙의 제단 앞으로 장대석이 쌓여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였음을 알 수 있다.

북쪽에는 축문이나 폐백(幣帛)을 태우거나 매장하는 예감(瘞塋)이 있었고 그 남쪽으로는 길(踏道)이 있었다⁴고 하니, 지금보다는 제단의 북쪽도 꽤 넓은 구역이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자갈이 깔린 중앙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길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묘나 사직과 같이 전돌이 깔리지 않았을까 한다. 자갈은 선잠단을 찾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가져가기도 해서 복원된다면 고증을 거쳐 제대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양잠에 대한 기억

선잠단 일대에서 뽕나무치고 누에치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성북동에서의 양잠의 기억은 없었다. 대부분 할머니들의 기억은 결혼하기 전 친정 고향에서 일하던 것이었다.

1976년 선잠단에 뽕나무가 심어지기 전까지 이곳은 뽕나무도 없었고 양잠과는

3. 앞의 글, 임혜련, ‘친잠례와 선잠제 의례와 의의’ 중.

4. 성북문화원, 「선잠제의 역사와 의례」, p.29. 세종실록 「오례」 재인용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다. 조선시대에 세워진 대규모 잠실도 아차산과 낙천정 일대가 동잠실이고 연희궁 일대가 서잠실, 잠원동 일대는 신잠실이었다. 잠원동에 오래된 뽕나무의 흔적이 남아있고, 송파구 잠실에는 뽕나무 관련 이야기들이 전해오는 것에 비해 성북구에는 뽕나무에 관한 흔적이 거의 없는 것이 특이하다.

간혹 자료에는 ‘성종2년(1471) 선잠단 남쪽에는 한단 낮은 댕돌이 있고 그 앞쪽 뜰에는 뽕나무를 심어 궁중에서 키우는 누에를 먹이게 했다’⁵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북의 뽕나무는 궁중의 잠실을 위한 뽕밭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잠실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선잠단 안에 뽕나무가 있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제시기 선잠제향이 끊어지면서 선잠단지는 뽕나무 하나 없는 황무지가 되었다.

한편 1993년 [성북구지]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양잠을 권장하면서 지금의 제기동에 경기도 원잠종제조소가 있었고 1925년 송인면 신설리(신설동)에 비단실을 생산하는 근대적 제사(製絲)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섰다는 것은 그 일대가 잠업이 성행했음을 말해준다. 동소문 밖에서 미아리 넘어 수유리, 우이리 등의 성북지역과 청량리, 망우리 등지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양잠지역⁶이었다. 생사 공장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잠실과 공장 노동자로 일한 여성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성북에 정착한 사람들이고 도시에 정착한 이상 더 이상 양잠이나 길쌈은 하지 않았다.

선잠단 북쪽, 성북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조선시대에 별에게 제사지내는 영성단(靈星壇)이 있었다. 현재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마당에 영성단 표석이 세워져 있다. 민가가 거의 없던 성북지역에는 국가의 제례를 담당하는 제단이 주변에 많았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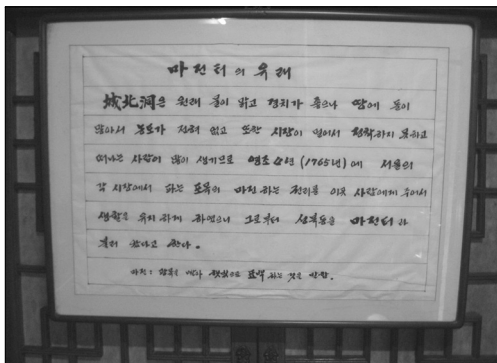
5. 성북구, 『성북구지』 1993, p.763

6. 성북구, 『성북구지』 1993, p.430

2. 마전터와 개천에 대한 기억

선잠단은 잘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마전터 이야기가 나오니깐 오히려 반가워한다. 외지에서 공부하며 찾아가는 답사객들은 선잠단을 더 잘 알고 가는데, 주민들은 이곳이 마전터였음을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선잠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곳이 마전터였다고 한다. 지금은 복개되어 전혀 알 수 없지만 파출소 건너편 생선구이집 앞에 마전터 표석이 있다.

마전(麻田)터는 옷감을 표백해서 널던 곳을 말한다. 성북동 계곡에는 넓은 바위가 많고 물이 맑아 빨래하기 좋았다고 한다. 근방에 마전터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목준상(68세) 씨는 성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진짜 토박이인데, 마전터를 기념하여 식당이름을 ‘마전터’라 짓고 식당 내부에도 마전터의 유래를 적어 놓았다.



조선시대에 성북동 일대는 깊은 산속인데다 농토가 적고 시장이 멀어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였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는데, 조정에서는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하게 하기 위하여 마전의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다. 영조 41년(1765) 오흥부원군 김한구와 영의정 홍봉한이 왕께 건의하여 서울 각 시장에서 파는 포목의 표백, 즉 마전하는 권리를 이곳 주민들에게 주고 그 후 3년 뒤에는 창의문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궁중에 바치는 매주 쏘는 권리를 일부 이곳 주민들에게도 주었다고 한다.⁷

7. 성북문화원, 『사연이 깊은 성북의 유래』 1998.

복개되기 전까지 성북동 양쪽 골짜기의 물이 합류되는 삼거리 지점에는 커다란 돌이 있어 빨래를 널기에 좋았다고 한다. 세검정 일대가 너른 바위가 많고 물이 좋아 종이를 만들거나 실록을 씻는 세초지로 쓰였다면 이곳 성북동 계곡은 마전터로 쓰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바위들은 복개하면서 지하에 깔렸는지, 채석하여 건축자재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해방 후에도 동대문 시장 등지로 광목을 표백해서 팔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조사에서는 그렇게 업을 삼아 마전하던 사람은 찾을 수 없었고 주로 가정에서 빨래를 위해 개천을 이용한 정도였다.

하두호 노인회 회장(83세)은 금녕약국 있는 곳이 바로 마전터였고 60년대까지도 마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주로 광목을 사다가 다시 표백을 해서 팔았는데, 이런 일은 대부분 남자들이 했다. 직업적으로 이루어진 마전은 규모가 크고 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의 노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처음 조사 기획 당시에는 옷감을 빨고 표백하는 일이니, 마전터가 여성과 관련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직업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남자들의 일이 되었다. 여자들은 주로 개울에서 집안 빨래를 했던 것이다.



개천에 대한 기억은 특이하게도 남자와 여자의 기억이 다르다. 남자들은 주로 물이 맑았다고 하는 반면, 여자들은 물이 더러웠다고 한다. 그 이유를 추리해 보니, 여자와 남자들이 주로 개천을 이용하는 목적이 달랐다. 남자들은 주로 개천에서 놀던 기억이 많고, 여자들은 주로 빨래하며 일(노동)을 하던 기억이 많았다. 빨래를 하면서 물이 더러워졌을 테고, 빨래할 곳을 찾다보면 더러운 곳과 아닌 곳에 대한 기억이 더 명확했을 것이다.

몇몇 할머니들의 말씀에 의하면 “비가 오면 오물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었다” 고도 하고 70년대 이후 성북동이 개발되면서 물이 더러워졌다고 한다.

이곳이 얼마나 풍치 좋은 계곡이었을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성락원이나 세검정 일대와 비교해 보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선잠단 옆에서 홈패션을 운영하고 계신 이영순, 엄태홍 부부(60대 후반)의 증언에 의하면,

“마전터에서 광목을 양갯물에 삶아 빨아 널었는데, 궁녀들이 나와서 빨래했다고 한다. 개천에서는 목욕하고 빨래했다. 물이 맑아 가재가 많았다. 겨울에는 얼어서 팽이치고 썰매를 탔다. 시할아버님이 궁에 일을 하러 다니셨는데 궁으로 다니는 길이 있었다.”

“97년부터 이곳에서 홈패션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데, 집 바로 앞으로 물이 흘렀다. 10여년 전 어느날 뽕나무 씨앗이 날아 들었는지 옥상에서 뽕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너무 커져서 지금은 옆 담장으로 옮겨 심은 상태이다. 선잠단 옆에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다.”



정말로 집 담장에는 뽕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 비좁은 길목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니, 성북은 정말 ‘보이는 모든 길이 물길’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사람들의 추억 속에 있던 성북천이 복개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부터이다. 복개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1993년에 발간한 [성북구지]에 의하면, 성북천은 성북동 13~245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의 청계천 합류지점까지 약 7.7km이다. 맨 처음 복개는 민간에 의해 먼저 실시된다. 1960년대 말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이 붐을 이루면서 삼선상가와 성북상가가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삼선동과 동소문동 일부를 복개하여 상가빌딩을 지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70년대부터이다. 1977년과 1985년 2차에 걸쳐 삼선교 상류를 복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77년에는 2억2천만 원이 투입되고 85년에는 10억 원이 투입된다. 그때 선잠단과 마전터로 흐르던 중앙로의 복개가 이루어진 것이다.⁸

하지만 중앙로 양쪽으로 올라가는 샛길에 흐르던 개천의 복개는 80년대 초에 이미 이루어졌다. 서울 성곽 북정동 마을(성북2동, 03번 마을버스 종점) 어귀에 1983년 세워진 <소방도로준공기념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85년 중앙로의 복개 이전에 작은 샛길의 복개가 먼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약국을 운영하며 선잠제에도 직접 제관으로 참여했던 김향규(76세, 56년 거주) 할아버지의 기억에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한 집당 50만 원, 30만 원씩 직접 돈을 내서 복개를 하고 동네 청소를 했다”고 하니, 새마을 운동과 함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직접적으로 복개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8. 성북구, 『성북구지』 1993, p.383~385

성북2동 할머니경로당에서의 한 할머니 말씀이다.

“이곳 주변은 모두 판자촌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했다. 없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이 이곳 꼭대기 마을이다. 돈이 없어서 내려가서 살지 못한다. 연탄까지 지고 나르느라고 힘들었다. 지금은 양반 된 것이다. 마을버스가 어디 있었던가! 지금도 시골처럼 먹을 것도 나눠먹고 인심이 좋다.”

성북동의 맑은 물과 계곡이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도로가 나 있는 것이 생활에는 편리하지만 정취도, 추억도 사라진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제 와서 다시 개천을 복원한다고 하니 사람들의 변덕이 심하다고 해야 할까,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보아야 할까?

성북동은 조선시대에도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한경지략』(1834)의 명승조에는 성북동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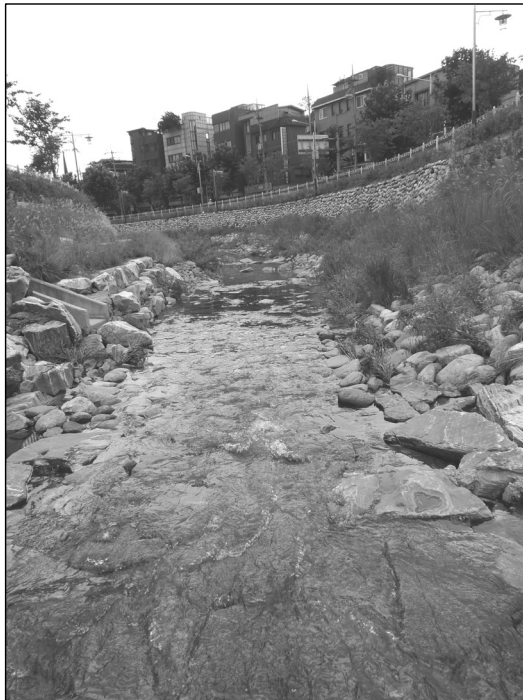
“북사동(北寺洞: 성북동의 또 다른 이름)은 혜화문 밖에 있다. 옛날 묵사(墨寺)가 있었으므로 묵사동이라고도 하고 또 어영청의 북쪽 창고가 있어 북둔(北屯)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냇물과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북송아를 심어 생업을 삼고 있다. 매년 봄이면 놀이를 나온 사람들의 수레와 말들이 골짜기를 메운다. 깨끗한 초가들이 많다.”고 하였다.



시인묵객들이 많이 찾을 정도로 풍치 좋은 곳에 일제시기에는 전형필을 비롯한 김기창, 김환기, 이태준, 한용운 등의 예술가들이 살았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성곽을 따라 서민들이 정착했다. 그리고 숲이 우거져 ‘평의 바다마을’이라 불리는 곳에는 1970년대부터 개발 붐이 불면서 고급 주택과 각국 대사관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올림에 떨어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성북동 비둘기]에서 시인 김광섭이 아쉬워했던 성북동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 인간은 편리를 위해 환경을 개조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아낙들이 빨래하던 계곡은 인구와 주택들이 급증하면서 오염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주민들은 냄새나는 개천을 원하지 않았다. 복개는 결국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청계천이 그러했듯 도로가 필요한 시대에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고 지금에 와서는 교통체증과 도시오염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환경이 더 중요해졌다. 2010년 성북천은 다시 흐른다. 선잠단 앞은 아니지만 한성대 입구 사거리를 기점으로 다시 복원되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는데 몇 배의 비용이 든다. 이제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도시개발 정책과 시민의식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3. 길쌈과 빨래노동

이번 사업의 주제에 ‘길쌈’이 들어가긴 하지만 도시인들에게 길쌈은 낯선 것이다. 나이 70이 넘은 할머니들도 대부분 고향에서 어릴 적 길쌈을 한 것이지 서울에 와서는 거의 길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길쌈이란 주로 가정에서 삼·누에·모시·목화 등의 섬유 원료로 베·명주·모시·무명 등의 피륙을 짜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⁹ 옷감을 만드는 과정을 통칭하는 길쌈 노동은 여성들이 주로 했던 노동으로 알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서울에 정착하여 살던 도시 여성들에게 길쌈의 경험은 별로 없었다.

실을 뽑고 베틀을 짜지는 않았지만 도시 여성이든, 양반여성이든 더 보편적으로 해온 여성노동은 ‘바느질’이다. 바느질한 옷을 다듬고 빨고 다시 다듬질해서 바느질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일반 여성에게는 더 일상적인 노동이었다. 그래서 길쌈 노동이라 함은 단지 옷감을 짜는 과정만이 아니라 옷을 만들고 빨래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빨래노동, 세탁노동은 세탁기가 이를 대신할 때까지 어느 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의 일이었으며 지금도 대부분 그렇다.

마전터 식당 목준상 님의 빨래터에 대한 기억은 추억이 어린 시(詩)같다.

“명수학교(버스 종점)는 폭포처럼 물이 많고 물웅덩이가 커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곳이었다. 그 주변이 바위여서 빨래하고 널기 좋았다. 엄마따라 빨래하러 갔다. 광목을 빨래해서 나무장작으로 삶아 빨아서 바위에 말린다. 따뜻하니, 빨리 건조된다. 온종일 기다리다가 집으로 간다. 아침에 와서 빨래하고 도시락으로 점심먹고 오후에 집에 간다. 아이들은 놀고 엄마들은 빨래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해가진다.”

9. 네이버 백과사전



1900년대 초 엽서사진 (여성사전시관 소장)

유독 흰옷을 많이 입는 조선 사회에서 빨래노동의 전담자인 여성에게 빨래는 분명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빨래하러 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어둡지가 않다. 1910년 경 한국을 찾았던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키스는 빨래감을 잔뜩 이고 가는 한국여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빨래 그림을 유독 많이 그렸다. 여인들은 빨래하러 가다말고 동네여인을 만나면 수다를 떨곤 한다. 옛날 엽서사진에서도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힘들어 보이기보다는 즐거워 보인다. 그것이 일종의 해방구였기 때문이다. 주로 집안에만 머물던 여인들이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날은 빨래하러 가는 날이고 빨래터에서는 다른 여인들,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의 회포를 풀 수 있었다. 빨래터는 여성들에게 공동작업장이자 회포를 푸는 장이었다. 지금의 여성들이 1주일에 한번이라도 찜질방에 모여 수다를 떠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방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빨래하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의 빨래를 몰아서 하는데, 하루 나들이를 가듯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락 싸서 하루종일 집을 나가 있어도 되는 해방의 시간이었다.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은 노동의 연속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73세 주병례 할머니.

“21세 시집을 때까지 벼를 찼다. 어릴 때 고생 많이 해서 손가락 마디가 지금까지 아프다. 손바느질, 재봉틀로 저고리, 두루마기, 바지저고리를 다 했다. 시골에서 양잠을 직접했다. 뽕나무 발도 있었고 정부 공납을 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공부하고 싶다.”

한국전쟁 이후 성북동에 정착한 전복임 할머니(87세)

“성북동 일대에서 채소를 캐다가 장에 나가 팔았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다. 현재는 노인정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일 안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편해졌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는 않다.”

2009년 길쌈대회에 나가 우승하신 손관현(84세) 할머니는 길쌈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

“8살 때부터 했다. 보통 8~9살 정도되면 다 길쌈을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집 밖을 나가서도 안되고, 공부도 하면 안된다고 하며 길쌈을 가르쳐 어릴 때부터 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나는 다 헤쳐서 기운 치마를 입고 벼를 찼다. 가족들이 돈을 만져보는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어른들이 장에 대다 팔았다.

옛날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생각했어? 대우를 못 받았지. 재실에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애 낳은 집 물어보고 ‘딸 낳았다’하면, 혀를 ‘쫄쫄쫄’ 차고, 아무리 못 살아도 ‘아들 낳았다’하면, ‘그집 참 운관이네’ 좋다고... 딸은 대우를 안해 줬어.”



할머니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웠던 젊은 시절을 기억하기 싫어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부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신다. 심지어 어떤 분은 또 고생할까봐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다고 하신다. 조선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가장 불쌍하게 본 계층이 바로 어린 여자아이들이었다. 그녀들은 교육받지 못했고 대부분을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 어린시절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내내 집안일에 시달리다가 성인이 되어 혼인하면 또다시 시집살이와 집안일, 육아에 매달린다. 여성 노동은 끝이 없다.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은 할머니들의 눈에는 오늘날의 여자들이 대단히 호강하며 산다고 생각하신다. 좋아진 세상을 이제 떠나야 하는 할머니들의 심정은 안타까울 뿐이다.

1900년대 초기에 찍힌 사진들을 보면 여자아이들은 모두 일을 하고 있다. 10세도 안된 아이가 동생을 업고 있거나 물동이를 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천진한 웃음을 짓는 모습이 지금의 아프리카를 연상하게 한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평생 한이 되었다는 할머니들의 말씀은 불과 100년도 안된 우리 여성들의 현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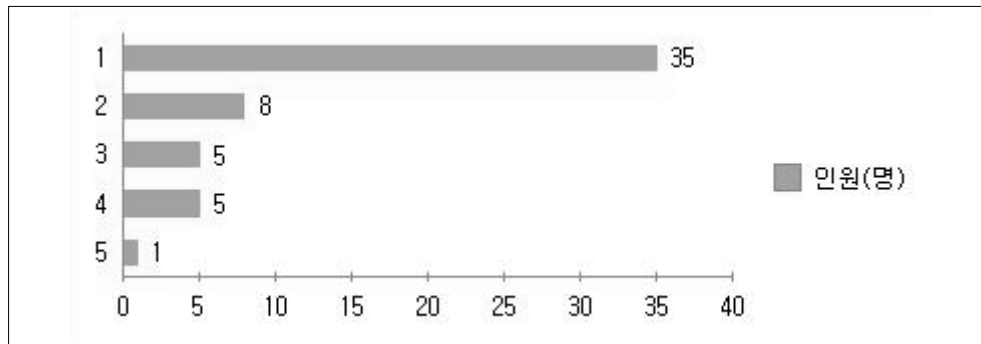


1900년대 초 엽서사진 (여성사전시관 소장)

〈객관식 설문조사 결과〉

2010년 8월 19일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37명과 이후 길거리에서 만나 조사한 주민 17명의 자료를 종합(54명)한 자료이다. 대상은 대체로 40대 이상 성인이다. 청소년층은 일부 사전 조사를 해보았을 때 대다수가 ‘선잠단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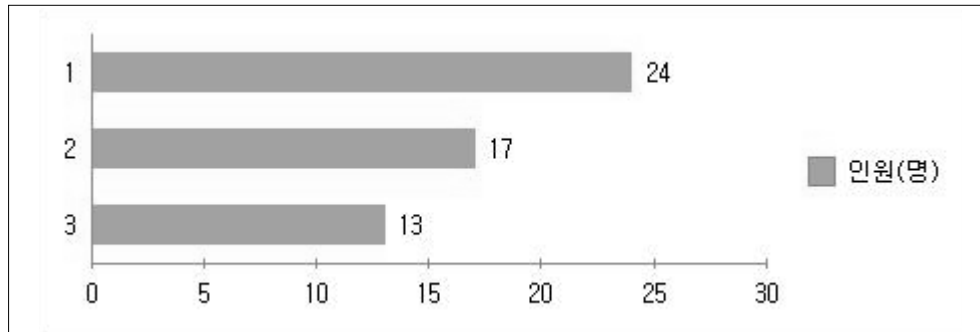
1. 선잠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 | | |
|---------------------------------------|----------|
| ① 선잠단이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 35명(65%) |
| ② 선잠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른다. | 8명(15%) |
| ③ 선잠단을 본 적도 없고 어떤 곳인지도 모른다. | 5명(9%) |
| ④ 잘 모르지만 알고 싶다. | 5명(9%) |
| ⑤ 관심없다. | 1명(2%) |

선잠단에 대해서는 65%가 알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50대 이상의 세대는 선잠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하지만 20대 이하의 젊은 층은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응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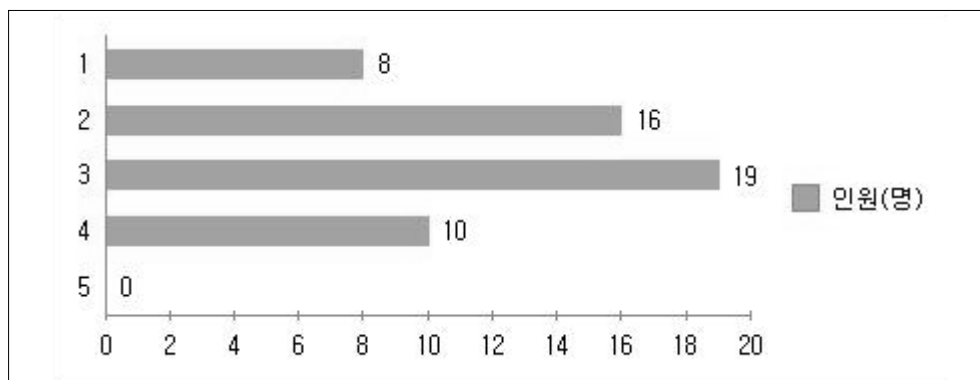
2. 선잠단에서 매년 행해지는 선잠제향을 아시나요?



- ① 선잠단에서 선잠제향을 지내는 것을 알고 있고 참여도 해보았다. 24명(44%)
- ② 선잠제향을 지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참여해본 적은 없다. 17명(32%)
- ③ 선잠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13명(24%)

주민들은 대체로(39명, 72%) 선잠제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중에서 제향에 참여해본 사람은 24명으로 44%였다.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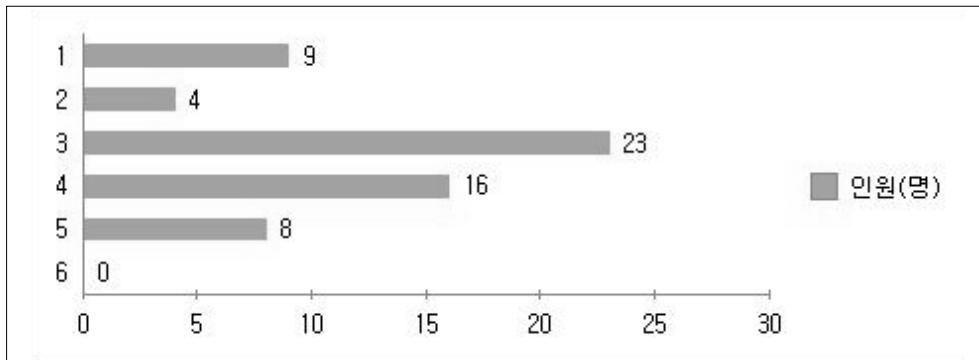
3. 성북의 대표 문화재인 선잠단에 관해 지역주민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성북구 주민들 모두 잘 알고 있으며 관심이 높다.	8명(15%)
② 지역주민들이 약간은 알고 있지만 관심이 높지는 않다.	16명(30%)
③ 지역주민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으며 관심도 없다.	19명(35%)
④ 잘 모르겠다.	10명(19%)
⑤ 기타의견.	0명

반면, 본인이 아닌 다른 주민들의 관심도를 물어보았을 때는 답변이 다르다. ‘지역 주민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으며 관심도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역시 ‘약간은 알지만 관심이 높지는 않다’고 대답하여, 65%가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대답하였다. 본인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4. 주민들이 잘 모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생업에 바빠 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9명(17%)
② 관심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4명(8%)
③ 관계기관의 홍보가 부족해서.	23명(43%)
④ 주민들이 무관심해서.	16명(30%)
⑤ 잘 모르겠다.	8명(15%)
⑥ 기타의견.	0명

주민들이 선잠단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홍보가 부족해서’가 ‘주민들이 무관심해서’보다 더 높게 나타나 개인의 책임보다는 관계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음 문항의 의견란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5. 선잠단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의견공모)

① 뽕나무 관련

- 성북구 가로수는 뽕나무로 심자.
- 공원이나 선잠단 주변에 뽕나무 심기 행사
- 성북동 길에 뽕나무를 심어서 주민께 홍보가 필요함.

② 정류소 안내 관련

- 선잠단 안내 홍보 필요성 - 예> 선잠단지 이름으로 정류소 설치
- 주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하여 성북초등학교 앞이라는 버스 정류장 명칭을 선잠단 앞이라고 병행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듦.
- 버스정류장(설명)

③ 선잠단 개방, 해설사 관련

- 개방을 해서 해설사를 배치한다.
- 정기적으로 해설, 개방한다.
- 정기적인 해설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홍보 및 개방, 해설사 근무
- 선잠단의 개방과 관리필요(요일을 정해서라도 표지판과 함께)
- 선잠단을 열어야 한다.

(급한대로 간송미술과 오픈시기 5월, 10월에라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

간송미술관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고, 선잠단지는 간송미술관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지나는 도중 선잠단지에 잠시 들리보고 싶고 궁금해도 그냥 지나갈 수 밖에 없다.

- 걷기코스로 개발한다.

④ 행사 관련

- 홍보와 행사로 적극 알려야 한다.
- 선잠단 앞에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
- 선잠단 앞에서 공연을 할 것.
- 선잠단 앞에서 관광 코스로 볼거리를 많이 전시 할 것
- 지역사회 유치원포함 초·중·고등학교에 지역사회 문화재임을 알고 답사할 수 있게 한다.
- 성인여성체험학습-뽕잎요리강좌, 실크천연염색, 비누강좌(재료응용), 번데기 등
- 누에키워 나방으로 변하는 과정까지 체험해보기(학교학생활동)
- 성북구민의 날에 누에고치나 물레를 만질 수 있도록 체험하기
- 성북구 행사에 포함시켜 성북문화재 때 적극 홍보(성북구 축제)
- 선잠에 관한 글짓기, 미술대회 등 학생대상 행사
- 앙드레 김 추모열기가 뜨겁다. 앙드레김은 황실(왕비) 이미지의 문양과 스타일의 의상쇼를 많이 했고, 소재도 실크를 많이 사용했다. 가능하다면 앙드레김 추모 패션쇼를 유치한다.
- 주민설명회 주기적으로 개최
- 참여해서 행사해보기
- 선잠단 개방과 주민이 함께 할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형식적인 제레보다 참여식 제레가 필요하다.

⑤ 홍보 관련

-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포스터, 성북구청 홈페이지 팝업)
- 학교중심의 홍보활동(청소년들에게 대대적인 교육홍보 필요)
- 지역신문 홍보(관내 학교 방문 교육)
- 대외광고효과기대(공영방송 또는 소식지 통한 홍보 필요)
-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홍보해주면 좋겠다.
- 방송을 통해 알린다.
- 성북 구민의 날에 선잠단에 관한 책 배포하기

- 반상회 자료로 배포, 성북구청에서 적극 홍보
- 인터넷홍보, 지역(구청)신문, 각 동사무소에 안내문 상시 비치
- 성북신문에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
- 성북소식지, 케이블TV에서 볼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자체의 적극 홍보

⑥ 서포터즈, 문화재지킴이 관련

-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유도
- 주민 서포터즈 활용
- 선잠단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

⑦ 기타

- 홍보도 좋지만 직접적인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선잠단 재정비 ex)과감한 변신~
- 예산확보
- 주변 청소와 관리 필요

〈부록 1〉 노인층 대상 면접 설문지

〈노인층 예상 질문〉

성북문화원에서 선잠단과 길쌈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녹음시작!

- ①이름: ②성별: ③나이(연령대):
④인터뷰 장소: ⑤조사자: (날짜:)

1. 선잠단과 양잠 관련

성북동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현재 하시는 일은? (질문하기 전에 판단해서 적거나 필요한 경우 질문)

선잠단을 아시나요?

선잠단에서 매년 제사지내는 것을 아시나요?

예전 선잠단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크기가 지금과 차이가 있었는지?

선잠단 옆길(성북초등 사이길, 물길 여부 등)

뽕나무가 많았었나요?

뽕나무가 있었다면 언제, 왜 뽕밭이 없어졌나요?

양잠을 혹시 하셨나요?

2. 성북천과 마전터 관련

선잠단 앞이나 그 앞이 예전에 옷감(마)을 표백하던 마전터라고 하던데 혹시 아시나요?

복개되기 전의 모습을 아시나요? 어땠나요?

복개가 언제 되었나요?

개천에서 빨래하고 물놀이 하던 기억이 있나요?

빨래를 어떻게 했나요? 돌에 빨래를 널었다고 하던데...

3. 길쌈과 여성노동 관련

바느질을 많이 하셨나요?

베를 짜보셨나요?

일을 많이 하셨나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요즘 여자들과 예전 할머니님 사실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다시 태어나신다면 여자로?(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부록 2〉 객관식 설문지

※ 성북구 성북동에 소재한 문화재 선잠단(사적 제83호)에 관해 아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성별: ②연령대: ③인터뷰 장소:

1. 선잠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 ① 선잠단이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 ② 선잠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른다.
- ③ 선잠단을 본 적도 없고 어떤 곳인지도 모른다.
- ④ 잘 모르지만 알고 싶다.
- ⑤ 관심없다.

2. 선잠단에서 매년 행해지는 선잠제향을 아시나요?

- ① 선잠단에서 선잠제향을 지내는 것을 알고 있고 참여도 해보았다.
- ② 선잠제향을 지내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여해본 적은 없다.
- ③ 선잠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3. 성북의 대표 문화재인 선잠단에 관해 지역주민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성북구 주민들 모두 잘 알고 있으며 관심이 높다.
- ② 지역주민들이 약간은 알고 있지만 관심이 높지는 않다.
- ③ 지역주민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으며 관심도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의견 :

4. 주민들이 잘 모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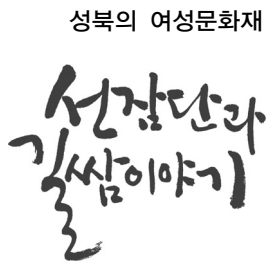
- ① 생업에 바빠 관심가질 여유가 없어서
- ② 관심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 ③ 관계기관의 홍보가 부족해서
- ④ 주민들이 무관심해서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의견 :

5. 선잠단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 공모

- ①
- ②

집필 여성문화유산연구회
(역사 속 그녀들을 찾아서 <http://cafe.naver.com/findingherstory>)

감수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권순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성북의 여성문화재

발행일 2010년 11월
발행처 성북문화원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번지
Tel. (02)765-1611 Fax. (02)765-1619 www.isbcc.or.kr
Copyright©2010 SeongBuk Cultural Center
*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발간하였으며, 내용을 재발간, 복사 등 어떤 형태로도 사용할 경우 성북문화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